

의견서

제출일	2020. 10. 14(수) 총 172 쪽
수신	청와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각 의원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
발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문의(담당)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02-737-5763)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제목	“낙태죄 전면 폐지는 종교를 넘어선 시대적 요구” 〈천주교 신자들의 낙태죄 전면 폐지 지지 선언(1,015명)〉과 〈낙태죄 폐지 촉구에 관한 의견(전문)〉

1. 기획 취지 설명

○ 들어가며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0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을 맞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지지 선언과 의견을 모으는 온라인 양식을 공개함.
-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지지 선언〉이라는 특정 종교 신자들의 의견을 모은 이유는, 대한민국 천주교구가 ‘태아 생명 대회’ 개최 등 ‘낙태’ 반대 운동의 선두에 서서 2018-2019년 〈낙태죄 합헌을 촉구하는 천주교 100만인 서명〉을 진행하거나, 2020년 8월 ‘낙태죄 전면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 하는 등 수많은 여성·시민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 의견과 전혀 상반되는 행보를 천주교 교구의 이름으로 지속해왔기 때문임.

○ 낙태죄 폐지는 교인들도 적극 공감하는 ‘시대적 요구’, 교구의 반대는 시대착오적

- 가톨릭의 강경한 ‘낙태 금지’ 교리와 달리, 실제 교인들의 의견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음. 실제로 인구의 99%가 천주교 신자인 국가 아일랜드에서는 인공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의 폐지에 반대의견(33.6%)에 두 배에 달하는 66.4%의 국민이 찬성하여 낙태죄를 폐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함.
- 199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참생명학교’가 신자 7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3.6%가 ‘낙태(임신중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1991.12.20.자 동아일보, 〈천주교 신자 83.6%가 “낙태 경험”〉)
- 실제로 이번 지지 선언에서도 대다수의 천주교 여성 신자들은 한국 천주교구의 〈낙

낙태죄 폐지 반대·합헌 촉구) 활동 전반에 대해 실망·분노·반대 등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 됨.

- 우리는 종교 안에도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이 있으며, 교구의 일부 의견이 종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음. 특히 종교계가 여성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 신자들의 경험이나 의견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정부·국회·종교계가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임.

2. 선언 내용

- 공동행동은 <낙태죄 전면 폐지에 관한 지지 선언>을 받음과 동시에, 참여자들에게 낙태죄 폐지와 관련하여 <종교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정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취합하였으며, 요약본과 전문을 아래에 덧붙임.

○ 선언 참여자들은 (요약본)

- 낙태죄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
- 여성 인권은 제쳐두고 ‘태아 생명’만 부르짖는 교회와 천주교에 실망과 분노를 느낌.
- 낙태죄는 여성이 겪는 문제, 정부·국회·교회는 무엇보다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
- 교회와 종교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 목소리 낼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위해 함께 낙태죄 폐지에 목소리 내야하며, 임신 중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여성과 함께 해야 함.
- 낙태죄 폐지뿐만 아니라 ‘교회 내 성차별’ 문제에도 목소리 높여.. 성차별에 침묵하고 일조하는 대신 여성의 삶과 인권에 더욱 큰 관심 기울이며 시대와 발 맞춰가야 함.

○ 맺으며

- 청와대·법무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 각 국회의원들에게 본 의견서에 담긴 귀중한 의견들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1,015명의 선언 참여자들의 의견과 같이, 여성의 인권과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슈에 당사자인 여성들의 목소리에 가장 크게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함.
- 또한 본 공동행동은 <지지 선언>에 참여한 천주교·개신교 신자·시민 1,015명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무수한 시민들과 함께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통한 여성 인권의 확보를 위해 끝까지 행동해나갈 것임.

- 아 래 -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아래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10.14.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지지 선언 참여자 일동(총 1,015명)

마리로사, 데보라, 아네스, 엘리사벳, 마르타, 마리스텔라, 라파엘라, 올리아, 안젤라, 마리아 막달레나, 미카엘라, 발레리아, 카타리나, 스콜라스티카, 카타리나, 젤뚜르다, 마리아, 아텔라이데, 리드비나, 소피아, 소화테레사, 카타리나, 엘리사벳, 소피아, 소피아, 프란시스, 가브리엘라, 대테레사, 라파엘라, 아텔라이드, 마리스텔라, 헬레나, 클라우디아, 클라우디아, 올리비아, 아네스, 스텔라, 가브리엘라, 소화테레사, 루카, 아네스, 클라우디아, 올리아나, 요셉피나, 글라라, 파비올라, 쯤마, 아텔라, 이사벨라, 안젤라 메리치, 체라, 안젤라, 리디아, 노엘라, 라파엘라, 아펠로니아, 개신교인입니다, 소피아, 소피아, 아네스, 루시아, 루도비카, 아가다, 마리아, 레지나, 마가렛, 마리아, 그라시아, 하늘높은곳에 영광. 글로리아, 미카엘라, 로사, 엘리사벳, 크리스티나, 비아, 레지나, 테레사, 마르피나, 미카엘라, 크리스티나, 레티치아, 글라시아, 소화 테레사, 체사리아, 안테로, 글라라, 글라라, 스콜라스티카, 글라라, 프란체스카, 글라라, 미카엘라, 요안나, 가브리엘, 마리아 고레띠, 라파엘, 쯤마, 올리아나, 엘리사벳, 비비안나, 가브리엘라, 카타리나, 안나, 실비아, 크리스티나, 사비나, 에디트슈타인, 세실리아, 헬리아, 클라라, Kristin, 보나, 미카엘라, 에밀리아나, 드보라, 벨라멧다, 베드로, 세실리아, 아네스, 쯤마, 베아트리지체, 플로라, 모니카, 유스티나, 토마스, 김상현 스테파노, 힐데가르트, 히야친타 마리스, 오틀리아, 마리아, 클로틸다, 마틸다,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 미카엘라, 헬레나, 세라피아, 로사, 프란치스코, 오틀리아, 안젤라, 쯤마, 세실리아, 마리아, 라파엘, 엘리사벳, 실비아, 님파, 안젤라, 로사, 아네스, 미카엘라, 임마누엘라, 살로메, 올리아나, 미카엘라, 테레사, 안나, 베르나데트, 레지나, 미카엘, 아나다시아, 다니엘라, 엘리사벳, 라우렌시아, 보나, 알레나, 엘리사벳, 쯤마, 유스티나, 마르피나, 한 글라라, 펠릭스, 아나스타시아, 올리아나, 소화테레사, 글라라, 요셉피나, 리타, 임마꼴랏다, 마리아고레띠, 소화테레사, 헬레나, 마르시아, 주 베드로, 세라피나, 엘리사벳, 에스텔, 제노베파, 세라피나, 김 베로니카, 안젤라, 유스티나, 헤네디나, 안젤라, 세실리아, 안젤라, 일루미나타, 요안나, 안나, 아네스, 제르뜨루다, 세레나, 벨라멧다, 글로리아, 베로니카, 로사, 플로라, 올리바, 모니카, 빈첸시아, 로사, 도미니카, 스테파니, 프란체스카, 올리안나, 니나, 테오도라, 김효임골롬바(한국순교성인), 이피제니아, 소화테레사, 리디아, 베아트리지체, 헬레나, 미카엘라, 마리스텔라, 클라라, 아네스, 가브리엘라, 스텔라, 아네스, 소피아, 임마누엘라, 안나, 요안나, 꼬르벨리아, 소피아, 유스티나, 요세피나, 베로니카, 효주아네스, 마리아, 올리아나, 가브리엘라, 아네스, 마리아, 아네스, 헬레나, 프란체스카, 라파엘라, 미카엘라, 소피아, 보나, 개신교인, 테레사, 미카엘

라, 스텔라, 레지나, 로사, 프란체스카, 엘리사벳, 라파엘라, 엘리스, 보나, 세실리아, 소화테레사, 마리스텔라, 울리아, 카타리나, 스텔라, 소아테레사, 라우렌시아, 마리아, 라파엘라, 엠마누, 스테파니아, 수산나, 카타리나, 카타리나, 카타리나, 카타리나, 레지나, 리파, 소피아, 모니카, 글로리아, 모니카, 소피아, 아네스, 엘리사벳, 쟈마, 안젤라, 엘리사벳, 안젤리나, 미카엘라, 에스텔, 테레사, 세실리아, 크레센도, 세실리아, 세실리아, 요안나, 모니카, 테레사, 프란체스카, 마리아, 마티아, 에밀리아, 안나, 아우실리아, 레지나, 다리아, 콘솔시아, 아네스, 발렌티나, 안나, 로사, 테레사, 클라라, 안토니아, 리디아, 안나, 세실리아, 에스텔, 유스티나, 테레사, 효주아네스, 엘리사벳, 디냐, 안젤라, 안젤라, 판체아, 아네스, 카타리나, 유디트, 짓다, 프란치스카, 울리아, 박 루시아, 마르가리타, 로사, 세실리아, 그라시아, 글라라, 프란체스카, 레지나, 클라우디아, 바틸다, 요안나, 레지나, 스텔라, 엘리자벳, 엘리자벳, 리나, 소피아, 마리아, 마리안나, 크리스티나, 비비안나, 프란치스코, 아네스, 잔다르크, 스텔라, 테레사 베네딕타, 소피아, 페트라, 아네스, 세라피아, 글라라, 엘리자벳, 로사, 아네스, 그라시아, 엠마, 라파엘라, 스콜라스티카, 엠마, 크리스티나, 카타리나, 마리아, 로사리아, 루피나, 미카엘라, 카타리나, 아나스타시아, 에스텔, 소피아, 에스더, 소피아, 보나, 미카엘라, 시모나, 로즈마리, 유스티나, 엘리자벳, 나탈리아, 미카엘라, 세실리아, 마틸다, 엘리자벳, 루시아, 세실리아, 이레네, 미카엘라, 스텔라, 소피아, 베드로, 아나스타시아, 카타리나, 엘리자벳, 마틸다, 로사, 요세피나, 카타리나, 수산나, 안젤라, 울리아, 안젤라, 레지나, 구네군다, 마리아, 멜라니아, 리나, 베로니카, 솔리나, 마르티나, 라우렌시아, 요세피나, 레아, 가타리나, 로사, 요세피나, 마리아, 유스티나, 헬레나, 마리아, 마리안나, 힐데가르트, 글라라, 소화테레사, 미카엘라, 플로라, 비비안나, 쟈마, 세라피나, 카타리나, 보나, 윤정주 (하이, 세레 아직 못받음), 레지나, 크리스티나, 정혜 엘리자벳, 스콜라스티카, 라파엘라, 세실리아, 미카엘라, 가브리엘, 베네딕타, 이라이스, 가브리엘라, 수산나, 세레나, 소피아, 릴리아나, 수산나, 루피나, 로사, 아네스, 로사, 안젤라, 소피아, 세실리아, 플로라, 마르첼라, 미카엘라, 클라우디아, 수산나, 미카엘라, 에밀리아, 로사리아, 마리아, 로즈마, 글라디스, 로사, 글로리아, 세실리아, 켈레리나, 마리아, 가브리엘라, 안젤라메리치, 요안나, 헬레나, 글라라, 아델리나, 루시아, 베아타, 울리아, 마리아, 스콜라스티카, 엘리자벳, 에스텔, 클라라, 베로니카, 아가타, 사비나, 로사, 라파엘라, 힐데가르트, 울리안나, 라파엘라, 가브리엘라, 미카엘라, 수산나, 안젤라, 미카엘라, 안젤라, 막달리아 마리아, 라파엘라, 요세피나, 그라시아, 안젤라, 엘리자벳, 미카엘라, 마리스텔라, 카타리나, 요세피나, 세실리아, 보나, 글라라, 레지나, 테레사, 울리아, 제노베파, 제노비아, 라파엘라, 라파엘라, 라파엘라, 안나, 안나, 로셀리나, 엘라, 미카엘라, 아마따, 레베카, 아네스, 서고은 수산나, 제노베파, 마리아, 안젤리카, 안나, 힐데가르트, 세라피나, 테레사, 아타나시아, 세레명이 없어도 신자일수 있습니다, 요세피나, 프란체스카, 엘리자벳, 베로니카, 체칠리아, 모니카, 베로니카, 카타리나, 아델라, 엘리자벳, 레지나, 쟈마, 미카엘라, 영이바르바라, 프란체스카, 안젤라, 요안나 제인, 로사, 세라피나, 에스텔, 레온시아, 아네스, 안토니아, 엘리자베스, 리디아, 히지노, 레지나, 루시아, 가브리엘라, 에밀리아, 엘리자벳, 글라라, 아네스, 미카엘라, 울리안나, 드보라, 안나, 보나, 가브리엘라, 레아, 가브리엘라, 미카엘라, 아네스, 페트라, 아셀라, 마리스텔라, 안젤라, 정혜엘리자벳, 라파엘라, 세실리아, 짓다(zita), 헬레나, 유딧, 아스테리아, 캐롤린, 마리아, 발렌티나, 리오바, 로사, 로사리아, 바틸다, 미카엘라, 루치아, 발레리아, 안젤

라, 아녜스, 나탈리, 마르가리타, 크리스티나, 로사리아, 안토니아, 그라시아, 다리아, 비비안나, 젤뚜르다, 연이올리아나, 크리스티나, 소피아, 세실리아, 베로니카, 리파, 에스더, 세실리아, 제노베파, 제노베파, 플로렌시아, 라파엘라, 레지나, 유스티나, 세레나, 쯤마, 베로니카, 카타리나, 플로라, 시메온, 엘리사벳, 마르가리타, 안젤라, 베로니카, 아녜스, 안젤라, 라헬, 임마누엘, 안젤라, 안젤라, 카타리나, 가타리나, 세실리아, 리디아, 요안나, 빅토리아, 미카엘라, 가브리엘, 드보라, 스텔라, 엘리사벳, 베로니카, 그라시아, 미로페, 마리스텔라, 마리스텔라, 베로니카, 소피아, 카타리나, 베로니카, 안젤라, 루치아, 마르카, 김효주아녜스, 레지나, 가브리엘라, 미카엘라, 루시아, 비비나, 스텔라, 스텔라, 세라피나, 클라라, 세레명이 없기에 익명의 이름으로 지지합니다, 요안나, 클라라, 에디트슈타인, 크레센시아, 가브리엘라, 안토니아, 미카엘(라), 에스텔, 카타리나, 에스텔, 리나, 클라라, 요한보스꼬, 미카엘라, 요셉피나, 올리아나, 로사, 비아, 요한나, 베로니카, 이레네, 미카엘라, 안젤라, 엘리사벳, 실비아, 잔다크, 마리아, 에텔지다, 레아, 아녜스, 마리아, 아녜스, 요세피나, 비비아나, 세실리아, 프린치피아, 이지은 아나스타시아, 소화테레사, 프란체스카 로마나, 리디아, 마리아 막달레나, 레지나, 보나, 가브리엘라, 세실리아, 레지나, 가타리나, 사마엘라, 엘리사벳, 노엘라, 빅토리아, 미카엘라, 비비안나, 엘라, 이레네, 플로라, 로즈마리, 소피아, 플로라, 마틸다, 카타리나, 베로니카, 클라라, 올리안나, 마리아, 아녜스, 마르첼라, 소프로니아, 가브리엘라, 소피아, 안나, 스텔라, 아녜스, 헬레나, 콘소르시아, 아가다, 세실리아, 비비나, 로사, 엘리사벳, 솔리나, 안젤라, 아녜스, 요세피나, 유프라시아, 크리스티나, 소피아, 미카엘라, 카타리나, 로즈마리, 미카엘라, 김 아녜스, 쯤마, 모니카, 비비안나, 가브리엘라, 소화테레사, 바올라, 로사, 프란체스카, 안나, 안나, 안젤리나, 루시아, 카타리나, 세실리아, 쯤마, 유스티나, 베로니카, 플로라, 카타리나, 세라피나, 엘리사벳, 안나, 아녜스, 미카엘라, 그라시아, 아가페, 카타리나, 아녜스, 헬레나, 로마나, 베아트리지체, 쯤마, 아가다, 올리안나, 루시아, 마르첼리나, 로사, 올리파, 소화테레사, 올리안나, 라파엘라, 아가타, 엘리사벳, 소피아, 미리암, 유스티나, 프란치스코, 엘리사벳, 효주아녜스, 테레사 베네딕타, 막달라마리아, 대레사, 마리아, 로즈마리, 아녜스, 그라시아, 크리스티나, 라파엘라, 크리스티나, 아니시아, 체칠리아, 안젤라, 리나릿따/리나, 로즈마리, 스텔라, 제노베파, 에스더, 로즈마리, 아그네스, 세실리아, 크리스티나, 안나, 아가타, 빅토리아, 프란체스카, 아셀라, 엘리자벳, 멜라니아, 임마누엘라, 레지나, 올리아나, 레지나, 잔다르크, 테레사, 미카엘라, 아녜스, 미카엘라, 리드비나, 클라라, 카타리나, 클라라, 세라피나, 한나, 세라피나, 로사리아, 체칠리아, 아가페, 크레센시아, 미리암, 세레나, 크리스티나, 테레사, 마르가리타, 아니시아, 아가다, 이레네, 말가리다, 마리아, 아나스타시아, 멜라니아, 레지나, 마리안나, 잔다르크, 잔다르크, 가브리엘라, 마리아, 안젤라, 효주아녜스, 루시아, 다리아, 루치아, 드보라, 기독교라 세레명은 없습니다, 아녜스, 마리스텔라, 마리아, 크리스티나, 루시아, 클라라, 요안나, 요한, 올리아나, 엘리사벳, 수산나, 마리아, 베아트리지체, 마리아, 사라, 사라, 엘리자베스, 요한, 아멜리아, 안나, 마르티노, 라우렌시오, 마리아 프란치스카, 헬레나, 헬레나, 유스티나, 가브리엘라, 로사, 드보라, 아르텔라, 클라라, 아녜스, 마리스텔라, 안젤라, 헬레나, 로즈마리, 플로라, 플로라, 소화테레사, 카타리나, 루피나, 베드로, 마틸다, 효주 아녜스, 스텔라, 안젤라 메리치, 체라, 아녜스, 스콜라스티카, 라파엘라, 글로리아, 안나, 리드비나, 안젤라, 헬레나, 도로테아, 마리아, 마리아, 올리아나, 올리아나, 세실리아, 마리아, 힐데가르트, 세실리아, 사

피엔시아, 카타리나, 레오나, 보나, 마리아, 안나, 가브리엘라, 테레사, 카타리나, 로사, 에디트, 테레사, 에스텔, 브리지다, 이수정, 마리아, 아마타, 엘리사벳, 스텔라, 안젤라, 도로테아, 로사, 율리아나, 마리아, 카타리나, 아마타, 아네스, 효주아네스, 플로라, 가브리엘라, 로사리아, 라파엘라, 로사, 로사, 키아라, 크리스티나, 미카엘라, 안나, 카타리나, 발렌티나, 안젤라, 안나, 크리스티나, 루시아 (참여순)

〈낙태죄 폐지 지지 선언 참여자들이 종교계에 전하는 글〉 (전문)

〈주요 의견 내용〉

- 천주교구에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과 달리, 선언 참여자 1,015명을 비롯한 많은 수의 천주교 신자들은 낙태죄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
- 2018-2019년 천주교의 100만인 서명 운동 당시 많은 여성들이 불쾌감을 경험하는 등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천주교의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으로 인해 냉담하게 된 여성 신자들이 매우 많음.
- 일부 참여자는 직접 자신과 주변의 임신중지 경험을 공유하며, 교회 내에서 임신중지를 죄악시 하는 <교리>의 불합리함과 나아가 세속법인 <형법>에서도 여성만을 처벌하는 낙태죄의 차별적 내용을 지적함.
-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인간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이미 태어나 존재하는 인간인 여성의 존재와 권리도 존중해야 함. 현재 그 반대를 행하고 있는 종교의 입장은 '생명 존중'이 아니라 매우 반여성·반인권·반생명적임.
- 낙태죄 이슈 이외에도 피임, 이혼, 가정폭력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과 가톨릭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노동 등 여러 행태들은 매우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임. 많은 개선이 요구됨.
- 변화한 시대와 발맞추지 못하는 종교는 도태될 뿐임.
- 일부 종교인의 주장처럼 생명을 경시해서 '낙태(임신중지)'를 하는 여성은 없음. 여성들은 모든 책임과 부담을 홀로 떠안은 채로 누구보다 가장 깊은 고민을 통해 전인적 결정을 내리는 것임.
- 낙태죄와 관련해 종교의 할 일은 오히려 가장 차별 받고 억압받는 여성들의 편에서 여성 인권을 위해 함께 낙태죄 폐지에 목소리를 내는 일임.

집안이 전부 천주교도인 모태신앙 신자입니다. 성가대 대장으로 봉사하며 반주를 합니다. 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아는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분명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인 저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성당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대대적으로 한 이후로 성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날 미사가 끝나고 한바탕 신자들이 떠난 자리를 보니 서명지에는 노년의 신자들이 본인 자녀들 이름까지 동원해서 대리 서명을 줄줄이 해놨더군요. 낙태를 경험해본 일도, 경험할 일도 없는 남성 신자들은 왜 령게 열성적이었던 걸까요.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여성들의 생명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성당이 너무 싫었습니다. 성당에서 저도 소중한 생명으로 취급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녔어요. 가톨릭이 사회문제에 있어서 늘 행동하는 종교라는 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을 갈 때에도 신부님이 추천서를 써주셨고, 지금은 교리교사로 봉사할 만큼 제 삶의 80% 이상을 성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성당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할 때에 '교리교사'인 제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어른들에게 지적 아닌 지적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생명'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고들 말씀하시더군요. 속상했어요. 많은 여성 신자들의 봉사로 인해 원활히 유지될 수 있고 또 많은 사회문제에 주저하지 않던 내 종교가 이렇게나 딱 막힐 수 있다니요. 신부님,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100만 낙태죄 폐지 서명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후보에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유감 성명문이 나왔을 때에는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교리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건강한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서요. 근래만큼 교리교사로서 부끄럽고 고민을 해야하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종교 교리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페미니스트 교리교사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여성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경했던 진보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주교회에서 과연 임신중단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사회가 임신중단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천주교회가 지금처럼 사회에 의견 개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천주교회는 성범죄와 원치 않는 임신, 임신중단, 성차별에 있어 '죄 없는 자'입니까? 낙태 반대로 성모님의 사례를 자꾸 근거로 드는데,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 고지를 받으셨을 때 '저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명시적 동의를 표명하셨고 그 이후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건 다들 잊어버린 겁니까? 하느님의 일에 있어서도 인간의 육체에 대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시는 게 하느님이신데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멋대로 정죄를 하는 겁니까?

성당은 저에게 학교이며 놀이터였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시간 주일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끔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받고 담화문이 후보에 실릴 때였습니다. 저는 임신중지를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번씩,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던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낙태죄보다도 두려운 것이 혹시 우리 성당에서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자매들이,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두려움의 순간을 겪어본 자매들이 하느님 집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단죄하라는 목소리가 아니라 설령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면이라도 성당에서는,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함께 맞아주고 상처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질책과 단죄가 아닌 사랑과 위로를 건네주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스무살에 제 발로 성당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서울 후보에 낙태의 상처를 겪은 이를 위한 정기모임 안내가 실려 있는 걸 종종 봤어요. 교회 안에서 낙태를 겪었던 이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참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포용하기는 커녕 처벌하자고 목소리 높이는 지금의 교회는 여성을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낙태를 종용한 남성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생명의 소중함을 주장하기 전에 이미 살아서 숨쉬는 여성들을 먼저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태아 성별 감별하여 여아만 낙태를 하던 때는 교회에서 아무런 의식과 통찰도 없더니, 이제서야 낙태는 죄악이고 살인이라며 여성들에게만 죄의식을 심어주는 건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 대한 연민보다는 이미 태어나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에 대해 성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2학년 때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당시 낙태라는 것이 죄라고 배웠지만 성장하며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지금, 낙태는 죄가 아닌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100만인 서명에 왜 서명을 안하냐는 친정엄마와 언니의 질문에 저는 당당히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인데 그 안에 여성의 선택은 목살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는 안토니아입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반대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교님들 및 신부님들께.

얼마전 주교회의에서 나온 성명을 본 후 천주교의 오랜 신자로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짧게라도 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85년에 세례성사를 받았고, 성인이 된 후 주로 사회복지회 소속의 장애인선교회에서 봉사자로 활동을 해온 요안나라고 합니다.

우선, 여성의 행복권, 자기결정권의 요구에 대해 남성들로만 구성된 주교님들께서 선부르게 예단하시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말씀드리고 본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누구도 자신 외의 타인에 대해 그 특성이나 고유성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관련되어 정책을 만들거나 한다면 비장애인이 보는 장애인의 특성, 문제점 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신 및 출산, 낙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은 임신과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당사자인 여성입니다. 제가 천주교를 종교로 가지고 활동한 지난 시간동안 전 단 한번도 천주교측에서 여성이 임신과 낙태,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지 묻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낙태는 안 된다, 생명권이 소중하다 말하는 것만 들었지요. 제가,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 어떤 선택을 하려하는지 여성의 목소리나 고민에 귀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하시니 종교는 결국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한계란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남성과 관련된 이슈(사제의 성폭력 등)에는 폭넓은 면죄부를 주고 여성과 관련된 이슈에는 그 어디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여성의 행복권,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말씀 또한 종교가 지나온 길에는 어땠는지 돌아보고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국가가 인구를 늘리고 줄이기 위해 때때로 정책을 바꾸고, 개개인들의 권리를 빼앗고, 여성들을 출산하는 도구처럼 취급

할 때 그때도 지금처럼 말씀하셨나요? 국가가 선별적인 이유와 정책으로 마음대로 시민의 성과 재생산권에 대해 통제하고 수단화할 때 종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이슈에서 이렇듯 목소리를 내는 종교도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은 아닐까요? 종교는 국가가 다양한 선별적 이유를 들며 임신의 중단과 지속을 통제하려 할 때, 이를 조장하기보다 왜 여성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여성의 위치와 사회환경을 돌아보고 여성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종교는 누구나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고, 국가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자원과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국가와 사회에서, 성과 재생산의 문제에 있어 종교가 가진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번째, 낙태의 권리를 “특권층의 이익이나 다수의 논리”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특권층이었던 적이 있던가요? 1953년 법이 제정될 때에도, 2020년 총선이 치러질 때도, 법과 질서를 다루는 수사 및 재판기관도 남성들이 장악한 남성위주의 사회일 뿐 여성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천주교도 마찬가지이죠. 모든 종교들이 여성 성직자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사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당에 가보면 사제의 수발을 드는 사람은 모두 수녀 혹은 연로한 여성평신도이고, 평신도의 회장이나 사무장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여성들은 성당의 청소, 행사의 식사담당 등 끝없는 돌봄의 역할만 주어집니다. 과연 누가 특권층인가요? 사회문제에 대해 차별과 평등,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먼저 천주교내에서 차별은 없는지, 평등한 조직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젊은 여성신자수와 한국의 여성인구수를 대비하여 파악을 해보신다면, 그리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신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른 곳이 아니라 천주교에 있었음을 아시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네번째,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와 가치나 주장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타 종교 및 종교인, 무 종교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제가 제 일상을 개신교의 교리나 주장으로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천주교 혹은 교황 등의 권위가 국가의 법과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던 로마시대같은 가톨릭 국가가 아닙니다. 저 또한 천주교의 평범한 신자로 우리 종교가 비종교인 혹은 타 종교인들의 가치영역을 침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태죄이든, 차별금지법이든, 그 무엇이든 국가의 법 개정 혹은 제정과 관련하여 종교라는 이름을 들며 침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반대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 인류의 보편적 가치 등을 논하며 “~~보다 우선하는..”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인권적이지 않으며, 모순입니다. 존엄이나 인권, 평등과 행복은 “~~보다 우선한, ~~보다 앞선, ~~보다 나은”으로 부여되고,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 우린 차별이라 부릅니다. 여성들이, 그리고 제가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것은 낙태죄라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존엄을,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행복을 침해하여 왔기에 그 침해를 막고자 하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여전히 태아는 그럴 힘도 없는 미약한 존재라 하시겠으나 여성의 신체와 정신과 생명이 없는 태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여성의 권리는 침해하면서 태아의 권리를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권리에 대한 비문이 아닐런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다시 낙태죄를 존치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마도 각 종교계의 압박을 이기고 그 구미에 맞춰 스스로 차별의 선봉자로, 헌법위에 군림하는 독재자로 남고 싶은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환영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 제가 먼저 글을 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은 끝날 때까지 낙태죄가 완전하게 폐지될 때까지 싸우고 바꾸어 낼 것입니다.

국가가 종교가 사회가 우리를 짓밟고, 여전히 시대를 역행하고, 어디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천주교 신자라는 걸 말하기 쪽팔리게 행동하고 있더라도, 누구나 평등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없이 발휘하고 스스로 최선으로 생각한 어떤 선택을 해도 행복한 세상을 위해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라 하느님과 분리된 사고는 지양하는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제가 배워 오고 소통해 온 하느님은 개개인의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믿어주시는 분이며, '올바르다'의 기준과 잣대는 엄격히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선택은 유동적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개인이 잘 겪어내는 것이 인간의 삶의 흐름이라 믿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진정으로 이 세상과 사회를 포용하기 위한 열린 신앙적 태도에서 습득하고 배운 것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하느님이 전하는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태도로 하느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에 그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그러한 노력을 신은 어여삐 여겨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처한 현실과 배경 등에 따라 당사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해당 당사자에게 '올바른' 선택이 나오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여성 인권의 흐름을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낙태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태아의 생명은 세상에 태어난 인간과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고 힘든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그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만' 하는 것은 그 소중한 태아의 삶을 비할 수 없게 힘들고 불행하게 합니다. 여성의 자주적이고 현명한 결정하에 '태아를 올바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낙태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태아의 영혼이 더 따뜻한 곳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결정의 책임에 있어 사각지대에 몰리는 수많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지점에서 낙태는 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태가 죄가 되어 버리면 음지의 반경이 더 넓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보호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며 더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늘어날 것 또한 예상됩니다. 낙태를 행하지 못하여 한 아이를 평생 불행 속에 성장하게 하는 것을 하느님은 기뻐하실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함과 하지 못함, 이 두 케이스 모두의 그늘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여성들을 하느님은 가엽게 여기실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개인의 올바른 선택 아래 그 개개인들이 더 행복하고 더 넓은 시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모든 신들이 바라고 응원해주시리라 믿어봅니다."

숨만 붙어있다고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낳으면 가톨릭 교리에 어긋

나지 않고 낳지 않으면 교리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하느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일차원적으로만 바라보고 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녀를 낳고 기르며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진정 살아있는 충만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종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여성보다 눈곱만한 수정란을 더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가톨릭 교회에 늘 깊이 실망합니다. 종교가, 종교인이 이 땅에 사는 여성 전체의 인생을 조종하고 죄를 덧씌워 낙인찍을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발, 여성의 평화를 빕니다.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 여성은 없을 겁니다. 다만 낙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뿐이겠죠.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길 바라지만, 낙태하는 여성에게 처벌을 하는 세상을 원하진 않습니다. 낙태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과 낙태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으로서의 낙태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대신 낙태가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모태 천주교 신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성당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신부님의 강론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신부님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관련된 고통에 관해서도 남 일처럼 느껴지실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낙태죄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나. 아직 신체라고 할 만한 것도 생기지 않은 세포를 떼어내는게 죄라고요? 하느님도 아직 의식도 없을 세포 하나를 지키기 위해 한 여성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삶도 결코 행복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이것은 전원 천주교 신자인 우리 가족이 모두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토요일마다 성당에 다니던 때, 하느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으니 저희가 부여받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의 목숨은 하느님께서 부여해 주셨고, 제가 제게 주어진 삶을 좀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듣기 좋아 보이는 신부님들의 미사에도 여성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특히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 왜 우리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배우면서, 다른 생명을 품고 싶지 않다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위험에 처했을 때 원수를 상대로도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라고 배우면서, 여성으로서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배우지 못했을까요? 시대는 성경이 처음 만들어진 시절,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 묶인 채 가족을 형성하고 출산을 하고 돌보는 것만이 그들의 소임이라고 강요받던 시절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밖의 여성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가정의 울타리 밖에서 훨씬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도 발맞추어 성경 밖의 세상, 눈 앞에 보이는 사회를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자매들 역시 보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천주교 신자인 루치아라고 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성당에서는 그것은 죄라며 손가락질 하기 바쁩니다. 어떤 신부님은 자기들

이 즐겨놓고 생명을 빼앗는다 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역정을 내시기도 합니다. 여권이 안되거나 여성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실질적으로 의도치 않게 아이를 갖게된 경우 여성이 겪는 피해(남성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 사회의 안좋은 시선 등)가 더 큰데 이런 불평등한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물어보니 결국 같은말 - 즐거움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만 되풀이 하시며 혼을 내시더군요. 아무도 저의 물음에 제대로 답해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도적 미비나 임신중지를 하지 않음으로서 감당해야하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깊게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피한채 무조건 죄라며 돌을 던집니다. 저는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또 한 번도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도 생리도, 임신도, 육아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낙태죄를 입에 올리는 것이 맞는가도 싶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니 그 불평등함과 부당함은 모른척하고 비난을 하는것이겠지요. 저는 신앙 이전에 여성인 제 자신이 중요하고 여성인 제 지인들이 중요합니다. 평등과 존중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불평등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크리스마스 당일 미사에서 낙태죄 찬성하자는 신부님의 강론과 더불어 교구 주교님의 같은 논조의 영상을 보면서 착잡하다 못해 슬펐습니다. 그런 날조차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현 한국 천주교의 바람인가요? 그 자리에 있던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상처받아 집에 돌아갔다면, 다른 날도 아닌 성탄에 그랬다면 한국 천주교 교회는 이미 틀린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낙태한 여자들에게 돌을 던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단죄하고 상처주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상처를 보듬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신부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교회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 신부님들의 입으로 '생명존중'을 위해 낙태를 반대한다는 말은 눈 뜨고 살아있는 수많은 여성 신자들을 목살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입니다. 저는 천주교 사제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냉담을 시작한 신자입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길게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고통받고 외면당한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제가 걸어야 할 길은 이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성당에서 낙태죄 유지 서명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성으로서 허탈함과 분노를 느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보다 세포상태일 뿐인 태아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왜 생물학적 아버지인 남성은 처벌하지 않고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낙태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지 성당에게 묻고싶다. 여성의 삶을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탄압한다는 게 참 기만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봐왔던 성당 내 성차별도 많았는데 정말 인권을 위한다면 그것부터 고쳐나가려는 시도부터 해야할 것 같다.

믿음의 공동체가 신에게 용납될 자격을 감히 따지려 든다는 점을 떠올릴 때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느끼는 시간들이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생명존중을 이야기 하면서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것은,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든 이들과 직접적으로는 그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 하도록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성의 생명을 위협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누구도 여성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죄 없지 않으며, 신의 이름으로 거대한 폭력의 얼굴을 한 국가에게 죄를 청하는 오만함은 감히 여인의 생명을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던 율법학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낙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서 본받아야 할 점도 있지만 시대가 바뀔에 따라 종교도 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세례를 받았지만 천주교의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의 곁에 임했던 주님을 발견하고 행해 온 많은 일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낙태죄에 대해 강론하시고 백만 서명을 받던 그 때부터요.

낙태를 죄라고 엄숙히 강요하던 그 곳에서 여성으로서의 저의 자리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에게도 마땅히 주어지는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여성인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건 제가 미혼이건 기혼이건 낙태 경험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성에게만 모든 죄가 지어지는 부당함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여성 신도들의 봉사로 유지되는 천주교가 여성의 죄만을 묻는 모습 앞에서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하느님은 누구의 곁에 계시나요? 여성의 곁에는 계시지 않나요? 저는 교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낙태죄 폐지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임신중단이 주님이 보시기에 죄라면, 그 정죄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교리상 죄라 하더라도, 그 죄는 카톨릭 공동체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서 정부의 형법 및 공권력에 의한 제한의 영역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생명권의 침해라면, 그 생명권은 단순히 태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산모와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사고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하여 생명경시가 더 가속화하지 않습니다. 낙태를 결심할 때 쉽게, 가볍게, 편하게 결정하는 여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임여성 또한 수정란만큼이나 하느님의 귀한 생명입니다.

죄인도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왜 가톨릭은 계속해서 죄인과 비 죄인의 선을 긋고 죄인을 인간의 죄로 심판하자고 주장하는지... 성경적 삶을 일반 신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신다면 인간의 법률로 낙태죄를 판가름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하실 죄인들을 위해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셔야죠.

과연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낙태를 했다는 여성들을 차별하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까요?

앞 뒤 짝 막힌 가톨릭신자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우리 제발 도태되지는 맙시다. 지금 이 세상보다 더 평등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에 저는 먼저 나아갑니다. 제발 늦게라도 따라오길 바랍니다. 낙태죄를 유지시키려는 당신들은 틀렸어. 우리가 증명할거니깐 두 눈 잘 뜨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효주아네스

"나는 이혼한 여성으로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볼 때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고, 이혼은 허락되지 않은 일이라는 강론을 듣고, 이후 성당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내 방에는 여전히 십자가가 있지만 말이다. 내 여동생은 낙태를 여러번 했는데 신부님에게 고백성사를 보며 그 사실을 말했을 때 무시당하고 경청받지 못한 느낌에 괴로워하며 그 이후 성당에 다니지 않는다. 나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당에 가라고 하지만 자신의 딸이 낙태를 한 적이 있는 것을 모른다. 또 이혼을 여성의 수치라고 여기면서, 자신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말 잘 듣는 자신의 딸들로만 대할 뿐 우리의 욕망과 좌절과 고통의 진짜 이야기는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다.

교회가 모르는 것은 자신들의 교인의 대부분을 이루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소수자이며 이들의 선택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강요되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지금도 여성의 낙태가 잘못된 한 여성의 선택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교회는 자신들에게 와서 기도하며 헌금을 내는 여성들의 말하지 않는 피눈물을 모르며 앞에서 눈을 감고 죄 사함을 행할 뿐이다. 진짜 고통을 모르는 이들에게 바치는 기도를 거두어들이고 좀더 우리 여성 자신을 위해 그 에너지와 기도를 써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고통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른다.

우리의 말하지 않은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아버지인 교회여, 말 잘 듣는 자녀인 신자 이외의 진짜 이 사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 여성의 모습을 직시할 수는 있는가."

천주교 신자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 지지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교도 변화해야 합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태아를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현행 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낙태가 비범죄화된다고 하여 흔쾌히 이를 시행할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비범죄화가 낙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화한다 하여 기존의 낙태시술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교회에서 여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이혼과 낙태는 죄악으로 여기면서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지않고 내치는 행태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세상은 바뀌어가고 그에 맞게 종교도 바뀌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만 실천하지말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20대가 되어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뒤늦은 가족신앙으로 늦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페미니즘과 함께 교리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소속감 복합적인 이유로 시작한 신앙생활에서 모두가 평등한 사람들이지만 낙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떨 때 보다도 안정되어야 하는 공간에서 왜 늘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응당 별을 받아야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교리

에서도 존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은 존귀함이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나쁜 상황이 생겼을 때마저도 책임을 모든 어린양이 아니라 여성인 우리만 지어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난 사람, 이제 막 생긴 사람 가치를 줄세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적어도 내 살을 깎아 새 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매들이 자신의 선택을 죄라고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살아있는 여성들의 존재가 그림자 속에서 은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낙태당한 영혼을 위한 기도만큼이나 임신중단을 선택한 자매들의 어려운 결정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성당을 원합니다.

피임 하지말고 무조건 낳으라고 강론하더라구요. 무의미하고 어이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동의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고통받는 여자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신자이지만 낙태죄폐지에 찬성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 소중한 삶을 위해 여성의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결코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사회가, 종교가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천주교가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길 바라며 요안나가 씁니다."

종교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도태되지 않고 존속하며 신자들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 신자들도 생명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앞세워 여성들의 신체를 억압하고 권리를 빼앗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일까요?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명을 사랑한다면 교회부터 여성의 삶을 사랑하고 공감할 줄 아셨으면 합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교회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내놓기 이전에 약자의 삶을 보듬었는지 약자의 생명을 보듬었는지 먼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약자들에게 죄를 묻기 전에 어떤 죄가 연결되어 거기서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부터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파란만장했던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어려운 시기 때마다 변함없는 등불이 되어주었던 가톨릭계에서 이번에도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고대합니다. 생명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면, 여성의 삶이 온전하게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태를 죄악시하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의 관성작용일 뿐입니다. 여자로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이보다 더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삶은 없는 것 같아요. 현대 여성의 삶을 다시 조명해보아야 합니다.

종교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외치지 않나요. 죄를 씻우고, 처벌하라는 법을 왜 계속 유지하려고 주장하나요? 생명이 소중하다면서, 여성의 삶과 인권은 왜 등한시 하나요? 다른 방식

으로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왜 낙태죄에 그렇게 열성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이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을 좋게 보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아낙태 문제는 비단 생명윤리와만 결부지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약습' 이자 '문화'처럼, 기독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존재해 왔습니다. 종교에 깊게 뿌리내린 기독교 내 여성혐오는 왜 애써 주체만을 가리고 피해자만을 조명하려 하는 걸까요. 단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의 결과가, 여성만이 책임지는 죄라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리는 신도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성의 주체적인 선택에 따른 삶을 옥죄 수 없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 어린 시절 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추억, 멋지고 따뜻한 신부님과 수녀님에 대한 기억,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의지하고 싶은 공동체이고, 쌍용차, 밀양 등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약자들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종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인 저에게 교회는 불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수녀님과 신부님 사이의 성별분업, 여자는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성차별, 여성의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천주교의 입장을 마주할 때면 저는 냉담해지곤 합니다. 수녀님, 신부님들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하셨을까 질문하시는걸 종종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반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낙태를 경험한 가톨릭 신자이며, 페미니스트입니다. 성당에 다시 나가려고 굳게 마음먹은 날, 주임신부님께서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낙태를 묶어서 강론을 하시더군요. 그때 마음이 닫히고, 낙태를 경험한 후엔 더더욱 성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런 경험을 한 여성들을 포근히 감싸주실텐데, 오히려 성당에는 제가 서있을 자리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이기 이전에 저는 한 여성입니다. 제 몸의 주체는 오롯이 제 자신이 되고 싶어요.

"저는 30대 천주교신자이고 20대 중반에 낙태를 한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콘돔을 끼기 싫어했어요. 사후피임약을 먹은 날도 관계를 갖자고 했어요 결국 임신이 됐고 남자쪽 집안에서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 했습니다.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지우는 수술을 했는데 동갑이었던 남자는 수술한 날 대학교 기말고사라고 곁에 있어주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일주일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너무 외롭고 괴로워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자는 제 떡살을 잡고 감히 니가 헤어지자고 바람뽀냐고 하면서 때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폰 번호를 바꾸고 차단하고 가까스로 그 남자한테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저는 5년 넘게 죄책감과 후유증 우울증에 시달려야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성당에도 감히 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자는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다녔고 아무런 죄책감도 책임감도 없이 저를 죽고 싶을 만큼 괴롭혔어요. 저도 우울증에 죄책감에 자살시도도 했습니다. 저는 자살에 실패하고 죽지 못해 살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낙태치유미사도 드리고 신부님께 고해도 하고 아이한테 용서를 구하는 편지도 쓰고 용서를 구하기위해 노력했습니

다. 성서공부도하고 연수도 피정도 다녀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성당에서 봉사자로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자매님께 마음의 위로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힘들 때 곁에 있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천주교신자고 낙태를 했고 지금도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자매님들이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인가요? 형법상 감옥에 가야한다면 저는 너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후유증이 아직도 있지만 낙태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남자의 폭력성을 그때 봤고 잘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이를 가지게 된 건 제 큰 실수이지만 낙태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 저는 대학원석사학위도 취득했고 30대중반인 지금은 저의 모든 일을 알면서도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사람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남자랑 애기 낳고 살았다면 저는 맞아죽던가 자살하고 이미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낙태를 선택함으로써 더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낙태를 "마음의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으로 낙태를 죄로 법으로 정하여 여성을 감옥에 보내고 단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이런 여성들의 상황을 외면한채 낙태죄 폐지반대를 앵무새마냥 반복해서 주장하고있네요...저를 포함한 모든 낙태한 자매님들이 감옥에 가야합니까? 낙태한 여성을 법으로써 단죄하는 방법만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 시대에서 생명을 지키는방법은 남성들이 생명의 소중함, 책임감에대해 깨달을 수 있게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남성의 성에 관련된 도덕성이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벼랑 끝에 몰린 자매님들이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숨을 띄어주는 것이 낙태를 막는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들의 행복과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아기도 행복하게 태어나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유아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로, 어린 시절의 한부분을 성당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는 성당에서 배운 가치들이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자라면서 성당 밖에서도 많은 것을 배워 지금은 그 때와는 많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것과 스스로의 몸에 대한 결정은 여성 스스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여성의 일을 결혼도 해본 적 없고, 임신도 출산도 해본 적 없는 신부님과 같은 분들이, 남성들이 반대하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렇게까지 입 아프게 몇 번이고 이야기 해야 하는지요. 저는 여성이고, 천주교 신자이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교회는 필요할 때는 여성을 갈아서 자신들의 신앙 결집을 위한 토양으로는 잘만 쓰지만 여성 인권에는 단 한번도 도움 된 적이 없다. 80-90년대 여아 낙태가 만연할 때, 가정폭력으로 여성이 힘들어 할 때 이렇게까지 나서준 적 없었다. 뻔뻔한 줄 알아야지 좀 닥치고 있으면 좋을 거 같다. 신자로서는 모르겠지만 여성으로써 교회에 밋진 것도 도움 받은 것도 없다. 방해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천주교 예비 부부 교리에서 콘돔, 피임약은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고, 주기에 따라 여성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서 임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걸 듣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되지 않는 편이 나은 사람도 있는

데 피임도 안 되고 중절도 안 된다니 교육을 받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미사 후 성당 마당에서 신자들에게 볼펜을 손에 쥐어 주다시피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권하는데 그중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미 얼마나 여러 번 중절을 경험했는지, 그 신자들 마음이 어떨지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참담했습니다. 오랫동안 쉬다가 미사에 간 날이었는데 그날 이후 다시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삶에 관심이 없는 종교에 저도 마음을 단았습니다. “

언제나 삶이 어지러워질 때면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은 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평화를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진행한 뒤로 성당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닙니다. 임신을 하지도, 출산을 하지도 않는 신부들이, 눈 앞에서 강론을 듣는 '자매'들에게 낙태가 얼마나 익숙한 경험인지 상상도 못하는 신부들이, 함부로 죄를 이야기하는 오만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매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작년인가 5월 한달내내 낙태죄 폐지 반대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한다고 계속 가톨릭 앱에 띄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정말 불쾌했고, 여성의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단지 낡은 종교 교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사제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 과연 사랑과 관계가 있는 일일까요? 어째서 남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모든 모순에 대해, 예수님은 기꺼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고 이제까지 소외되어 고통 받았던 여성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종교도 현재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관념에만 발 묶여있다면 천주교 또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도태될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해성사를 드렸습니다. 여성 신자들은 미사보를 써야 더 예쁘다는 신부님께, 여성 신자들은 대축일 미사 때 한복을 입고 오라는 신부님께, 부활계란은 여성 신자가 예쁜옷을 입고 팔아야 잘 팔린다는 '한국 남성'신부님께요. 성당 내 구조적인 성차별은 언제 나아지는 건가요?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헌신으로 이뤄진 천주교 공동체에서 대표로 나선 일부 신부님들의 목소리가 모두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나의 인생과 삶을 선택하는 것이 죄가 되어야 하나요?

살인하지 마라 하셨지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요. 네, 당연히 생명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줘야하지요. 그런데 뱃속의 세포는 그렇게 생각하는 척 하면서 왜 이웃린 임신한 여성은 생각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시나요. 예, 그 세포도 자라면 생명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 세포는 이미 생명으로 오랜시간을 자란 여성의 몸에 있습니다. 낙태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세요.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에게만 있고, 타인에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선택을 대신하지 마세요. 책임지지 않을 선택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페미니스트이고, 여성이고, 현대시민이며, 동성애자 인권운동가입니다.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제가 가톨릭이라는 사실에 의아해합니다.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주장해온 것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저도 방향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지만 여자는 신부가 될 수도 없고 중요한 제례에 미사포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랑하는 저의 동성애자 친구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욕당할 때, 페미니즘을 단순한 남녀갈등 조장이라고 생각할 때 많이 방향했습니다. 현대시민으로서 타인을 존중하고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과 교회의 인내와 순종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오랜 역사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틴어로만 할 수 있던 미사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하게 되고, 성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한때 식민 지배에 앞장섰던 교회가 이제는 식민지 사람들을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교회가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여성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현대사회의 흐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치를 지켜나가는 방법을 새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

"저는 서울에 사는 41세 신자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니 낙태는 살인이라며 낙태를 반대하지요. 심지어는 산모가 암 등 죽을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낙태 반대하며 태아 먼저 살리라고 할 정도지요.

그런 교회이니, 여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임신중단을 결정하는지는 전혀 생각도 안하시고 안중에도 없으시겠지요. 오히려 임신 중단하는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함부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남자들, 자기의 필요에 의해 여자에게 임신중단 강요하는 남자들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일언 반구도 없어요. 모든 혼외임신, 심지어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책임도 여자에게 묻는 게 지금 한국 천주교회니까요. 피눈물을 흘리며 임신 중단을 선택하는 여자들보다 임신중단을 살인이라며 여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한국 천주교회 성직자들과 수도자, 신자들이 더 반생명적이라는 생각합니다. 태아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살아있는 여자들의 생명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들 여자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시고 여자들의 생명과 선택권에 대해 존중하시는 태도를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임신할 일도, 출산할 일도 없는 신부님들이 모여 낙태죄 폐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은 어딘가 기괴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앞장서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집단 중 하나가 가톨릭이라는 사실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톨릭 내 문화가 여전히 지나치게 남성중심주의적이라고 비판받는 것과, 이 현상은 관련이 없을까요? 가톨릭의 지도자층이 전부 남성 사제라는 점과 이 현상은 무관할까요?"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주어진 것은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축복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이 사회를 더 낫게 바꿀 의무이지 그렇지 못한 여성을 앞장서서 벌하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톨릭을,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목소리를 냅

니다.“

신부님이 강론시간에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과 ‘낙태’가 죄라고 이야기 할 때 옆자리 라 파엘라 언니와 눈빛 교환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남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편이라고 믿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신부님이 강론하신 그것, 약자에 대한 혐오가 바로 죄예요.

저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 적이 없는데 왜 천주교 신자라는 이름 아래에 당연히 저희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신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여성이며, 또 자신의 의지를 가진 인간입니다. 낙태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여성이 생각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일입니다. 우린 이제 그렇게 멍청하지도, 가만히 듣고 있는 옛날의 여성이 아니에요. 세상은 변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당신 사람들의 자유를 막았나요?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억압하라 말씀하셨나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교회는 변화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정말 묻고 싶고, 아직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생명존중 원칙이 지켜질 때 '엄마'인 여성의 생명도 존중될 수 있기에, 낙태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고 그래서 낙태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죄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죄는 여성만이 지게 되는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한, 임신과 출산하는 인간의 생명과 권리는 왜 후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존중하는 거라면, 여성은 출산을 위한 존재로 전락하고 그것은 많은 상황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고 존중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무엇인가를 단죄할 때는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성과 여자 신자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못본 체 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까지 심어주며 적극적으로 여성혐오에 가담하는 교회가 무책임을 넘어 비열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보수적이고 남성위주의 교회, 여성혐오와 함께한 종교의 역사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점점 줄어드는 여성 신자의 수가 걱정된다면 교회 내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가 아닌 마땅히 생명이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지요. (그나저나 왜 생명은 낙태할 때만 갑자기 소중해지는 건가요. 정작 살아있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은 본체만체 하면서.)

온전히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선택은 나의 권리입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교도 저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당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 날조된 태아 낙태 사진을 보여주며 임신중절죄를 외치게 하는 불편한 현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평등하고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천주교 신자로서 낙태죄폐지에 찬성하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낙태죄는 남성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여성을 차별하라고 하신 적 없으시지만 교회 내에는 이런 여성차별이 존재합니다. 아이는 여자 혼자 잉태하지 않습니다. 낙태

죄는 그저 여성의 건강과 자유를 제한할 뿐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낙태를 막고 태어날 아이의 행복까지 생각한다면,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를 유지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힘들게 아이를 낳더라도 행복하게 키울수 있는 법과 제도를 주장해야하고,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를 주장해야합니다. 그저 생긴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발상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무용합니다.

저는 늘 천주교 신자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르침 받은 교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느님을 말했습니다. 저는 낙태는 살인이 아닌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선택이 될수있다는 것을 믿고 지지하며, 하느님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만큼이나 이미 살고있는 생명으로서의 여성의 행복을 중요시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천주교 100만명 서명 운동'을 한다며 추기경과 주교들이 주르르 서서 기념 사진 찍는 것을 보고 한국 천주교에 남아있던 티끌만한 애정마저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들은 알까요? 그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카메라를 향해 웃던 얼굴이, 그들이 강론 시간에 한 말들이 수많은 여성 신자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힌 것을. 누구보다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해왔던 제 주위 중년과 노년의 여성들이 그 사건 이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낙태 경험이 있거나 낙태한 가족을 두고 있거나 딸은 더 낳을 필요 없으니 어서 지우라는 강요를 받고 낙태의 문앞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더 약한 이들을 더욱 큰 사랑으로 품어주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나요? 한국의 남성 사제들은 애초에 여성을 신자로 간주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저 굶은 일을 알아서 해주는 순종적인 존재로만 볼 뿐. 천주교 사제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 아닌 것을 하느님께서서는 무척 안타까워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가 불화해야 할 상대가 어느 쪽인지, 칼날을 겨누어야 할 방향이 어느 쪽인지 자꾸자꾸 되묻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임신한 여성, 몸뚱이 하나. 교회는 이들에게 쉼터이자 등불이 되어주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들을 지켜주고 함께 맞서진 못 할망정 손가락질하는 치들 편에 서서 무서운 얼굴로 이들을 단죄하다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잠시 체류한다면 어떤 자들의 친구가 될 거 같나요? 저는 그가 한 여인의 몸 옆에 서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몸에 거주해야 하잖아요. 몸은 좋은 싫든 사람이 태어나 평생 겪어야만 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행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려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편에 설까? 묻는 밤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30년 동안 여성 천주교 신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천주교의 사회활동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피임을 금지 하면서 낙태(임신중단)을 단죄하는 교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태어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소중한 존중되어야 하는 생명임에 동의하며 이에 따라 임신중단 행위는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임신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여성들 또한 소중한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 입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고 치

유해 주려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 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라는 행위에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낙태죄’에 찬성 함으로써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단죄에 앞장 서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있다면 신은 여성들이 겪어온 외로운 시간들을 알고 계십니다.

종교가 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법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법이지 모든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임신중단을 선택한 자매를 사랑하실 겁니다, 하지만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 없게 막는 교회와 중단을 선택한 여성을 헐박하는 남성과 별주는 사회는 고개를 들고 주님을 뵈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누군가를 별주려고하는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자애로운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여성에게도 있습니다. 임신중절을 한 여성의 선택을 우리 천주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그리고 그 결정으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천주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하는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과 같은 행보가 오히려 가톨릭 정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자비를 알려주시고 또 주변에 그것들을 베풀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천주교의 행보를 보시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 성당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보듬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과연 여성신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었을까요? 한국 카톨릭에서는 모두의 입장을 공언하기 전에 우선 그것부터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존중에 대한 카톨릭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낙태죄는 한 태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을 살리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더이상 교회안에서, 나아가 세상속에서 여성을 지우지 마세요. 카톨릭이 수호해야할 소중한 생명에는 당연히 여성들의 삶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임신중절을 한 여성들을 죄인처럼 여깁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또한 자기 아래서 평등하길 바라는 분입니다.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자가, 무엇보다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 행동을 한다는 것에 반대 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낙인을 찍고 하느님을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당 매주 나가시는 저희 엄마도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 안하셨대요. 여성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신앙의 이름으로 부정의한 길을 가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낙태죄 폐지

교회는 여성 신자의 생명과 생활권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고통 받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여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구원으로 믿고 있다면 당신들 모두가 하느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통 받는 여성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나요?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받는 교회를 보고 언젠가 하느님께 따끔하게 혼날 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미사시간은 좋지만, 성차별적인 강론이 고통스러워 어느 순간부터 미사에 가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느님 더 평등하고 올바른 세상을 위해 낙태죄 폐지에 동참해주세요.

임신 공포를 한번도 느껴본 적 없고 느낄 일도 없는 남신부들은 여자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에 말 얹지 마세요.

여성 인권 특히 '낙태' 관련 천주교의 교리때문에 종교를 고민하는 여성 신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교회 차원의 고민을 요청합니다.

빅뱅이론도 받아들였고 잔다르크도 복권했고 마녀사냥 피해자에게도 사과했는데 시대에 맞지 않은 지나간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주님께서도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으라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페미니스트이자 신자로서 낙태죄에 찬성합니다

주님 올해에는 교회가 평화와 인류애라는 이념에 걸맞게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여 여성의 결정권을 침해할 권리가 있는 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낙태죄 폐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할머니는 낙태를 할 수 없어서 막내를 낳으셨고 몸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원하는 것입니까?

교회 내 여성 신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낙태죄를 폐지하라.

벧속의 태아뿐 아니라 모체도 소중한 신자입니다. 태아를 갖지 않은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안녕 역시 주님이 걱정하고

살펴주시지 않을까요?

여성은 진화합니다. 생각을 하고 삽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인권입니다.

교회랑 남자 성직자들은 아무런 피해자도 남기지 않는 낙태에 신경 그만 쓰고 자기들이 저지르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교회 내 아동성폭력에나 신경 쓰세요.

주교님, 신부님. 당신들께서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여성으로서 여성을 위해 낙태죄폐지 찬성합니다.

여자 몸은 여자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낙태죄 폐지되면 자매들이 신나서 뛰어가서 노래부르며 증절수술 받을 거라 착각하나본데.. 그건 신부님 판타지고요....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왜 지금의 종교는 아직도 여성에게만 낙인을 지우려고 하는지.. 답답하네요.

여성 신자로서 신부님이 왜 낙태에 왈가왈부하는지 그저 불쾌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신부님이 오히려 모르고 계신 게 아닌지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낙태에 대한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 낙태는 죄가 아니다.

하느님은 남성이 아니라면서 하느님 아버지라 부르고, 성차별을 반대한다 하면서도 여자 사제는커녕 여자 복사로 토론을 해야 하는 천주교회. 남성의, 남성에게 의한, 남성을 위한 종교라서 낙태죄를 그리 쉽게 입에 담는 걸까요? 내 몸에 대한 권리는 오롯이 내가 주체가 되어 행사해야 하는 것이지 종교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천주교의 낙태죄 폐지 반대 투표에 가담하지 않았습시다. 천주교 신자로서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설파하려고 법적으로 죄를 여성에게만 세상의 법으로 다스리는 법은 폐지 되어야 마땅합니다.

내 몸은 내 자유의지로 대할겁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행하는 태도는 결국 천주교를 도태시킬 겁니다.

페미니스트인 천주교 신자로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미래 천주교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변화가 필요할 때

미혼 남성인 신부님은 낙태에 대해 발언권이 없습니다.

제가 낙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기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살고있습니다. 가장 사랑 받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님이 응원해주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남성도 그 무게를 나누어 질 수 있도록 법은 마땅히 바뀌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반대할 권리는 없어요!

벧속에 있는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임신한 여성들의 삶을 책임집니까?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의 삶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산후우울증으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피임도 막고 낙태도 막으니까 그 집애가 다섯이예요.... 그런데도 애 낳았다고 칭찬만 하죠? 환멸이 나요. 모태신앙인이고요. 제 아버지는 성당 간부셔요. 근데 성범죄 저지른 사람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하시거든요. 환멸이 나요. 낙태를 반대할 거면 애를 낳아서 기쁘게 기를 환경을 만들었어야죠. 교회는 뭘했나요? 여자가 하는 낙태는 죄라 부르면서 남자가 하는 n반방일엔 아무 말도 않죠. 교회는 약한 이를 위해서 뭔가 하긴 하는데 그 약한 자에 여자는 없어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부르는 교회는 자연유산도 죄로 만들어버리죠. 여자에 게만 말예요. 교회는 무슨 양심으로 낙태죄를 말하나요?

염수정 추기경님, 여성들은 낙태죄 폐지로 "배려"해달라는게 아니라 "선택권"을 달라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여성을 언제까지나 배제한 채 사랑과 평화를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생명을 단순 비교하는 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이 현실과 유리된다면 그것은 컬트집단에 불과해집니다. 스스로가 어떤 정통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든간에 말이죠.

하느님은 세포가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종교가 도덕적 기준 제시에 있어 가장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또 도덕의 가장 두꺼운 바운더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는 자매님들을 죄인이라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주께서 만드신 사랑하는 딸들인데요.

살아있는 여성의 삶이 세포의 삶보다 중요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성이 사제가 될 수 없는 가톨릭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칩니다. 여성도 사람입니다. 선택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가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성을 향한 불평등과 폭력이나 침묵하지 마십시오.

목사 딸입니다. 교회 다니는 여성 분들이 누구보다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더 이상 낙태라는 것이 여성분들에게 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태죄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여자는 왜 신부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정혈을 흘린다는 이유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존재가 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왜 특정 성별만 머리카락을 가려야 하는지 의문을 품어본 적 없는 사람이 예, 당신이 남자가 신부님이 감히 여성의 삶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예, 계집들이 감히 신부님의 자격을 논하고 깔보고 싶습니다. 신 앞에서 우리는 동등한 피조물입니다.

모두의 교회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보다 이미 태어난 생명으로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을 수많은 여성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주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지키는 방안이 정말 낙태죄 뿐일까요?

낙태죄를 폐지하라.

지지합니다.

가톨릭 신자라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난 여자라고 태어났고 여자는 자신의 몸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낳은 후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자유로운 환경에서 사랑으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낙태죄가 폐지되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전하고 싶다면, 낙태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지지하세요.

천주교 신자로서, 자매님들과 여성 가족, 여성 친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으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과연 교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듣고 누구의 존재를 배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모두를 품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었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법으로 다스릴 일이니 교부는 참견하지마십시오. 가이사는 남자라 존중하고 여성은 그렇지 않는것인지요. 밥은 잘만 드시던데요.

아직 세포에 불과한 것보다, 이 땅 위에 살아 숨쉬며 온 몸으로 부당함을 받아내고 있는 우리 여성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연대해주세요.

저는 여성이고 페미니스트이고 동시에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는 저와 자매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낙태죄가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여성 신자들의 인권 또한 존중받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사제들이 어째서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일에 왈가왈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제들은 여성을 지배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계셔서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건지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여성의 권리입니다.

천주교는 크리스천 아니라 가톨릭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인 로마 교황청 및 한국천주교회에 실망감이 아주 커요. 반대 입장 나오고부터 묵주 반지 목걸이 다 빼고 무교 선언하고 정도로요. 사실 성직자 성별로 역할이 나뉘어 진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 반대 선언으로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듣고 있나 교황청?

여성의 인권 앞에 종교의 폐습을 없애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니?

천주교 신자의 낙태죄 폐지 선언이라니, 저만 이 생각을 하나 했는데 이런 행동이 시작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동참합니다.

신부님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제 입장은 제가 제입으로 말할테니, 신부님도 신부님 개인 입장만! 하느님 이용하지마세요.

세월이 흘러도 참 바뀌지 않는 곳이 카톨릭이라 생각합니다. 카톨릭의 역사는 차마 고개 들 수 없는 암담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카톨릭 내부에서 많은 일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묵살되는 일의 중심에는 늘 여성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그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는 당연히 되어야합니다. 이미 폐지되어야합니다.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 역사 속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려하지 마십시오.

남성신자입니다 / 뱃속에 깃든 생명은 존귀하나 모체의 자유의지와 생명(위험부담)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천주교 신자로 산 사람입니다. 태아가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모체는 생명이 아닌가요.. 모체에게 생명의 선택권을 주는 것은 생명 존중과 어긋나는 것인지 다시 교황님, 주교님들 그리고 신부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인권은 그 어떤 종교의 교리보다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현대의 종교라면 마땅히 지금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몸에 자유를

제 몸의 결정은 제가 하게 해주세요

여성의 생명도 소중하다. 남자들 정자도 생명인가..여성의 몸은 여성이 알아서 판단한다.

한국 천주교는 언제까지 진보인 척 하면서 여성에게는 보수적일 것인가요. 신부님들의 강론을 듣다가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아 보시고 임신할 일도 없으신 분이 뭘 잘 안다고 그런 말씀들 하실까 하고 화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임신중절의 권리는 결코 생명에 반하지 않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저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낙태를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가 아닌, 누구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자유로이 누리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입니다. 여성을 신자로 본다면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야죠.

교회나 성당 안의 여성신자들과 더 많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지지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낙태죄 폐지를 지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해주세요

"오롯이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천주교 재단 중학교부터 미션스쿨을 나와 천주교를 삶의 쉼터로 쓰는 신자입니다. 신앙에 있어 흔들림이 없지만, 성당 내 낙태 반대의 목소리에 앞장서는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교구를 보면 가끔 흔들리곤 합니다. 생명에 앞서, 누군가에게 출산이 곧 구직의 기회를 잃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한 여성의 생명을 흔들수도 있는 것이라 왜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렇기에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우리 두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종교에 따라, 신념에 따라 여성 에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임신을 중단 할지 유지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뱃속생명의 가치를 더 크게 둔다면 임신유지를 선택할 수 도 있고, 모체의 결정과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가치를 크게 둔다면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도 있어야합니다. 종교인이라고 모두 낙태를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임신을 유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입니다.

교회 신자이기 이전에 한 여성입니다. 여성 스스로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회 역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2천년 전 예수님은 당시 여성의 지위를 벗어나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한 여성을 지지하 셧습니다. 아직도 여성을 2등 시민 취급하는 가톨릭은 반성하고, 자궁이 없는 남자들이 여 성의 몸에 대해 결정하는 지금의 행태를 멈추십시오. 생명만 강조하고 여성의 신체를 애 를 낳는 도구로만 보는 시선을 거두십시오.

여성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 카톨릭 신자입니다. 구시대적이고 케케묵은 보수의 상징이자 젊은이들에게는 철저히 게 외면당하는 유럽 카톨릭 교회에 비해 한국의 카톨릭 교회는 그나마 진보적이고 약한 이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인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낙태죄 관련 한 주교님들의 행동을 보고 한국 카톨릭 교회의 그 이미지가 허명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 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 본당을 비롯한 많은 성당에서는 젊은 신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저같은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성당을 외면하게 되겠 지요. 또한 여성신도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으면 단 한주의 미사도 제대로 모시지 못할 교회가 왜 여성들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여성들의 삶을 억누르려 하지요? 그만두세요, 주 교님들, 신부님들.

나의 하느님은 모든 여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결정마저도 지지해주실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서부터 성당을 다녔고 성당에서 결혼한 실비아도 낙태죄 폐지를 말합니다.

저는 이제 막 60대에 들어선 오랜 천주교 신자입니다. 성당에서 오랜 기간 봉사자로 일하면서 낙태를 경험한 수많은 5-70대 여성을 만나왔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음에도,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음에도 20년, 길게는 50년 전의 낙태 경험으로 평생 죄책감을 갖고, 같은 '죄'로 끊임 없이 고해성사를 보는, 고통받는 여성들을 보며 이런 단 죄가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리고 왜 이 단죄는 여성들만을 향하는 것인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알려주려 오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 자매들을 단죄가 아닌 사랑으로 보듬을 때라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포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신자의 신체와 선택권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어 굳이 천주교를 택해 교리 끝에 세례를 받았는데 자꾸 회의를 듭니다..'소시지 만드는 전광훈'이라는 말이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모태신앙으로 온가족이 성당을 다니고 있는 페미니스트 신자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후퇴는 없어야 합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교회의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I was born and raised Catholic, but I have left the church, and I am no longer religious. Some of the many reasons are their harmful and irrational policies related to abortion and contraception.

낙태죄는 인간이 만든 터무니 없는 죄악입니다. 여자를 성녀로 만들어 틀 속에 가두려는 모순적 행위를 멈춰주세요.

우리는 모두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품 안,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페미니스트 가톨릭 신자로서 낙태죄 폐지에 함께 합니다.

여성 차별(사제서품,미사보등), 성소수자 차별, 교단 내 만연한 사제/교인에 의한 성범죄(그리고 은폐) 등 모두 각성하고 고쳐야합니다. 언제까지 약자들만 성당을 떠나야합니까?

저는 낙태한 천주교인 여성입니다. 제가 교회 내에서 계속 활동할 동안 그렇게 손가락질 하실 건가요? 당신들은 떳떳할 수 있나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무턱대고 낳는다면 사랑으로 성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남성신자와 신부님과 교황님은 전부 모르시겠죠

신부는 남자만 되고... 임신 가능한 여자만 낙태죄로 처벌받고.. 이거 그만해야지 않아요? 2020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 죄없는 자만 돌을 던지라 하셨는데...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뿐인 여성에게 돌 던지기 그만 해야지 않겠어요?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자를 별할수 없습니다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시려면 여자로 오셨어야 했어요. 여자의 몸은 그 자체로 소중한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막 만들어진 세포는 누구보다 소중하지만, 그로 인해 고통받고 원치 않는 책임을 지는 여성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보수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전통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자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서는 그 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실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유롭고 안전한 낙태를 위하여

낙태는 여성의 생명과 삶을 위한 것이며 여성의 자궁은 여성에게 속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여성 신자들의 필요와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예수님이 낙태하는 여인을 탕했을까

그래도 생명이라는 말은 여성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도 생명인걸요.

여성의 진정한 인권을 위하여...

낙태죄를 보지 마시고 사람을 봐주세요

필요에 의한 낙태가 죄 일 수 없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수정시점부터 태아가 생명이라는 교리의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낙태죄의 존재가 여성들에게 위협이 되고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교리라는 것이 인간, 특히 남성 중심적인 교회의 해석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남성 사제만 가능한 (차별적) 천주교 교리에 근거한 낙태죄 반대 주장을 여성신자인 저로서는 따를 수 없습니다. 신자와 시민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한다면, 저는 성차별적인 종교의 신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인 저의 문제이고 저의 권리니까요."

"진짜 짜증나는 게 당신들의 식사와 다른 일상적인 일은 다 수녀님들이나 여성의 손을 빌려서 하면서, 아이 한번 키워보지도 않았으면서 낙태가 죄라고 말하는 성직자들. 여자는 3등 국민인가? 내 몸의 결정권은 내게 있음."

진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정부가족계획 때문에, 혹은 어려운 현실이나 몸상태 때문에 낙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실한 신자인 그분들은 아무리 성당을 열심히 다녀도 죄인이 됩니다. 여성의 삶은 보호해야 할 생명에 포함이 안되나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현 시대에서 증거하며 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의 곁에 계실까요.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아이들과 함께하신 그 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여성의 삶을 '생명'이라는 '쉬운' 단어로 묵살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 얼마나 무책임한지요. 그리스도의 삶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십시오. 알량한 죄책감으로 여성 신자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밀어내지 마십시오. 2000년 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요. 남성이 전부인 사제들이 여성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은 하느님의 도구일뿐입니다. 당신들의 앓은 세계로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지금까지 낙태의 원인이 된 남성을 권면하고 처벌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서는 창녀와 세리의 친구이셨는데 교회는 낙태한 여성의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천주교인으로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생존권도 함께 생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남자에게만 사제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너무 구시대적이라 생각합니다. 낙태죄폐지에 더하여 카톨릭이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평등과 사랑에 합치하는 교리를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태아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의 생명이 덜 생각하는거냐고 묻는겁니다. 제발 무엇이 더 우선시되어야하는지 생각하고 공감해주십시오.

하느님, 다 아시죠?

"예수님도 평등을 원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평등을 외쳐야하는 것이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신부님

하느님은 나를 이해하실 겁니다..교회가 아니라..

멋진 답변을 할 솜씨는 못되지만, 원치 않았고 기를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낳은 아이는 여성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아이 스스로도 그 이후의 삶에서도 힘든 일이 많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낙태에 죄를 묻기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일에 더 힘을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당에서 아직도 낙태죄 운운하는거 듣고 있자면 갑갑해서 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곧 태어날 제 딸을 성당에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임신중단은 많은 이들의 맘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더 이상 배제의 종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미카엘라입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지만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악습과 법을 폐지해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소외받는 여성 신자와 동조하는 여성 신자들을 분열시키기만 했던 천주교의 책임감있는 대답을 기다립니다.

"생리통도 임신도 출산도 겪어보지 않은 신부가 낙태에 대한 천주교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부가 천주교를 대표한다는 것도 언짢습니다. 천주교를 굴러가게 하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거든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교회 내의 성차별은 많은 여성 신자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속의 잘못된 기준을 교회가 수동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몸에 대한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이며 '죄'가 아닙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며 성직자가 무엇이라고 다른 이를 단죄합니까?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성들이 자유로울 수 있게 하라. 차별하지 말라.

낙태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주보 1면에도 낙태죄 폐지 반대한다고 나오더군요. 폭력적입니다. 천주교신자라면 모두 낙태죄 찬성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 생존권 찬성의 다른 말입니다. 미혼모의 아이를 위해 기도 말고 실질적인 도움주세요. 살 수 있게요.

눈 앞에 있는 여성의 생명도 소중히 생각해주세요.

천주교회는 세속의 형법에 어필할 에너지가 있으면 양육시설이나 투자하는게 효율적일 것

신부님의 강론 중에 낙태법 폐지를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성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거기에 여성과 소수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주세요. 이건 여자들의 문제니까요. 아이를 낳은 여자는 수녀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만큼 아이를 낳는 것을 포용하는 공동체도 아니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종교 안에서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죄책감과 박탈감을 느껴왔을까요. 임신과 출산 만큼이나 자기 몸에 힘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실적인 고통이 있을거예요. 이것을 하느님께 의지하여 감내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임신중지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건 개인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종교적인 십자가 같은게 아닙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여자도 같은 사람이란걸 기억해주세요. 자신의 몸에 자신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저 같은 사람입니다.

여성 억압 교리를 폐지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냉담 3년째 신자. 낙태를 줄이는 길은 여성에 대한 정죄가 아닌 원치않은 임신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임신/출산과 먼 사람이 낙태에 대해서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보다 태아가 더 중요할 순 없습니다.

천주교는 더이상 종교의 이름으로 여성의 삶과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30년 전, 제 동갑내기 자매들이 그토록 낙태당할 때는 모른척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모른척 하세요. 말 엮지 마세요.

종교도 변화해야 할 때.

천주교가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하는것을 보고 신앙을 잃었습니다. 저같은 자매님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제라도 천주교 의견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면 나는 그 권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 출산을 거부하고 임신을 중단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들만이 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종교 속에서 남성중심시각의 낙태반대 주장은 여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폐지해야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25일 아기예수님께서 내려왔던 때를 만 백성이 축하를 할 만큼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에서 아기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런 존귀해야할, 축하받아야할 아이의 탄생 중 축복받을 수 없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단 것. 그렇기에 저는 낙태죄를 폐지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낙태죄를 개정정도면 되지 않을까? 폐지를 시켜야할까? 아이가 생겼다는 것도 하느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주께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을테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건 선택이 아닌건가? 라는 생각

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펼쳐갈 미래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선택을 항상 그분께서 응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낙태는 저의 선택사항 중 하나가 될 수 없는걸까? 생명이 소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숨만 붙어있다고 살지 않는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선택지를 빼앗는것이 생명을 빼앗긴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 가톨릭 교회가 죄없는 이들을 지켜줄 때입니다.

여자의 몸과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주세요.

주님도 마리아에게 낳을거냐고 천사 보내 물어봤는데 염치없이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성의 신체에 스스로 선택할수있고 그로인해 스스로 삶을 지킬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시대의 변화에 교회가 함께 걸음을 해주어 천주교인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바뀐 세상과 맞지않는 교리에 혼란을 많이느낍니다

모태신앙으로 성당 학생회활동도 하고 수능준비하는 고3때도 매주 성당갔고 대학생 때는 교리 교사도 했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살아왔지만 새로운 시대에도 천주교신자로 계속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약자와 아픈 자 편에 서시고, 동성애자도 용서하셨듯이 교회 뿐 아니라 사회에서 낙태를 죄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동하는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이기심, 탐욕에 주님을 이용하지마십시오

"죄없는 자가 돌로 쳐라."

땅이 척박하면 씨앗도 자라나기 힘들은 물론이요, 동물들도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새끼를 물어 죽이기도 하는 마당에 인간이 제 자식 키울 바탕이 안 됴도 그를 키워야함이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생명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결심한 여성을 질타하기 이전에 그 여성 또한 생명임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매들의 생존과 건강, 삶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스스로의 몸보다 태어날 생명에 존엄을 양보해야 하는 것일까요? '숭고한 생명'에 대한 책임과 죄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여성 개인에게만 묻는 것이 교회의 정의인가요?"

교회가 더 많은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의 임신도 주님의 뜻으로 받들기엔 제가 너무 인간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와 시대에 뒤떨어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합니다

여성 신자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낙태를 행한 이들을 탓하기보다는, 어쩔수없는 선택을 한 이들의 고통을 종교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이기심이 내린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자도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으로서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계속 하느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낙태죄로 여성 신자들을 밀어내지 마세요.

여성 스스로 몸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사랑은 이런 선택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God is a woman

내몸 내선택

모든 교회는 낙태죄 전면폐지를 지지하라
고대인도 중세인도 아닌 당신 양심 어디?

낙태죄가 갖는 의미랄지 의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도 생명의 소중함을 분명히 알고 있으나, 그렇다면 왜 그 생명보다 한 여성 개인의 생명과 인생이 더 대우를 못 받는 기분인 걸까요...

낙태죄 폐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매들을 위해서요

교회를 끊은 자매들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 2-30대 냉담자가 많은지 깨달을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당사자도 아닌데 된다 안된다 하는건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당신의 장기를 연결해서 대신 품어준다면 당신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어볼게요.

"예수, 미혼모가 될 뻔한 대리모 마리아, 그들을 사회로부터 보호해 준 양부 요셉. 교회는 이런 성가정을 닮아가야 합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페미니스트 신자로서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성에게만 책임을 가하는 낙태죄는 폐지되

어야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머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천주교인이고, 페미니스트이고, 여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저는 더이상 제가 아니게됩니다.

페미니스트 천주교인으로서 후원하는 여성단체는 낙태죄폐지운동을, 성당에서는 낙태죄폐지 반대운동을 하는 것을 오랜시간 지켜봤다. 양날의 칼같은 페미니즘과 신앙을 부여잡고 어떤 편에 서야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신부님은 여성비율이 2/3도 넘는 신자들 앞에서 낙태는 살인이라고 말했다. 우리를 낳고 기르고 키운 적지않은 여성들, 어머니들에게 당당히 죄를 씌울 수 있는 이 누구인가.

아무도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신도 출산도 선택이어야 합니다.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잉태와 출산은 분명 중요하고 귀한 일이 맞겠으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뺏을 명분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고귀함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생의 의지를 꺾는 변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가 친척 모두 신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수녀가 되고 싶기도 했고, 항상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평온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으로 성장해가며 그렇게 위안을 얻어가던 성경 말씀속에서 가부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혐오와 차별을 찾아내게 되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서 배려와 사랑을 강조하던 신부님의 강론 말씀에서,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느껴온 주보에서 낙태를 금기하는 주장을 마주할 때마다 조금씩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피임의 중요성을 외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애초에 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카톨릭 신자로서 비난받을 일을 하는 걸까요?

한때는 제게 절대적이었던 교리의 가르침에 더이상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피임이나 가족 계획도 금지하면서 낙태를 단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시대착오적인 수 많은 모순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누구보다 신신했던 저는 이제 냉담자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낙태는 애초에 다른 누군가가 단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천주교 신자이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무슨 선택을 내리든 용서하실 겁니다.

내 선택이고 나의 권리에요

신의 외양이 남자라고 여자인 내가 무시당할 수는 없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저는 저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낙태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단체의 힘은 막강합니다. 혼란이 들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모르겠을 때 천주교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낙태는 죄가 아님을 얘기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본인의 신체에 대해 온전히 본인이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에 대해 타인과 국가가 죄라고 부르며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종교는 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성 신자에게도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한 때, 생명 존중을 위해 종교가 낙태를 금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네요. 그 '생명'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줄 모르고, 낙태죄 폐지 성명서 문구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데, 태어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제 종교지만, 참.. 여성이 신부가 될 수 없는 종교가 낙태죄에 말을 엮다뇨.."

비여성이 여성의 삶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규정지으려고 하나요. 신부님, 하느님, 저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한번도 종교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진적이 없는데 낙태라는 주제만 나오면 할말이 사라집니다.

저는 여성 가톨릭 신자입니다. 한국 천주교는 낙태죄 폐지 서명에만 눈 멀어 가장 상위 개념인 하느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교구의 전달 방법이 잘못됐다는 소리겠죠. 한창 남아선호 때문에 여자아기들이 낙태 되던 8, 90년대에도 교회는 이런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었나요? 낙태를 죄라고 해서 낙태가 막아지던가요? 아님 여성들이 낙태죄를 폐지하니 우후죽순 너도 나도 낙태하자! 이럴 것 같으신가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남성위주인 교계가 낙태에 대해 말할 권한은 없습니다.

낙태는 신앙의 문제가 아닌 임신 당사자의 문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냉담중인데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좀 그만하면 다닐맛날듯요

태아도 생명임을 외치기 전에 이 세상에 여성으로 살고있는 생명부터 굶어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아주 오랜시절부터 여성억압을 해왔습니다. 교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교회는 여성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성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역시도 낙태법에 대하여 여성은 교회의 가르침에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낙태법 폐지 반대 서명을 하라는 교회의 물음에, 강요에 가톨릭 신자이자 여성인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여성의 낙태에 관하여 교회의 입장을 정하는 그 자리에 과연 자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여성의 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이라도 여성의 삶으로 살아본적이 있는 사람이 그 회의에서 목소리를 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천주교는 철저히 남성 사제 중심이니 알 턱이 없지요. 그 회의에 여성이 있을리가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교회의 여성의 입장을 온전하게 대변한다고 말합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있습니다. 이미 이 논점에서 벗어난 것조차 교회는 여성 신자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공감조차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낙태죄에서 여성들이 분노하는 점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교회는 그저 태아의 생명권만을 주장합니다. 네. 그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한 여성의 사회적 생명권은 보이지 않나봅니다.

교회는 본질을 흐리면서 원초적인 교회의 가르침만을 고수합니다. 네 교리를 배운 사람으로서 교회에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억압과 차별을 부수시겠다는 뜻이었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이들, 상처 받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의 집인 교회는 온갖 억압과 차별을 일삼고 문고리를 걸어 잠그며 신자들을 낭떠러지로 밀며 당신들만의 성역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리스도가 원한 진정한 사랑입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지마세요. 이미 상처받은 어린양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넣지 마세요. 보이시나요? 교회가 돌보아야할 어린양들이 교회에 상처입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좀 정신을 차리세요. 여성억압과 차별을 전통과 교리라는 이름아래에 자명하고 합리화하지마세요. 또한 하느님의 자비를 교회의 이름아래 가두지 마세요. 하느님의 능력을 교회가 감히 가두지마세요. 하느님은 교회가 생각하는 것 보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원천이며 하느님의 자비는 끝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하느님은 그런 분인데, 그분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단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를 용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무어라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를 단죄합니까? 하느님은 온전하고 끝없는 사랑이신데 왜 교회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를 교회 밖으로 밀어냅니까? 교회가 담장을 허물지 않는 한 벽이 높아 양들은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이까지 구원하시러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겠다는데 교회가 무어라고 나를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신 형제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일치를 보존하게 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낙태 또한 바라지 않습니다.

신부도 될 수 없는 여성들이 마음대로 낙태도 못하나요? 보이지 않는 세포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 신앙 아래 여성이 있습니다.

불행할 것이 자명한 생명을 만들어서 원죄와 불행함을 선물하는 것이 과연 그 생명을 위한 일 일까요?

생명에 무게를 우선시 둘 수는 없지만 낙태죄를 유지함으로써 잃게되는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장 받아야하나요? 여성 또한 태아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정말로 하느님/예수님/성모마리아님이 계시다면 그 누구보다 제가 안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왜 여성들은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까요.

원치 않았던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거나 학대를 당해 사망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선택할 여성은, 분명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안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원치 않았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교회가 중요시여기는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에 적합한 일인가요?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된 여성과, 태어난 후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할 아이를 위해서는 낙태죄 폐지가 꼭 필요합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교회가 낙태 문제에 있어 그렇게 계속 구시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최소한 남성의 책임과 처벌도 주장했어야 명분과 염치가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오직 여성의 순종과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여성으로서의 삶을 모르는 신부님이 낙태죄에 동의하거나 폐지에 대해 이야기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사회인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교회의 룰이 있지만 사회에는 사회의 룰이 있고 저희는 신자로서 그 가운데에 서있습니다. 2000년 사도전승의 교회 역사에 기록된 규칙을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모두 지키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규칙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적응해왔습니다. 생명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잘 알고 있으나 동시대의 여성들이 원치 않는 아이를 갖게 되어 겪는 아픔과 어려움에는 눈감아버리는 교회의 태도에는 늘 실망하게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 원치않는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우게 될 여

성들의 고통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실까요?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하기 전에 교회가 눈을 들어 지금 살아서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여성들을 바로 보았으면 합니다.

신부님들 여자가 할 도리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여자가 꾸미지 않는다고 강론에서 잔소리 할 권리는 신부님에게 없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신자로서 낙태죄 폐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자유는 오직 여성에게 있으며 이를 논할 권리를 가진 사람도 여성입니다. 여성의 삶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신부님들이 마이크를 들고 낙태죄 유지를 외치는 것은 또다른 폭력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생명을 그리도 소중히 여긴다면 이미 이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성들의 생명도 생각해주세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를 바라봐주세요.

목사님 저는 가부장 하나님을 믿는게 아니라 가부장을 철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고통 받는 이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천주 교회가 함께 외쳐주세요!

강제적으로 갖게 된 아이를 낳았을때 과연 그 아이와 산모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도 안되는 잣대를 들이대며 낙태한 사람은 사람취급도 안해주고 마녀사냥으로 사람 몰아가는 게 즐거우신가요? 그래서 낳으면 밤낮으로 함께 키워주실건가요?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실 건가요? 이걸 다 해준다고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가진 아이를 내가 낳고 싶지 않고 키우고싶지 않는데 왜 참견이신가요? 한 생명을 자의적으로 책임지고 싶어서 갖게 된 것이 아닌 타의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생긴 일로 인해 나부터가 죽겠고 벽차고 눈물이 나는데 그 후도 책임 져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걸 나의 결정입니다.

낮은 자들을 위해 임하는 천주교가 여성에게는 아직도 불모의 땅이라는 것은 믿기지 않네요. 죄 없는 자만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봅시다.

견진까지 받은 신자였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탈카톨릭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임신중단과 피임에 대한 교회가 여성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고루하고 단죄하는 태도를 바꿀 가망이 없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교리 해석을 내릴 권한을 임신중단과 누구보다도 관계 없는 삶을 사는 독신 남성 사제 집단이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임신중단에 대해 가장 발언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 당신들입니다.

남자신부가 뭘 안다고 죄를 갖다 붙여

낙태죄 폐지는 태아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를 더욱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 아래 태어난 이들이 모두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를 말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과 교회의 가르침, 주님 말씀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시고 진보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흠송하는 우리 카톨릭교회도 언제나 가장 진보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엄마가 저와 언니 사이에 두 명이 있었다고 그 둘을 위해 늘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길 듣고서야 지금과는 다른 그 시대를 피부로 와닿게 겪은 것 같아요. 친한 동생이 혼자 힘들게 의사를 찾아 낙태를 해야했던 경험도 제게 진하게 남아있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선택으로 지탱하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꺼져가던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는 느낌입니다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의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이요.

신앙인 전에 여성으로서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에 찬성하는 현 교회는 구시대의 낡은 악습만을 되뇌이며 깊게 생각하지 않는 티를 내고있다. 자랑인가.

저 마리스텔라는, 여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중요함의 순서를 다시 생각해주세요. 생명을 낙태하여 죄가 된다면, 원치 않게 태아를 품게 된 여성은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아닌가요? 그렇게 태어난 태아가 학대당한다하더라도, 가난으로 굶게 되어도, 행복하지 못해도 세상 밖으로만 나오면 되는 건가요? 온전히 행복하게 자라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혹여 임신으로 인해 어머니의 목숨이 위태롭다해도 어머니보다 태아가 더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인가요? 혹은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지요. 한 몸 희생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신다면, 태아를 포함한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 생각하신다면, 반대에 표를 던져주신 분들이 그 도리를 행해주셨으면 합니다. 평등하고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태아를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우리 엄마도 낙태를 했습니다 딸만 연달아 낳았다는 이유로. 여자는 여자라서 죽임을 당하고 여자라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합니다. 이건 누구나 사랑한다는 하느님의 말씀에 위배되는거 아닙니까?

과거에 머무르려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멈추고 여성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마땅하다

여성이 원하지 않은 임신은 주님 또한 원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인간이다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여성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낙태죄에 대해 반대하며 폐지를 주장합니다.

임신이나 낙태할 일 없는 신부님들이 왜 낙태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죄라고 하는지 늘 이해가 안 갔어요. 배 속에 잉태된 '생명'은 중요하면서 정작 그를 배에 품고 있는 여성의 생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낙태죄는 상대남성에겐 묻지 않고소 여성에게만 적용된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수산나.

교회는 지금까지 천천히, 그렇지만 계속해서 변화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과학과 종교는 양립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과학을 받아들여 과학자인 신부님도 있는 곳이 천주교입니다.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그 시대에 가장 어두운 곳과 낮은 곳을 보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관습에 얽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천천히, 그렇지만 계속해서 변화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과학과 종교는 양립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과학을 받아들여 과학자인 신부님도 있는 곳이 천주교입니다.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그 시대에 가장 어두운 곳과 낮은 곳을 보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관습에 얽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천천히, 그렇지만 계속해서 변화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과학과 종교는 양립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과학을 받아들여 과학자인 신부님도 있는 곳이 천주교입니다.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그 시대에 가장 어두운 곳과 낮은 곳을 보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관습에 얽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천천히, 그렇지만 계속해서 변화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과학과 종교는 양립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과학을 받아들여 과학자인 신부님도 있는 곳이 천주교입니다.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그 시대에 가장 어두운 곳과 낮은 곳을 보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관습에 얽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가 죄라면 그 죄는 왜 여성만 져야 합니까? 아이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들었는데 왜 처벌은 여성만 받아야 합니까? 왜 여성에게만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건가요? 임신 시킨 남자를 처벌하자고 천주교가 한번이라도 나선 적이 있나요? 자꾸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하라고 강론시간에 신자들 종용하지 마세요. 저처럼 반대하는 천주교 신자도 있

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배아를 체내에서 제거 하였을때(아직 인간으로 볼 수 없어 배아라고 부릅니다.) 여성이 받게 될 처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임신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고,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지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있는 신앙이 어디있는가

낙태죄 폐지에 동의합니다.

모든 여성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모태신앙이고, 제 생활 양식 중 하나지만 머리가 커지면서 보수적인 문화에 의아한 적이 왕왕 생겨났습니다. 천주교 신자면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기회와 분위기가 마련돼 감사합니다.. 제 작은 의견도 보태고 싶습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합니다.

낙태죄는 폐지해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마리아처럼 원치 않은 임신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데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 속에 들어왔다고 다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성도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한 인간으로써 내 몸을 지킬 의무 중 하나이다.

내 몸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은 죄가 아닙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이미 태어난 여성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가! 카톨릭이 이런 보수성을 고수한다면 젊은 여성 신자를 잃을 것!

낙태죄로 죄의식을 심지 말아주세요. 여성이 몸을 긍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 천주교신자이고 여자입니다. 낙태죄 폐지 여부를 논하는데 왜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당이 여성 신자들에게 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인 동시에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그런 생명존중을 여자에게도 주장할 권리를 부여해주세요

카톨릭은 더욱더 뒤쳐지기 전에 낙태죄 폐지에 아무 말 없지 말라.

"성당의 질서는 하느님이 아니라 남자들이 만들어온거니까 여자의 몸에 대해 뭔가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좀 그만주세요. 그리고 수녀님이랑 성당 여자신도들한테 가사일 같은 거 그만 시키고요"

모든 이를 위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 여성신자도 포함되어야함은 당연하구요. 의미 없는 희생을 강요하지마세요.

임신 중절은 여성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나는 천주교 신자다 라고 말할수 있게 좀 해주세요.

낙태죄 폐지에 대찬성입니다. 종교는 시대의 흐름에 자꾸 백스텝 밟지 마세요.

오직 여성에게만 죄의식을 씌우려는 현재의 천주교 성명에 분노합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디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불변하여 교회에서 지켜나가야 할 가치는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아니함입니다. 또한 죄라 지칭함은 우리 신자들이 정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다다를 하느님께서 판가름하실 내용입니다. 사회적 규율을 제정하는 데 있어 우리도 모를 하느님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제나 시대에 발맞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카톨릭계였습니다. 낙태에 대한 입장도 이제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 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모든 권리가 모두에게 평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 지키는 권리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천주교가 바뀔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회와 밀접한 종교계인만큼 뒤쳐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반대는 오늘날 복잡다단한 시대에 역행합니다. 바깥을 잘 모르겠으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가 천주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도 본인 딸자식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바라지 않으실까요

모든 생명이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의 생명 역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성은 어머니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회법적으로 여성을 단죄하고,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죄인의 프레임으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진정한 생명 존중의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낙태죄는 폐지하되,

생명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길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리도 바뀌어야 한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교회의 오랜 성차별의 역사에서 한발짝 진보하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자는 신부님이 될 수 없고, 마음대로 아이도 지울 수 없는 곳. 아이들의 간식은 자 모회 어머니의 몫이고 대부분의 사무직 임원은 남성인 곳. 천주교의 여성차별적인 모습들을 깨달은 뒤로부터는 그 어떤 말씀도 모순적이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모태신앙이었던 천주교를 떠난 지 어느덧 4년이네요. 변화의 조짐은 커녕, 바꾸려던 의지조차 보이지 않던 그곳으로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낙태죄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성이 더이상 사회적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죄책감으로 소중한 스스로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아가 여성일때는 서슴없이 낙태하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었으면서, 지금은 또 불법이 되고, 이 관념은 시대에 따라 나중에 또 바뀌게 되겠지요. 이미 태어난 사람부터 존중해주시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천주교 더이상 역사의 뒤편길에 남겨진 종교가 되고싶지않으면 제발 여성인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 좀 해보시죠. 여성사제는 불가하다, 낙태는 살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로는 도태뿐입니다.

여성 다섯이 모여 앉았는데 그 중 넷이 낙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넷 중 둘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태아생명권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인내를 설파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고통에 대해 집중해 주세요.

여성의 행복추구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못하다고 하지 말고 남성의 행복추구권에 무참히 짓밟히는 여성행복과 사회적으로 행복해질 가능성이 낮은 태아행복을 함께 봐주세요. 남성은 왜 빠지나요? 성모님께 요셉이 있었듯, 천사가 보살폈듯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의 생명권을 지켜주세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죄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을 바라봐주시시오. 원치 않는 아이로 지상에 태어나 괴롭게 살아가는 생명을 봐주시시오. 관습에 얽매이지 말아주시시오.

임신의 결정권은 자궁을 가진 여자이지 자궁도 없는 신부가 결정할수없는 것

이제는 교회에서 여성의 선택을 지지해주시고, 권리를 지켜야합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여겨지길 바라며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천주교는 여신도의 편에서 여신도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신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갱생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여신도를 형법 앞으로 끌고가려 하는 것은 교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낙태는 죄가 아니라 본인의 삶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사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가 없다

예수님은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저는 냉담자이나, 성당일에 헌신하시는 어머니는 두번의 낙태 경험이 있으십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가톨릭의 종교적 교리를 시민사회의 개개인의 도덕관을 넘어서 법으로 만들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신자 개개인이 교리로서 지킬지 선택해야하는 거지, 법적으로 규정하려드는 건 신정일치고 정치개입입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면 이럴 정치적 영향력을 비혼모 복지와 국내입양캠페인에 더 쓰십시오. 이미 태어난 생명들부터 소중히 여기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평화’란 무엇을 지켰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지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서명한 교우들이 어째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신중단수술을 받은 신자들을 위한 치유미사까지 갔다와봤어요. 죄책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제가 진짜 이상한건가 싶어서요. 신부님과의 면담때에도 제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말했죠. 세포딩어리에 불과한 수정란이 나 자신보다 중요한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 수정란을 계속 품어서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행복할까? 나는 행복할까? 대체 무엇을 위해 나는 임신중단을 하면 안되는 것이고 임신중단한 여성들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가? 신부님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그냥 교회법이 그러하다는 말씀밖에 내놓질 못하더군요. 사제들 또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채 그냥 교회법이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임신의 주체가 되는 여성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무조건 죄책감과 공포를 심어주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성을 배려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여성인 마리아님에게서 태어나셨고 주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성은 원수보다도 못한, 애냥는 기계일 뿐인가

여성 개인의 몸을 존중하십시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2000년 전으로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2000년을 보고 전진합시다. 지금의 천주교는

pro-life가 아니라 pro-birth 입니다. pro-birth는 기만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약하고 소외받는 이의 곁에서 그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1세기를 살아오셨다면 오랜 기간 식민지화된 여성의 신체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셨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낙태에 있어 당사자가 아닌 신부님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목소리를 덮는 게 아니라 듣고,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겠지요.

저는 모태신앙,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의 신체자율권을 지지합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를 이야기하는 신부님들, 그 외의 분들에게 묻고싶네요 왜 여성들만 그 고통과 처벌을 받아야하는지요 혼자 임신하는게 아니라고들 하면서 왜 혼자 고통과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여태까지 여성만 처벌했던 것 처럼 남성만 처벌해야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건가요

여성 신자들의 노동 착취로 굴러가는 교회를 부끄러워 하지도 않으면서 감히 예수의 이름을 들어 여성의 자유를 겁박하지 말라.

여성들의 고통을 타자화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낙태죄에 찬성하는 천주교인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낙태죄를 찬성하는 건 종교의 오만이고 이기심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다면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여성의 선택입니다.

내 몸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의 큰 흐름 속 언제나 바뀌는 새로운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성인권이 그러합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을 박탈하며 지키는 신념은 이젠 더는 가치 있을 수 없습니다.

성당을 다니면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어린양이고, 땅 위의 생명들은 형제와 자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자매들이 원치 않는 임신, 준비되지 않은 세포번식으로 경제적 심리적 물리적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달라고까지도 안하겠습니까. 자매들이 자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내버려주세요.

결혼도 한 적 없는 신부들이 당장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신자의 삶보다 아직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도 없는 세포를 걱정하는 모습이 우습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처럼,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여성의 생명과 선택권도 존중해 주십시오. 하느님은 자신의 딸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부님들은 조용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이름으로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지 마세요.

신앙인으로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왜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제 말에 멈칫하며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해 본적이 없다고 하셨죠. 저는 그 순진함에 말문이 막혔답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성도 아닌 남성이, 심지어 결혼이나 아이를 길러본 적도 없는 남성이 낙태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과는 먼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천주교 신자이자 언제나 원치 않는 임신을 당할 수 여성으로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시대에 따라 종교대통합한다고 스님 잘만 만나놓고 낙태에 대한 시대흐름은 왜 못따라가시나요? 다른 신을 모시는 사람은 잘만 인정하면서 왜 이걸 인정을 못하시냐구요 ^♡^

종교가 더 이상 과학이나 윤리에 개입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기까지 그 사람의 선택과 생명 역시 소중합니다. 있을 수도 있었던 미래를 포기했다고 해서 살아가는 현재에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비혼, 비출산 천주교 신자로서 점점 종교와의 원치않는 괴리감이 느껴지곤 하여 냉담자가 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내 몸은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자유의지에 따라 나의 것 입니다. 하느님도 화 나면 당신이 창조한 자녀 막 죽이시면서 우린 왜 안돼?? 우린 생사가 걸린 일인데????? 성령으로 잉태하면 그걸 인정.....

천주교 신자로서의 나, 여성으로서의 나, 페미니스트로서의 나. 모두 나 자신입니다. 서로간의 모순에 고민하고 내가 또 다른 나를 끊임없이 검열하는 날들이 멈췄으면 합니다. 저희에게도 평화를 빌어주세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누구를 위해 낙태죄를 만든건가?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 보호권입니다.

평등한 세상을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나의 삶을 돌보고, 나의 삶을 지지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있고 싶습니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이고, 생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입니다.

결국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성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사항은 바꿀 수 있는 종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낙태가 싫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른 여성의 낙태를 막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왜 낙태한 여성은 빼세요.

저는 우리 자매들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받을 권리를 지지합니다.

낙태죄 유지를 지지하는 보수적이고 구시대적인 교회와 성당이 저를 신앙에서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보다 이미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는 세상을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 신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마리아님도 이해해주실 거예요 말이 동정너지... 안 그렇습니까

"종교계의 의견이 인권보다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종교도 시대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도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

불평등한 사회 관습과 제도로 여성들이 억압받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채 종교적 생명윤리만을 앞세우는 것은 차별과 폭력이 됩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불합리함을 겪는 여성들을 포용하는 대신 죄책감과 아픔을 짊어지우는 것이 교회의 일인가요? 바리사이처럼 율법과 규칙에만 몰두하여 진정 행해야 할 사랑을 외면한 것은 아닌가요? 태어나지 못한 생명 이전에, 삶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은 신자들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성을 배제하는 종교는 더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낙태죄폐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임신 및 출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여성들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님들! 하느님을 섬기는 자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여성의 선택을 가로막는 주장을 하지 마세요 모든 신자들이 신부님들처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신자도 아닌 세포덩어리에 감정이입하다니 신자인 입장으로선 굉장한 배신감이 드네요

자꾸 이런 식이면 아무도 안 믿을 걸

저는 천주교 신자인 여성으로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기 이전에 나의 건강을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100만명에서 저도 빼주세요! 낳을 일 없는 분은 조용히 해 주시구요!

성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벌하시도록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 엘리사벳

낙태죄를 옹호하는 건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 만큼이나 옹졸하다.

몇 년 전에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 받을 때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유독 서명을 많이 하시던데 정작 젊은 사람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일이 거의 없는 연령대의 서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을 일이 없는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의견이 어째서 여성 신자의 의견보다 중요시 되는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성 신자로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틸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낙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교회법상 이미 낙태는 죄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느님 안에서 죄라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법상으로 그 사람을 한 번 더 낙인찍는 것이 교회의 선함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그 사람들도 모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쳐낸 그들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걸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또한 가장 아파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십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죄는 완전한 폐지만이 답입니다

아직 심장조차 뛰지 않는 세포보다 당장에 살아 숨쉬는 여성, 또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하고 임신권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달려 있다.

"한 때, 생명 존중을 위해 종교가 낙태를 금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네요. 그 '생명'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줄 모르고.

낙태죄 폐지 성명서 문구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데, 태어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제 종교지만, 참.. 여성이 신부가 될 수 없는 종교가 낙태죄에 말을 엮다뇨.."

여성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교회 내 여성차별에 좀 더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에 동의합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다. 태아만큼 산모도 중요합니다.

생명의 윤리관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신앙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저 도태될 뿐입니다. 신앙은 사람과 함께해야 하지 않습니까.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을 신앙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사소해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떳떳하게 신앙 앞에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의 소굴인 모든 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거짓이 아니라 예수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줘라"

여자 몸은 여자 겁니다.

임신 중단의 결정은 여성 고유의 권한입니다.

제 몸의 세포보다 인격적인 제 몸이 우선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건 남성과 여성 둘의 몫인데 어째서 낙태죄는 오롯이 여성 혼자 짊어져야 하나요?시대는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페미니스트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원하지 않습니다.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원했든 원치않았든 낙태를 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낙태죄로 인해 더 무

거운 마음의 십자가를 평생 견뎌야 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내려주어야하지 않을까요?

낙태죄 폐지 동의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현대에 맞게 적용해야하며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시 할 수 없다

나의 몸을 내가 건강하게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느님의 뜻에 반하겠습니까. 저는 저의 몸을 지킬 줄 아는 청년으로서 또 카톨릭 신자로서 하느님을 믿는 만큼 제 몸을 아끼고 또 지키고 싶습니다.

"낙태죄 폐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성당에 갈 때마다 적게는 40대, 많게는 70대까지 활동하시는 레지오단원 자매님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저 좋아서 봉사하시는 거라기엔 너무 고되고, 힘들다고만 하기에는 당신 역할에 뿌듯해하시는 분들.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그분들이 젊은 여성신자 축에 속하는 저에게도 이것저것 활동을 권유하실 때가 많고 그것에 거부감이 밀려올 때면 '여성신자가 가진 신앙심의 크기는 성당에 대한 충성도로 척도를 삼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낙태죄 이슈도 이와 어느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느종교이든 왜 여성신자들에게는 남성신자들보다 더 큰 충성을 요구하고, 어쩌서 천주교는 크리스천이 아닌 여성들에게조차 성모님 같은 모습을 요구하는 것인지. 나는 천주교를 사랑해서 신자가 되었는데, 재작년 즈음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받으며 죄인이라 낙인 찍던 성당과 신부님은 임신할 수 있고 낙태할 수도 있는 여성신자는 사랑하지도 않고 편들어줄 생각도 없구나. 천주교의 요구에 충실히 복종하지 않는 여성신자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어릴 때부터 '베로니카'라는 세례명을 갖고 싶어 성인이 되어서 애정과 끈기를 가지고 견진성사까지 받는 데에 성공했지만 낙태죄 폐지 이슈 이후로는 판공성사 시기 외에는 성당에 잘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유념하되, 부디 오늘날 여성의 인권과 연계하여 생각해 주세요. 교리와 신조만을 강요하여 여성 신앙인들에게 불법적인 잣대를 내밀지 마세요."

태어날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미 현재를 살고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될 태아는 존중하면서 이미 사람으로 존재하는 여성은 존중하지 않는 한국 천주교회 교리에 반대합니다.

하느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용서해주신대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회사원 신자입니다. 하느님도 여성들이 행복하고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실 거예요.

여성의 몸에 대한 법은 여성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을때 계획적으로 아기를 가지고 싶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종교 안에서 늘 안전과 행복을 느낄 수 있으려면 낙태죄 폐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신앙 이전에 인간으로서 필요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다.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몸이라면 왜 임신하지도 않을 남자들의 말에 휘둘리게 하는가? 하느님이랑 기도로 얘기했는데 낙태 지지 하신다고 했음 〇〇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아직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아이가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처럼, 나 또한 같은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성의 스스로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천주교가 앞서서 지지해주세요

낙태죄 폐지

낙태는 살인이 아닙니다.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서 사제가 성모의 임신과 출산을 소설 속 이야기처럼 강론하는 걸 들으면서 저 남자는 뭘 안다고 저렇게 자신있게 떠들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네요. 5-60대 여성신자를 앞에 앉혀두고요.

낙태죄를 비롯한 천주교의 모든 성차별적인 "그들만의" 전통과 활동들을 반대합니다.

당연한부분이라 할말이없네요.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신앙인으로 생명존중을 이야기 하려면 바로 앞에 살아있는 임신 주체, 여성의 생명을 더 우선시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남성 신앙인들아아제발주제파악을하자신부들아.

여성 신자들이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지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여성이 자기 삶을 결정하기 위해 낙태가 필요합니다. 이는 죄가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낙태죄였어요. 10주 된 태아의 발 모양을 뺏기로 만들고, 낙태된 태아들을 위한 묘를 만들어서 낙태죄 폐지 반대운동을 하고 태어나지

못하고 사라진 생명을 기억하고 기도하자고 말하는 교회에서 원하지 않는 낙태,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고통받거나 사라진 여성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나요. 태어났지만 버려진 생명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있죠? 그 전에 교회 내에서 성교육은 하고있나요? 더럽혀진, 생명을 죽인 여자들이라고 낙인찍고 비난하기 전에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적 욕망,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이유는 충분히 설명하나요. 교회 내 청소년과 청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는 한가요?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가정 내에서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는 성가정을 지키라고 하면서 침묵하고, 여성들의 노동과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 안에서 성모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악의 짓이라고 말하며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결국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여성들에게 여전히 순종하고 침묵하고 희생하라는 교회를 보면서, 사회에 남성들의 카르텔이 더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일조해온 교회의 힘과 그들의 연대를 보면서 여성으로서 지구상에서 설 자리가 있는가, 내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힘들고 사제가 될 수 없고 여성의 목소리를 전할 수 없으며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없는 교회에서, 하느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 말이 와닿지 않는 교회에 여성들이 과연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성당에 다닌지 얼마 안됐지만 이건 아닙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여성신자입장에선 노할 노자인데요

내 딸의 인생도 소중하다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권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누가 담당할 수 있는 건가요?

현실과 유리된 신앙은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my body not god's choice

혼인강좌를 들었을때 얼마나 충격받았었는지.. 정말 최악이었고 나가버리고싶었을 때 범죄 아동범죄가 들끓는 요즘 콘돔쓰지말고 피임하지말라니 누가 대신 낳고 대신 안전하게 키워줄거냐고 묻고싶은 여자는 애낳는 주머니가 아님 사람임 태어나지도않은 세포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임 하느님은 다 사랑하신다는데 여자는 안사랑하시나봄

시대 흐름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테두리 안에 있는 여성의 존재를 무시하는 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낙태죄는 여성을 통제하려는 수단일뿐이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섰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페미니스트 천주교 신자로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임신의 위험과 책임을 지지 않는 남자 신부님들이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성명을 내거나 강론으로 여성을 압박해서는 안됩니다. 이 이슈에 참여하지 마세요. 가톨릭도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직접 낳아서 키워주실것도 아니고, 여아감별낙태 정말 많던 시절에는 조용히 입다물고 계시던 분들이 뭐 잘났다고 큰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낙태죄니 꼬박꼬박 성당가시는 분이신데 낙태해보셨대요. 그땐 왜 가만히들 계셨어요?

저는 크리스천 신자이기 이전에 여성입니다. 내가 나의 몸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쓰여진 구절에만 매달리다 하느님의 뜻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진정 낙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낙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낙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 원인을 차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님에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질 내에 사정하는 행위를 금지하십시오. 이것이 낙태의 원인이자 시작입니다.

더 큰 의미의 생명 존중을 위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교내 비리나 쟁기고 세속법에 관여하지 마세요

페미니스트 천주교 신자로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꽃동네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해놓고 거짓으로 낙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거짓 증언이 아닌가요?

여성 신자이자 페미니스트로서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의 의견은 이해하지만 태어나지도 않은 배아보다 여성의 건강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이 원하는 임신을 하지 않았을수도 있고 선택권은 종교와 정부를 떠나 개인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에서 여성의 역할과 인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해야할 문제입니다.

남성중심 교회 속 여성 신자로서,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교회에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변화의 때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보다 이미 태어난 아이가 더 소중합니다.

신앙과 선교의 형태는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원치 않은 임신을 무책임한 쾌락의 산물이라 이를 겁니까? 실존하는 여성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낙태는 여성이 자신을 몸에 대해 결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수단이지 무기가 아닙니다.

시대는 변하기 마련이고 여성은 오롯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이 순간에도 원치않은 임신으로 고통받는 어린 양들을 위해 내려다보고 계시는 중이시라 믿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경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녀인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니 이해해주실 거라 믿어요

낙태죄 폐지를 원치 않는다면 여성들은 생각하지 않는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예전을 그저 답습할 뿐인 관습인건지, 진정 신앙인지 생각해주세요. 성당에 성차별주의적 관습 없애주세요. 여자만 미사보 쓰고 수녀님은 신부님보다 교육이나 위치나 열악하지는 않은지, 신부님은 왜 남자여야만 하는지

여성 신자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들으세요 여성 또한 사람입니다 미래에 태어나야할 생명도 소중하다는 의견은 알겠지만 임신과 출산 그것은 결정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임신중절 낙태 또한 결정입니다. 낳을 수 있고 낳지 않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성 신자로서, 더 옳은 길은 선택하려합니다.

빛 보지 못한 어린 생명이 안타깝다 하셨던 전 본당 신부님! 이미 빛 본 여성 생명도 안타까워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 천주교 신자입니다. 생명 보호를 외치시면서, ""경제적 취약/비위생적 낙태/원치 않는 임신""으로 잃어버릴 여성의 삶은 왜 알지 못하나요?

천주교 신자로서, 세례를 같이 받은/견진을 받은 친구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어렵게 일궈 낸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여성이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 낙태에 대해서 타인이 특히 남성(신부님) 들이 이렇다 저렇다를 논하는게 이상하다.

종교는 약한 자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배운 내용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도 약자를 위해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의 입장을 지지해주세요.

의도치 않은 아이가 생겨 키울 능력도 없는 부모 밑에서 세상에서 환영도 받지 못하는 그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요? 남성이 책임회피하는 행동을 하며 책임을 못진다면 모든것을 감당해야하는 것은 여성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도 경제적으로든 모든 것이 힘이드며, 낙태죄를 폐지 하지않으면 여성한테만 모든 책임을 지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라 낙태한 여성 곁에 설 것이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신자도 사람입니다 자기결정권이있어요!

미사 드리러 간 본당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용지를 본 날부터 교회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제 몸만 아니라 제 인생을 잘 꾸려나가며 저 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사실 아직 까지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여성은 아이를 잉태하고 낳아 기르며 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낙태를 한다고 해서 모성애가 없는 사람도 아니구요. 본 적 없는 태아를 지키기보다 나 자신의 몸을 지키는 권리를 다시 되찾고 싶어요. 종교적 신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건 그저 이단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여성은 신부가 될 수 없지요 왜 될 수 없나요? 신부가 될 수 있는 남성 신부님들은 어떤 권리로 여성의 몸에 왈가왈부 하시는지요?

생명 주일 강론 시간에 낙태(임신 중지 혹은 중단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고통스러워하는 태아의 영상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후유증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낙태를 한 여성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치고 싶었습니다. 모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의 생명과 자기 결정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은 생명 주일에 낙태를 한 여성은 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고기라고 불려지는 동물들의 살점을 씹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낙태를 경험해본 여성이, 낙태를 경험한 가족이 있는 사람이, 한 곳 차이로 임신을 면한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아니, 아셨어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천주교에서 절대로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없다는 것을 수많은 시간동안 느꼈습니다.

낙태는 신의 결정권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어도 찬성했을 거예요

성당에서 100만명 서명 받는다고 성당 문앞에 여성 교인들 세워놓은거 봤을때 솔직히 화가 났어요. 예수님은 여자를 미워하시나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아닌가요? 그만큼 인간이 죄를 짓고 행복해지길 바라신 것 아닌가요? 여성이 인간답게 살아남기 위해, 아직 발생 단계의 세포를 없애야한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분명 그런 상황에 놓인 여인의 아픔까지 꼭 끌어안아 주실거라고 믿으며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작은 세포가 자라나서 생명으로 세상에 나올 가능성을 믿고 그 생명의 편을 들어줄 어떤 강력한 도덕적 가치의 수호자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의 수호자 역할을 가톨릭 교회라는 종교가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가 아닌 속세 영역의 법치적 의미의 '낙태죄'를 성문화하고, 규정화하고, 실제 징역을 살도록 종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억지이자 노쇠한 아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세의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신체에 억지로 약을 먹어서라도, 칼을 대서라도 세포를 떼구어내어야만 한다고 마음을 먹은 여인들의 아픔을 감싸안아주지는 못할 망정, 이미 살아숨쉬는 생명 그 자체인 여인에게 계속 돌을 던져야겠다고 말하는 종교라면 더이상 젊은 세대의 영혼을 위로하는 안식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동의합니다.

낙태죄 폐지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여성은 임신·출산의 도구가 아니며, 여성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과 자유가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로서 교회와 제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낙태죄에 대한 엇갈리는 입장을 알게 되었던 때입니다. 살면서 낙태죄 폐지 논의가 있기 한참 전부터 낙태죄는 무조건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해왔고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다른 의견을 가져본 적 없습니다. 이는 평생 몸 담가온 종교의 교리와 다르더라도 변함이 없는 생각입니다. 인간다운 여성의 삶을 위해서라면요.

여성의 신체를 여성이 아닌 사람들이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종교는 사람의 생명권을 빼앗을 권력이 되지 못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모태신앙 크리스천이자 페미니스트 신자입니다.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임신중지는 여성의 권리이며, 이것에 대해 결혼도, 임신도 하지 않을 남성이 알가알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니, 여성 인권을 지키고 싶어하고 평등을 바라는 저 같은 사람 또한 사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직자이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교회도 사회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일개 종교가 남의 몸에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 아니므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아이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 신도님들의 고생을 당연하다는 듯 여겼던 신부님들을 꽤 봤는데. 왜 그러시는지 전혀 이해 안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만 이런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했구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곳에 집중하세요. 타인의 신체에 대해 억압하는 쪽으로 교회 전체 의견을 내지 마세요. 자행되어져 왔던 남녀아 구분 낙태에는 침묵하다 지금와서 낙태에 죄를 씌우는건 무슨 생각입니까?

낙태 금지는 아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여성을 위하지는 않습니다. 천주교도 이제는 여성을 고려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이미 태어나 살아 있는 여성들의 손을 놓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여성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존재인 것을 늘 느끼고 삽니다. 이 기분을 남성 신자들은 느끼며 살까요?

낙태죄는 몸의 남용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그럼에도 낙태를 선택 한겁니다. 선택지를 주세요.

교리는 그 시대에 적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합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무척 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녔고 현재는 냉담중입니다. 왜 오랜 신앙생활을 하던 여성들이 성당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모든 이는 평등하다. 하지만 세간, 종교적 규정 안에서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관점은 몹시 강압적이다. 세포상태인 태아를 생명이라 여기면서 이미 갖추어진 생명이자 잉태 주체인

여성의 인격과 결정할 자유의지는 묵인하고 죄인이라 낙인 찍는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이에게 올바른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내 몸을 돌볼 권리, 스스로의 몸에 대한 선택을 할 권리도 주셨을 것입니다. 낙태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낙태는 나의 선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제 인생입니다.

임신 중지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 있습니다.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면, 중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은 현대적으로 잘도 해석해서 적용하면서 왜그러세요 카톨릭에서 이혼을 금기시한다고 이 사회에 법적인 이혼죄 같은 게 있다면 찬성하실 건가요? 이혼죄 입법 천주교 백만서명 이런 거 하실 건가요?

저는 아주 어릴때 아무 생각 없이 가족을 따라 성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의식이라는 게 생길 무렵 교리, 성당의 시스템, 그곳의 분위기 등 온갖 의문에 휩싸여 발길을 끊었습니다. 종교에 여자의 자리가 있는가? 글썄요. 매번 그런 의문을 품으며 종교가 여자 인생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 갈수록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크리스천의 시작은 이런것이 아니었겠지만, 특정 성별 인종 그야말로 기득권의 입맛대로 쓰여진 성경에 저같은 여자들은 설 자리가 없었고 여자들의 믿음과 노동력을 이용해먹는 그 집단이 너무 미웠습니다. 이번에도 낙태죄와 관련해 남성들의 목소리를 주로 내었죠. 여전히 양심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등을 돌린 수많은 여성신자들에게 품으로 돌아오라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집단에 다시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그 말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을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에는 여성이라고 소수자라고 제외하라는 그 말 또한 없습니다.

주님, 임신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는 남성들에게 여성 인권에 관련한 목소리를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서로 다른 성별이 서로에게 건네는 목소리는 구원과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천주교 모태 신앙인 여성 신자로서, 자라나는 내내 가톨릭 내부의 여성혐오에 의문을 표하곤 했습니다. 구시대적인 현 천주교 문화는 낙태죄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외면하는거라고 생각하고, 이는 주님의 뜻과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천주교는 아일랜드에서도 미혼모 시설을 만들어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외려 학대한 역사가 있고, 신부에 의해 성폭행당한 수녀에게 낙태를 종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종교로서 어떠한

선택을 내리게 된 여성을 포용하고 돕는 것이 역할이지 타인을 단죄하는 것이 할일이 아닙니다.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에 찬성합니다. 종교에 의해 혼란스러웠던 날들, 이제는 제 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성위주의 천주교가 왜 낙태에 대해서 말하나요. 신부님 제 몸은 하느님것이 아닌 제 것입니다. 윤리 이런거 없어도 되는 제 선택권이라고요.

여성 신앙인의 존재와 의지와 목소리를 들으시오

낙태에 관한 의사 결정권은 주체인 여성에게 있지 교회에는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해야됩니다, 여성의 몸을 왜 남성이 마음대로 불법화하는거죠,,

천주교는 종교라는 허울 안에 대단히 성차별적인 관습을 전파한다. 교리 내용은 물론이며 현재 까지도 교황,신부 등의 주도적 역할은 남성만 할 수 있다.낙태죄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 또한 놀랍지 않게 차별적이며 여성의 책임으로만 본다.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생존권이 앞서야한다.

태아를 보호하기 이전에 불완전한 인간의 삶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문제 아닐까요

태아가 생명이기 이전에 여성이 먼저 생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포가 아닌 이미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여성의 삶과 생명을 먼저 존중해주세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미 태어난 여성의 생명이 태어나지않은 태아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겪어본 적도 없는 신부님들이 낙태죄에 반대할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신부님 모든 천주교인들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선택이 왜 죄악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믿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남성은 '지도자' 여성은 조력자 역할만 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아이도 나아보지 않고, 육아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지도자'분들이 낙태죄를 지지하는 부분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신자로서 모체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천주교를 모태 신앙으로, 온 가족이 천주교 신자인 환경에서 자라 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나 불안할 때면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순간이 오면 전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낙태를 금지한다는 천주교의 입장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강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한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강제한다면 천주교가 어떻게 모든 이의 평안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낙태죄에 반대합니다. - 카타리나"

적어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종교는 나의 편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판단할 일입니다

신자로서 활발히 활동하지 않았으나 어릴 적 유아세례를 받고 매일을 기도로 마치는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어렸던 신자는 커서 여성 페미니스트 신자가 되었습니다. 낙태는 나쁜 것으로 배웠고 죄라고 배웠기에 당연히 낙태한 자들은 나쁘다, 최악이다 라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난도질 했으나 이제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정이란 것이 있고 낙태란 선택을 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만 죄값이 씌워진다는 것ですよ. 신께, 그리고 많은 신부, 신자분들께 묻고 싶네요. 신의 은총을 받고 태어난 우리가 왜 여자만 죄값을 받는지요.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시는지요. 외로이 싸우고 숨는 사람들은 누가 기도를 해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낙태죄 폐지 부탁드립니다. 아멘.

낙태죄에 가장 관계가 없는 집단 중 하나가 신부님들 아닐까요. 저는 천주교 신자이고 여성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내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신부님도, 하느님도 아닌 당사자가 결정하며 그것이 결국 신의 뜻이라 믿습니다.

"청소년 미사에서 신부님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하고 집에 가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성이자 신부인 사람이 하는 말이라기엔 임신중절과 거리가 가장 멀기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주교는 여자보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여성 신자는 신부님도 못 되고, 성체봉사직도 할 수 없고, 성당에서도 설거지하고 밥을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성경말씀과는 달리 현재의 천주교는 아직도 가부장적이며, 남성중심적입니다. 장애인, 해고노동자, 이민자들을 보살피는 천주교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하는 일이라곤 낙태죄 폐지 반대뿐이라니 얼마나 여성혐오적입니까.

임신중절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임신 중절은 여성을 살리는 일이고, 여성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라는 종교 집단에서 반대하고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는 인권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순대도 먹고 투블럭도 한다면 피임도 하고 낙태도 하게 하소서. 약자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데

에만 교리가 쓰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낙태가 죄라면 왜 그 아이를 갖게 된 상대 남자는 그 죄를 묻지 않죠. 왜 여성만이 감수해야 하는 일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원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평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성만을 처벌하는 낙태죄를 찬성하는 교회, 정말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가 지금 이 시대에 온다면 과연 자신의 교리를 따른다는 명목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신부들의 결일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위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여성들의 결일지 스스로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정의와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원치않는 임신은 온 가족에게 불행할 뿐입니다"

신부님, 신부님은 임신도 못 하시잖아요.

여성 신체의 건강과 삶에 대한 권리는 모두 여성 개인에게 있습니다. 절대적 타인이 그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종교란 때로는 변화된 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는것이 결국은 미래의 아이들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자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천주교는 여성을 존중하라!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내 몸에 대한 내 선택은 자유로워야합니다

종교는 신념을 위한 것이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에 따라 갈리는 권력을 철폐하기 위해 모두가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하지만 이미 살아가고 있는 여성도 이웃이요, 그들의 의견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하실까요? 묻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태아보다 여성의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 성당, 교회가 여성보다 태아를 더 중요하게 여길 거라면 나는 천주교를 떠날 것이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 자체도 사람 몸에 부담가는 일인데... 산 사람을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모든 여성을 위하여

생명은 소중합니다. 특히 지금 살아 숨쉬는 여성의 생명은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콩알만한 것이 어찌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단말입니까

주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로운 의지로 내 몸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자 함이 어찌서 죄가 될 수 있나요

낙태죄 폐지 지지합니다!

중학생 때 견진성사까지 완료한 20대 젠더퀴어 천주교 신자입니다. 3년 전쯤, 성당 미사 도중 보편지향기도 시간에 신자들과 신부님이 함께 낙태를 반대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성들이 태아를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크게 충격받아 여태까지 냉담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소중한 존재라면, 이미 태어난 사람은 더 귀중하면 귀중했지 왜 안 중하겠습니까? 하느님께 받은 몸이면 하느님과 본인 사이의 일이지 어떻게 남이 감놔라 배놔라 참견할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낙태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천주교 공동체 신자분들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해내보겠다는, 자신의 몸을 지켜보겠다는 사람들을 막지 말아주세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대착오적인 이야기 그만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좀...

성경으로 사람을 둘 죽이게 된다고 해도 낙태가 죄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이라고 해도 죽은 사람을 깨우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별선택적 낙태는 가능했는데 자신의 존엄을 위해서는 왜 불가능한가요?

천주교 신자로서의 나, 여성으로서의 나, 페미니스트로서의 나. 모두 나 자신입니다. 서로간의 모순에 고민하고 내가 또 다른 나를 끊임없이 검열하는 날들이 멈췄으면 합니다. 저희에게도 평화를 빌어주세요.

하느님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 여자도 포함 된다면, 그 본인이 행복이 중요하다고 판단 했을 때 하느님도 그 판단을 인정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포를, 만일 태어난다고 해도 행복하게 해주질 못할 아이를 여자 본인이 아닌 사람들의 판단하여 강제로 낳게 해 그 모두가 불행해 진다면 그것이 진짜 하느님이 원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한국의 임신한 여성에 대한 제도가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신한 여성에 대한 올바른 제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남자한테 발언권 줬죠?

낙태죄를 지지하는 천주교의 의견을 철회하기 전까지 계속 냉담할 계획입니다.

남자, 특히 결혼도 안 한 남성이 여성의 낙태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본인 몸도 마음대로 못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옛날부터 성차별있던 종교가 무슨 태아생명부터 중시하는지..? 태아 이전에 여성존중이 먼저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자면서요. 일단 당신 주위에 있을지 모르는, 실존하는 여성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애도 배지 못하는 남성 신부들의 탁상공론 말고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정말 낙태가 죄라면, 감히 같은 죄인이면서 말로 돌을 던지는 신부들보단 죄를 범해도 상처입고 괴로워하는 여성을 보듬어줄겁니다

요 근래 낙태죄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한사람으로서의 삶을 먼저 바라봐주십시오. 모든 여성이 성모마리아처럼 되길 강요하지 마십시오. 성서를 편한대로 좁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사제들은 남성으로서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가장 낮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위하는 척 그만하세요. 살아있는 여성의 행복과 권리는 왜 모르는 척 하시나요.

신앙을 근거로 삶을 억압하지 마세요.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 속에 살아가야합니다.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임부가 살아가기 좋도록 만들어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목소리 내는 그 방향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러시던 그 방향입니까?

"니가 니가니가뵈데~"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비혼모를 돌보는 교회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존중하겠다고 낙태한 여성을 국가의 법으로 단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예수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국가의 법과 신앙의 영역을 분리했습니다. 신앙인으로 모든 생명을 돌보는 것과 국가의 법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된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낙태에 관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낙태된 영혼을 위해 기

도하고, 낙태한 여성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뿐입니다.

낙태가 죄라면 여짓껏 남자아이를 낳기위해 원하지 않은 임신을하고 낙태를 한 사람, 강간으로 인해 생긴 아이를 낙태한 사람 등 이 사람들도 모두 죄인이라는 건가요??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없다면 “이 형님이 좋은경험시켜준다~”하며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사회 생활로 접대다 뭐다 하며 성을 사고팔기도 하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사회입니다. 또 피임하지 않는것을 강요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생긴, 태어나게 되면 낳는 여성도 아이도 행복하지 않은 미래가 보이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여성이 져라? 그건 아니죠. 수요나 만족은 남성이 하지만 리스크는 여자가 져라? 만일 신부님이 일반적인 현대 사회의 여성이라면, 낙태죄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니 애초에 나와 반대가 되는 사람들입장에서 그들이 어찌 생각할지 생각해야하는 이유조차 모르신다면, 어찌 사람들의 고민들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며 인도 하시겠습니까?? 낙태죄 또한 본인기준에서만 생각하는 보수적인 남성들로 인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종교를 선택하는데에 자유가 있듯이, 내 몸은 내가 결정할 자유가 있기에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동의합니다

여자도 행복해야할 본분을 가진 하나의 생명입니다.

나 스스로를 위한 선택,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로사-

이미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을 사랑합니다.

낙태 경험이 있는 저는 진정한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없나요?

모태신앙 신자입니다. 내 몸이고 내 선택입니다. 내 몸에 대한 선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성 신자로서, 현대 시대에 맞춰 재해석이 가능한 여러 성경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인 엄마 헬레나가 임신 중단 했음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죄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임신 중단은 살인이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어렸을 때 신부님 옆에 서있는 성당 오빠들을 보면서 저도 복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미사를 참석해도 기도문을 다 외워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미사때 제 주일 학교 여자 선생님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임신을 했고(낙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랬다는 이유로...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페미니스트입니다. 남성인 신부님들이 감히 여성의 몸에 대해 말할 권한을 하느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삶과 권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낙태죄를 하느님께서

허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낙태에 교회는 왈가왈부하지마라 자격없다

한국의 카톨릭은 언제나 민중의 편에서 불의와 싸우며 민중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불합리하고 시대역행적인 법의 폐지에 동참해주시시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종교를 들먹이며 억압하지 말았으면... 태아의 생명권 어찌구 하기 전에 여성 모두의 생명권과 인권이 중요함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죄라는 형태로 억압하지 마세요

종교가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종교일까요?

더 이상 여성들이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여성이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고통을 행복이라 포장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낙태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여성의 선택일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임신중절도 그 중 한 선택지입니다. 여성의 몸을 처절하게 망가뜨리는 것이 임신과 출산인데, 왜 해 보지도 않았으며 해 보지도 못할 남성분들이 여성의 낙태에 대해 거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몸입니다. 남성분들, 만약 거꾸로 생각해서 내 몸, 내 삶이 내 뱃속에 있는 존재때문에 한순간에 전부 망가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뱃속의 존재 때문에 정작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의 존엄이 침해당하고, 그들이 받는 차별은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그리고 이 사회는 돈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임신중절을 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미혼모가 됩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할까요?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는데 3억 이상이 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에서 뭘 믿고 그냥 낳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닌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나름 사랑받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저도 집안이 그리 풍족하지 않아 항상 자격지심과 결핍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평생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가야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 무책임하게 던져진다면 그 이후에 찾아올 고통과 결핍은 얼마나 더 클 지, 이를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온 생명은 불행입니다. 이 불행은 결국 대물림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개탄스러운 따름입니다.

하느님을 내세워 여성을 탄압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이 신부님들에게는 없습니다.

여성 신자들의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교회에서 왜 그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나요? 수많은 여성 신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낙태를 당할 뻔 했고, 또 한편으론 낙태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제의 영광만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성 신자들과도 함께하십니다. 사제님들주교님들, 추기경님. 여성 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요. 그들은 직접 태아를 품었고 낙태했고 출산한 이들입니다. 당사자의 말을 들어주세요.

나의 몸은 나의것.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온전한 나만의 권리!

낙태와 전혀 관련 없으신 신부님들이 낙태를 죄라고 규정짓는 것이 하나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유구한 여성 혐오 및 멸시를 반성해야 합니다.

폐지해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발전이 없으면 그 보수성과 낡음으로 사라지고 도태되어갑니다 여성은
천주교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지탱합니다 천주교는 여성의 사랑과 지지에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교의 영원한 짝인 여성의 주권과 안전을 위해서 천주교는 스스로 바뀌
어야합니다

낙태죄는 여성에게 가혹합니다

이 세상에 낙태를 하고싶어서 하는 여성이 있을까요? 이미 아기를 지운다는 생각에 고민에 고
민을 거쳐 충분히 고통받고 슬퍼할 여성에게 낙태죄라니요. 모든 낙태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아이를 직접 키울 그 부모 외엔 아무도 그 이유가 맞다, 아니다 결정할 자격이 없습
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여성 성소수자 크리스천으로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성경도 이제는 시대 반영을 해야한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주교인이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배웠고,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낙태가 죄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므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낙태가 책임지지 않는 행위라
고는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한 명의 천주교 신자이자 여성으로서, 그리고 천주교 여성 신
자로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를 바랍니다. 신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며 사랑받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다른 분들이 맞는 말 좋 은말 많이 해주셨네요 여성에게 임신이, 출산이 정말 축복인가요 그
축복을 왜 남성에게만 주지 않으셨나요? 낙태죄폐지. 임신가능한 여성에게 선택권이 주어지
는건 당연합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

일단 신부님들은 입 좀 다물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존중을 이야기하며 낙태죄를 묻는 분들은 여성의 생명은 존중하지 않는 걸까요.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덜 배워서 이십대 초반에만 낙태를 다섯번 했습니다. 무식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내가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에 매일이 죄책감과 함께였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손가락 한마디도 되지 않는 배아에게 감정몰입하게 한 교육의 문제라는 것어요. 낙태를 하며 하나씩 배웠습니다. 피임은 어떻게 하는것이 올바른고, 피임은 여자만 챙기는 것이 아니며, 설사 잘못된 피임으로 임신을 해도 그것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고, 낙태를 해서 죄책감이 생겨도 그 죄책감은 성별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어요. 저를 낙태하게한 반대성별들은 저를 욕보이며 평평거리고 죄책감 하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를 본건 자궁을 갖고있는 여성인 저임에도요. 낙태죄폐지를 반대할것이라면 적어도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성을 별하려 할 것이 아니라 상대성별도 동일한 처벌을 하자 논해야 할 일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것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여성만을 상대로 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신부님들이 본인들을 되돌아봤을때 인권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살아 오셨는지 본인이 걸은 길을 되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 한번도 여성신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당은 여성공짜노동 없애고 여성혐오발언 하지 말아라

"수녀와 신부에게 동등한 권리와 지위와 명예를. 처녀잉태같은 강간서사 팔아먹지마라."

기독교 교회처럼 굴지 마세요 쪽팔려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해요.

"우선은 낙태할일 없게 최대한 조심해야죠 그렇다고 법으로 벌을 받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미혼모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죄인 될 리 없는 신부님들이 낙태죄 어찌고 하면 다 비웃어요 ㅋㅋ"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는 언제나 여성의 희생, 여성의 순종, 여성의 봉사, 여성의 죄책감을 먹고 자라납니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휘둘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천주교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해 한 신자의 세상이 무너진다면, 그것도 하느님의 뜻이라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과연 사랑인가요? 그게 정말 종교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여자가 낙태했다고 정죄하는 건 사랑이 아니지요? 왜 사랑 안하세요? 왜 판단하지 말했는데 판단하세요?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낙태죄에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도자들이 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한 기분이 듭니다.

나의 신께서는 그리하라 말씀하신 적 없다.

약자를 배제하는 종교가 옳은 종교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귀하면 비건하세요 사람만 중요하다는 소리 하지 마시구요 낙태가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며 위로 하지도 마세요 7일 간 하나님이 공들여 만든 세상에 남성 권력과 여성 순종이 있었는지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모태신앙인인 저에게는 개종이나 탈종을 하게 만드는 요인들 중 일부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 하느님도 아무말 안하신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심은, 하느님을 고대에 새겨진 돌이나 금속으로 여기지 말고 늘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 시대에 맞는 형상으로 되살리라 하신 뜻입니다.

교리를 중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저 고여있기만 하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가톨릭은 가장 이성적이고 현대적인, 무엇보다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잖아요. 그 모든 이의 범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나요?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모태신앙이 천주교인 페미니스트입니다. 초등학교때는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낙태가 당연히 나쁘다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원치않는 임신과 출산이 태어날 아이에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제 후손이 살아갈 나라는 "낙태는 죄다"라는 말을 주입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임신과 출산일지라도 말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을 박해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은 여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와 종교는 더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태죄"에 반대합니다.

교회는 여성의 고통에 귀 기울이길.

신부님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신자로서 부끄러워요

이론적으로는 배아도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이더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종교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생명이라고 살해하는 건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더욱 힘들게 하시나요.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도 감히 하지 못할 말을 내뱉으려 하나요. 이웃을 사랑하라던 말은 어디갔나요?

모태신앙으로 천주교 신자이며, 혼인성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중지가 죄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내 몸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여성 신자가 불행에 빠지는 건 하느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믿는 하느님은 적어도 그런 분입니다.

살아있는 여성보다 그깟 세포 덩어리가 중하답니다. 멋대로 생명의 정의를 내려 진정 존재하는 여성의 고통을 지워내려 들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성당에서 듣는 강론들은 모두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느꼈고 또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낙태는 ‘죄’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들어왔던 강론이 모순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교회의 말과는 달리 현재 교회는 여성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낙태’ 일종의 죄이며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것은 매우 숭고한 일이라는 합리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원치 않아 그 일에 닥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성은 선택적으로 그 일에서부터 자유로워서는 안 될까요? 여성은 인생을 위해 낙태하면 안되는 건가요?

예수님도 미혼모의 자식이었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삶을 무너뜨리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자인 나와 자매들의 존엄함을 위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크리스천이자, 페미니스트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기존 남성중심적인 교리와 성경의 서사는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같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한 성별에 치우쳐있던 그것을 말이죠."

"저는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로 최근 몇년간 미사를 드릴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예수님, 정말로 낮은 사람을 위하신다면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태어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예수님도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아무도 본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을 걸 아시고 남성으로 태어나신 게 아닌지. 신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성차별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결해야할 고난이라 생각하시고 남성을 기본형으로 이 세상에 나오신건지 저는 알수가 없네요. 하느님을 믿기는 하지만 성차별에 대해 자각할수록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낮은 사람들을 위한 종교라면 낙태를 죄로 단정짓는 법에 대해 폐지를 지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임신한 여성중에 누가 좋다고 낙태를 하고 싶어할까요?? 낙태가 무슨 대소변보듯 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 몸을 해칠수 밖에 없는 낙태를 선택한 것은 그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정해주지는 못할망정 죄인으로 낙인짓자는데 찬성하는것은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느님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타인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원치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뱃속의 태아는 사랑은 커녕 욕먹고 손가락질 받기 일쑤입니다. 이들도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치않은 임신을 한 여성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야합니다. 출산을 한다면 그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앞으로 살아가며 주변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과 태아를 위해서 낙태한다면, 그 또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한 여성의 삶도 태아 못지 않게 소중한 삶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진정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성과 아이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낙태를 죄라고 부르며 처벌을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가톨릭 재단인 대학이라서 1학년 땐 교양필수로 신부님이 강의하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낙태는 죄라는 교리를 듣고도 시험에서 '둘 중 어느 것도 죄라고 볼 수 없다'는 제 답변은 역시나 D학점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네 엄마 세대까지, 아니 우리세대 중에서도 죄인 아닌 신자들이 있을까요? 그런 적이 있다면 제명하실 건가요?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여자들의 희생은 위대하고 숭고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낙태를 죄라고 정의하고 주입시키지 마세요. 겪어본 적도 없고 겪을 일도 없는 일에 왜 왈가왈부합니까. 당장 교리고 죄고 간에 본인의 평생이 달린 일입니다. 원치않게 출산한 여성의 인생을 책임져 줄건가요? 낙태죄를 운운하는 건 오히려 오랜 시간 여성의 지위 상승을 억눌러가며 자기들끼리 나눠먹던, 그토록 찬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제대로 헤아릴 줄 모르는 자들의 위선일 뿐입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죄 안되는 이유가 대체뭐여?? 아직도 모르겠어요.....여성 인권을 생각해 주세요.. 여성이 있어야 엄마가 있는 겁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하라는 어르신 눈길을 피하며 성전에 들어서면 마음이 너무 혼란합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제가 낙태를 한다면 저를 사랑하실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인가요?

저는 개신교 여성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소중함 만큼이나 이땅에 이미 태어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여성들의 남은 삶에 대한 존귀함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성이신 신부님들이 여성 천주교인의 몸에 대한 사용권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생

명이 소중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최종적으로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주체에 대한 관심과 선택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인 천주교인이 당사자 몸의 주체가 되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인 것인데, 남성 위주의 천주교 교리 성립으로 인하여 꺾어졌던 맹목적인 금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입니다.

임신중절(낙태)은 더 이상, 아니 원래 죄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성의 삶과 선택을 죄라는 이름으로 압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신부님들이 살아오신 세상에선 낙태죄는 아주 무거운 죄이고 최악 이실테죠. 하지만 아셔야할께, 천주교는 옛날부터 남성중심사회였고 그건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낙태와 관련해서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의 질타 및 내 몸 아픈것) 내가 지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왈가왈부 할 일인가요. 특히, 남성분들은 아무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 아플텐데 그거 대신 아파주시나요? 아픈거 서러운거 신부님들이 대신 아파주시나요? 포궁도 없으신데? 그리고 애를 낳으면 책임 안 져 주시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낙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논의하지도 않고 낳지말라! 라고 하시면 어찌라는건가요. 책임 질려고 낙태 하는거 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부님들

리나입니다.종교는 약자와 함께해야합니다. 약자인 여성이 아이를 볼모로 자신의 인생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종교가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여성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나 잘 합시다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지 마세요~ 한 인간의 인생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저는 천주교신자이지만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성도 하나의 목숨이고 그 속에서 자라는 것은 여성의 몸 일부입니다. 여성을 하나의 생명으로

로 봐주세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에 부디 마음을 실어주세요.

"왜 천주교에 냉담자가 늘어나는지 생각을 좀 하자. 낙태죄 폐지를 찬성할 수 없다면 침묵이라도 해라. 낙태를 누가 하고싶고 기꺼워서 하는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라. 당신들이 그토록 낙태를 막고싶다면 교회 내의 남자들이나 제대로 단속하고 당신들이 막은 낙태로 태어난 아이들을 책임져라. 초등학생들에게 자위를 죄라고 말하는 집단에게 무슨 말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적이고 소통하는 척 하지말아라 명동성당 성가대 성희롱 사건을 기억 하는지? 고발자는 퇴출되고 가해자만 남은 그 사건을 나는 죽도록 입에 올릴 것이다. 내가 알고지내는 모든 천주교 성직자들만이라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귀에 쳐박아줄 것이다.

또한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성차별이 횡행하는 것을 아시는지? 젊은 여성 신자에게 결혼해서 성가정을 꾸리라고 강요하는 통에 떠나는 이들이 많은 것을 아시는지? 그놈의 성가정. 당시 성차별이 만연하던 유대인 족속들의 법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께서는 진작 돌에 맞아 죽었어야하는데 이를 요셉이라는, 현대 한국에서도 놀랍도록 대인배인 인물이 약혼녀의 증언과 자신이 꾸 꿈을 믿고 결혼한 상황을 성경에서 읽었다며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진정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로부터 202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연인이 혼전임신했다고 한다면 버리고 떠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기의 씨가 확실해도 법이 약해 나몰라라 하면 양육비 지불이 강제되지 않는다. 그런 현실에서 여성이 생존을 위해 낙태를 택한다면 이 역겨운 남성들은 여성을 낙태죄로 고발한다. 천주교 교회 당신들은 이 역겨운 남성들의 편인 것이다. 나는 평생 천주교 신자로 산 것을, 당신들의 부조리를 눈감은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고통에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은 도덕도 윤리도 숭고함도 될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힘껏 찬성합니다.

저 또한 한때는 태아가 무고하고 귀중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임신이라는 과정은 생각보다 여성에게 복잡하고 더더욱 책임을 요하는 과정임을 알고, 또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낙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책임하다며 손가락질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어찌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지 않을까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누군가의 삶과 신체에 기대어 태어납니다. 생명을 나을지 말지 결정할 권리를 타인이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교리는 교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흐름 안에 존재할때 유의미합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생명을 아직 싹이 트기 전에 하느님께로 돌려 보내도 될까요.. 쉽게 여겨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대체 여성이 임신하고 낳고 살아가는거에 알지도 못하는 남자 신부님들이 왜케 고상한 척 우월하게 낙태는 죄입니다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수녀님들도 진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늘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 잘못이라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인큐베이터인가? 애낳고 기르고 일하는 노예인가? 정말 화남...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취한 죄로 이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알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느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따랐다는 이유로 평생 노동의 고통을 감내하라 하셨습니다.

역사는 그 시대에서 힘을 갖고 있던 논리에 의해 기록됩니다. 따라서 그 해석은 시대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남성만이 가정과 국가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며, 여성이 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따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며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여성은 주체적인 선택권을 얻지 못하며 오롯이 홀로 그 책임을 감내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주일 헌금을 낸 후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척 하며 율법의 준수만을 강조했던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현실을 외면한 표면적 해석을 하느님의 뜻이라 포장하지 말아주세요. 낙태죄의 폐지가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대진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주세요.“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겪어본 적도 없고 임신이 불가한 남성 사제들이 천주교의 이름을 걸고 낙태죄를 지지하는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멸시당하던 여성도 귀히 여기시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자유를,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는 제 몸과 제 건강, 제 삶을 온전히 지키며 하느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가 제 몸에 일어나는 일들을 범죄화하고 죄악시하고, 제 건강과 삶을 지키는 선택지를 삭제하려 드는 것을 거부합니다. 전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하느님의 딸 레아입니다.

교회가 현대에 맞추어 변화한다며 교인으로서 더욱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은 누군가에겐 축복이겠지만 많은 여성들에게는 고통일 뿐입니다.

일년 전이었나? 성당 입구에서 낙태죄폐지 반대 서명을 하고 있던군요. 허허 웃으면서 서명을 하시는 나이드신 분들 뒤로 젊은 여성 신도들 얼굴일 살포트 굳은게 기억이 나네요. 낙태를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거품을 무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게 살아있는 여성의 삶은 아무 것도 아닌지요. 천주교는 사실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 이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말할 기회가 생겨 적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신자이고 좀 더 나은 여성의 인권을위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내 권리를 왜 다른사람이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갈길은 멍니다. 낙태죄 폐지도 나아갈 길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아갈 길 조금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졌음 합니다.

낙태가 죄라면 왜 여성만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남성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여성도 똑같이 처벌받지 않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내 생명도요. 삶은 소중합니다. 내 삶도요. 건강은 소중합니다. 내 건강도요. 행복은 소중합니다. 내 행복도요.

살아 있는 여성 신자로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에게도 목숨이 있습니다 여성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지우지 마세요.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종교를 선택하기전에 평등한 한 인간으로써의 여성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종교가 인간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이 여성의 선택과 결정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할 일이지 비난과 죄의식을 사회나 종교가 앞서서 줘서는 안됩니다.

낙태를 결정하는건 자기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이며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장한 개인의 자유의지다. 내몸에서 자라는 세포조직 내가 알아서 한다. 신부주교교황님은 싸우져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제가 지금껏 배워오고 믿어온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평등한 분입니다. 그렇기에 여성의 안전과 지위를 보호하는 낙태죄 폐지를 천주교 신자로서 찬성합니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아주세요

생명이 소중하다면 일단 태어나지 않은 배어나 태아보다 여자가 먼저예요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딸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불행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성경험이 없는 남자들이 정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저보다 세포를 소중히 생각하시나요. 하느님은 저도 사랑하실거예요.

여성 신자들이 하느님 자녀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미 태어난 사람들에게나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사제도 허용하지 않는 교회가 왜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합니까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종교라는 이름만 달면 평생 임신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 참견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스스로 하는 낙태는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의해 일어나는 강제 낙태에 대해서는 죄를 묻는 게 맞겠지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생명을 지우는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눈뜨지 않은 그 생명을 낳음으로 인해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현생 지옥가야 한다면 반대합니다.

"낙태죄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낙태가 아닌 임신중지이며 여성 스스로의 몸에 대한 자유이고 선택입니다. 낙태라는 죄명으로 여성을 구속하고 처벌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나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나의 신체에 대한 나의 선택을 존중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의 선택을 죄라 명명하지 마십시오."

하느님 눈치보느라 제 인생 망칠 수 없네요 죄송해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시는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그 성당에 나가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다른 것에는 어쩔 그리 온화하실까 생각하던 신부님께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저런 열변을 토해내시다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된다면 낙태가 선택지에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낙태죄는 무조건 폐지해야될 악법입니다.

종교가 개인의 선택에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어디까지나 여성의 선택이니까요.

결혼도 안하는 기독교 교회 신부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낙태를 죄악으로 치부하고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렇게까지 생명이 소중하고 보호받고 싶으면 본인들이 자궁 이식받아서 낳아라.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지 말고,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니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만약에 절대적인 신이 있다면 지금까지 믿어온 신의 가르침 일부는 우리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려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페미니스트로서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여성의 몸 또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

낙태죄가 여성 한사람만의 죄가 된다는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 또한 여성을 차별된 시선과 범으로 죄를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게 아닐까요? 낙태죄는 함께 지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행복을 우선시 하실겁니다 여성도 신자입니다 낙태죄는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교회는 생명권에서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

여성의 선택의 자유를 앗아가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사랑하는 딸의 입장이 되어 성차별적인 세상에서 제 몸 하나 자유로울 권리조차 없는 딸을 생각해주세요.

여성의 인권 역시 교회가 보호해야할 가치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제 그만 여성을 가장 뒤에 두는 태도를 바꿔주길 바랍니다. 특히 천주교는 오래간 이 어온 역사와 전통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종교보다 가장 성차별적입니다. 천주교의 교리처럼 우리는 성별에 관계 없이 하느님 아래 같은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통사고피해자 입니다. 골반이 골절되는 바람에 임신을 한다면 저는 출산을 하다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태아와 저, 하느님은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임신중절에 대한 권리는 오직 여성만의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부담과 사회적 제약은 매우 가혹하다. 이러한 고통에 관해서는 오로지 임신과 출산의 주체이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여성만이 발언권을 갖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천주교회는 임신중단에 대해 어떠한 종교적 해석도 할 권리가 없다. 당연히 낙태한 여성 신도에게 죄를 물을 권리도, 그의 죄를 사하여줄 권리도 없다.

저는 모든 이웃을 사랑합니다. 모든 고통받는 여성들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모든 인간을 위한다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1세기에 도달했는데도 지금의 교회의 생각은 진부하고 고루합니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낙태

죄 폐지에도 교회가 앞장서서 약자를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단 한 순간도 낙태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갖기 위한 노력에 종교의 이름으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먼저 앞서간 여성 신자들을 천주교가 어서 따라와주길 바랍니다.

낙태가 죄라면 남자는 어째서 문책을 받지 않나요?

왜 같은 하느님의 자식인 여성들은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까?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지지합니다.

임신을 하는 몸도, 그것을 중단할 권리도 모두 제 것 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일년 전이었나? 성당 입구에서 낙태죄폐지 반대 서명을 하고 있던군요. 허허 웃으면서 서명을 하시는 나이드신 분들 뒤로 젊은 여성 신도들 얼굴일 살포트 굳은게 기억이 나네요. 낙태를 생명을 죽이는 짓이라고 거품을 무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게 살아있는 여성의 삶은 아무 것도 아닌지요. 천주교는 사실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 이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말할 기회가 생겨 적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신자이고 좀 더 나은 여성의 인권을위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하느님 앞에 모두 평등하고, 페미니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아를 죽이려 할 때는 유명무실하던 낙태죄가, 여성이 스스로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 할 때는 힘을 얻고 개인의 자유와 삶을 속박하는지요? 교회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할 때, 이것이 하느님의 교리에 입각한 것인지, 아님 인간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기인한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당 내 활동에서 여성이 더 많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자리에 있으라 하면서, 이런 여성의 몸과 관련된 사항을 사제들 선에서 결정하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신 출산을 고결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교회 내에서, 많은 성직자들은 성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여성의 희생만을 강요하나요?

낙태죄 폐지에 동의합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성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저는 임신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느님을 믿어요. 만약 그 때 임신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었겠죠.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저는 여전히 주님의 선함과 평등함, 사랑을 믿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기 이전에 저는 인권을 가진 한명의 사람입니다. 내 몸에 대한 선택

권을 내리는 것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자는 신부님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신학교 입학생이 계속 줄어도 여자는 왜 절대 받지 않나요? 오직 남성만 신부님이 될 수 있는 것과 여성의 머리를 미사때 미사보로 가리는 것(요즘은 안쓰시는 분도 많지만)이 제가 냉담자가 되도록 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네요...

하느님과 주님께서는 모든 이가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여성의 낙태를 죄악시하는것은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저희 대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뜻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신앙인지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고백합니다. 저의 가장 큰 불법 행위는 낙태였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잉태가 그렇게 거룩한 것이라면 왜 여자들에게만 주어지나요? 정작 신부라는 자리는 남자만 될 수 있으면서?

낙태죄는 임신도 출산도 할 일이 없고 그 책임도 지지 않을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신앙을 접하며 과학시간에 토론했던 답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도 해봤습니다. 과학과 종교 사이의 간극을 줄여보고자 노력했으나 여성으로써 저의 생각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여성이 행복을 알고 느끼는 소중한 생명의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우월주의가 주는 그 <생명>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태아 보다 하등한 동물취급을 받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국 천주교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 현 시대에 맞춰 적극적으로 변화를 잘 수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신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이런악법의 폐지에 천주교가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몸의 권리를 종교의 권위로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수정체는 아직 생명이 아닙니다. 과학을 직시하세요.

"저는 여러가지 면에서 교회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면을 많이 보았고 실망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논하기 전에 신도 본인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죄로 규정하고 교리로 단속하고 있지요. 그것이 어떠한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더라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남자라고 단정지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천주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부님들은 전부 남자지요. 왜 여자는 신부님을 할수 없습니까? 하느님도 여자이거나 어떤 성별을 초월한 존재일수 있는데 왜 천주교에서는 남성으로만 표현할까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만을 내세워 여성에게 큰 죄의 굴레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죄에서 남성의 책임은 없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이렇게 정하셨냐고요. 그렇다면 저는 하느님을 믿고 싶지도 존경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임신중지가 죄라면 내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국가나 공공권력이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은 하나의 피조물로, 어느 한 쪽 성별에만 부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도인 낙태죄 폐지에 반대합니다.

"내 몸에서 일어날 일을 거부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자녀들이 불행하길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당신의 딸들이 불행하길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딸들이 행복을 선택할수있는 권리를 주옵소서"

여성을 아이를 낳는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네요. 여성의 자유와 행복 추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권입니다.

거꾸로 남성이 임신을 한다면 낙태는 애초에 죄로 성립하지 않았을 것을 의심치 않는다.

신이 여성의 더 나은 미래를 막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교회에선 낙태죄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이걸 죄라고 하셨을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여성의 눈물을 모른척하진 않으시니까요.

낙태죄는 남이 정할 수 없고 해당 여성이 선택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죄없이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아기는 태어남으로써 죄를 얻고 따라서 세례성사를 받기전 사망하는 아기는 신생아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천주교의 논리입니다. 이미 존재함으로써 죄, 세례성사에 대한 저주,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제 아기를 낳은 이후로 냉담자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태어나지않은 태아도 죄인. 원치않는 임신으로 출산을 거부하는 엄마도 모두 죄인일까요. 그렇다면 출산의 의무는 있는데 어째서 부양의 의무는 없을까요?동정마리아가 아닐진데 어찌하여 모든 책임은 태아와 엄마에게 지우는 걸까요?원치않는 삶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이상 남자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자는 태초에 죄를 지어 순진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인 죄인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무가 생겼으며 신성하지 못해 신부도 될 수 없다는것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남자는 부양의 의무와 신성의 의무가 있지만 그것이 지켜지나요? 강제되나요? 천주교인으로써 다시 성당으로 돌아가고싶습니다. 하지만 내 딸에게 원죄가 있다는 논리, 내 딸이 신부가 될 수 없다든 교회는 다니고 싶지않습니다.

제 몸은 저의 것입니다.

낙태가 왜 여성만의 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성 신자이지만 그 전에 여성입니다. 또 그전에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낙태법은 이미 태어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 수있는 위험한 법입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강요하지마세요.

"20년 전, 카톨릭계열의 대학 면접 시험에서 태아도 생명인데 낙태는 살인 아니냐는 면접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19살의 저는 태아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여성의 생명과 인권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교수님들께 되던졌습니다. 그 때, 남자 교수님들은 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면접은 끝났습니다. 저는 합격했구요.

왜 아직도 이 질문을 받아야 합니까. 왜 20년 전에서 조금도 질문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만약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다면 저는 낙태를 죄책감없이 선택할 겁니다. 어떤 논리나 주장으로도 가정을 가지지도 출산을 하지도 않을 성직자들의 견해에는 세뇌를 제외하고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 건 제 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엄마 안나."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 입니다

성당에서 낙태죄 지지 서명을 받고 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성당에 자주 가지 않는 신자여서 내가 속한 어느 집단이 낙태죄 폐지를 막으려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받고 있는 테이블을 보는 순간 정말 괴로웠습니다. 세례 받은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구요. 성당은 낙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맥락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여성 신자, 크리스천이 아닌 여성들과 낙태죄 폐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긴 했을까요? 서명란에 이름 석자를 적은 신자들도 마찬가지로일 것입니다.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성당은 진정 신자들을 위한 성당이 아닐 거라 확신합니다. 적어도 신자여서 부끄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당의 역할 아닐까요.

생명은 존중받을 필요 있으며 낙태를 선택한 나라는 사람 또한 존중받을 필요 있습니다.

여성신자들에게만 모든 죄의 책임을 묻지 말아주십시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종교가 그 결정을 막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낙태죄 폐지의 본질은 여성인권에 있습니다. 임신과 육아의 책임을 홀로 지지 않을 권리, 내 몸에 대한 선택을 할 권리를 보장받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소중함을 이유로 낙태죄를 반대할 줄만 알지, 정작 여성의 인권 향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강경한 태도를 보

이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곁에 있는 자매들을 돌보는 것 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는 작년에 미사 강론에서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신자는 교회를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낙태에 반대 서명을 강요하는 사제의 이야기를 들었고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청소년이 성폭력으로 임신을 했어도 출산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천주교의 교리에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가르침은 남성들의 생각이니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성모마리아님께서 이미 태어나 살아가는 여성들을 그저 애기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 하십니까? 여성의 문제에 어째서 남성인 신부님들이 목소리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운 좋게 아직 살면서 낙태를 해야하는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운이 좋았다 라고 밖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하지만, 새로이 생겨난 생명도, 이미 긴 시간 존재하는 생명 둘다 존중받지 못하며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기적인게 아니라, 살기위해서 하는 선택인것을 신도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8~90년대 여아낙태가 자행될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와서 죄악이라니 황당하고 비정교인들이 보기 부끄러운 논리죠. 임신중단은 여성의 권리입니다

거의 모든 기도문에 등장하는 '동정녀 마리아'님께 매주 기도했던 세례받은 여성 천주교인입니다. 과거에 세례도 받고 성당을 성실히 나갔으나 더이상 동정녀임을 받드는 종교는 원하지 않아서 발길을 끊은 사람입니다. '인간 여성이 아버를 모르는 아들을 낙태하지 않고 태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아들의 아버는 하느님이였다'는 신화에 기반한 종교라 '낙태' 문제가 '여성 인간 개인'보다 중요함을 압니다. 허나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인지하고.. 여성 신자 또한 구원하셔야 할 텐데, 힘드실테니.. 여성신자들이 계속 이 종교에서 발길을 끊겠지요.. 어쩌면 동정녀 신화 없이 기능하지 못하는 종교의 숙명인 듯 싶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고민과 갈등을 한적은 있었지만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을 이유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선동하기위해 천주교 이름으로 내건 사진과 글을 볼 때는 신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현실 속 차별에 눈감고 그 차별에 대해 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대리한다고 할 수 있는건지요. 제가 교회에서 듣고 마주한 하느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상징인 낙태죄 폐지 반대를 멈추어 주십시오."

신부들아 추기경들아 니나 잘해

신부님과 똑같이 저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의 수 많은 자매들도 저와 같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신부님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신부님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잊지 말아주세요.

"애 키워는 봤나요?"

무조건적인 신념 이전에 살고있는 여성부터 좀 생각해줄길"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단죄하기보다 공허히 여겨 돕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 배웠습니다. 핍박받는 이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라고도요. 사제들께서는 막연히 생명 존중을 설파하기 전에 정말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여성들의 삶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공감한 적 있는지 스스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재단하고 값을 매겨 어떤 생명은 함부로 죽게 내버려둔 기나긴 역사에는 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성들은 어디선가 함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부님 주교님 낙태가 죄라 하고 싶으면 먼저 임신 출산부터 해보시고 오세요. 요즘 과학기술도 발전했는데.

천주교 신자이지만 신자이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교리에 따르면 낙태는 중죄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고통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율법으로 단죄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떳떳한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뱃속의 태아 만큼이나 그들 역시 삶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굽어 살피주세요. 그들을 용서하고 안아주세요.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여성의 권리입니다. 여성도 사람임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시대가 변하는 만큼 종교도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몸에 왈가왈부 하는 남성이 없길 바랍니다. 그게 하느님이고 예수님이고 신부님이라도요.

더이상 규율에 얽매여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규율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뿌리가 깊고 규모가 큼니다. 그만큼 변화가 어려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전 정말 신이 있다면 신의 뜻과 낙태죄 폐지는 같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인 산모보다 아직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는 태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었던 외가친척친지들이 어머니가 90년대 초반에 여동생을 가졌을

적에 어머니에게 지우라는 말을 했었다는 얘기를 아주 꺼리낌없이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8,90년대 태어날 예정이었던 여아들이 사라져가던 그때 우리 천주교는 뭘 했나요. 현재 불가피하게 여성들의 몸과 생활을 지키는 최후의 방법인 중절과, 성별감별해가며 낙태하던걸 천주교차원에서 묵인하던 시절 중에서 어느것이 더 하느님의 생명을 존중하는 행위였나 생각해보아야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의 유무와 신앙의 깊이는 상관없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없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태아는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법을 유지하는 것을 천주교가 지지한다면 이는 곧 천주교가 여성을 차별한다는 것인데 진정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생각해주세요. 태아 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성도 생명입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제 몸에 대한 권리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원합니다

탄생한 생명을 지우는 것은 죄이고 살아가는 생명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하는 건 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임신은 여성의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현대의학의 발달이 있음에도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 등의 성폭력으로 임신을 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아이를 키워야합니다. 세상에 어떤 피해자에게 목숨을 걸라하고 가해자의 아이를 맡길 수 있나요. 원치 않는 임신은 중단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 피임을 했음에도 실패해 하게 된 임신을 무조건 수용하고 낳아야 하나요? 한국가톨릭교구에서는 비용적 문제만을 예로 들며 무조건 낳도록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원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비용적 문제보다 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나 현재의 가톨릭은 생모에게만 책임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아직도 주보에서 낙태한 여성은 물론 임신중 아이와 사별한 생모에게 죄를 뉘우치기 위한 모임을 연다는 소식을 보곤 합니다. 생부에게는 대체 어떤 책임을 주장했나요? 그리고 생모와 생부가 가톨릭신자가 아니라면 또 어떻게 하실겁니까? 태어나기는 커녕 아직 뇌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배아를 생명이라 말하며 한 생명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라 압박하는 가톨릭이 정작 어머니가 되어야 할 생명을 핑계삼아 살아있는 여성을 억압하지 마세요.

태어날지도 모르는 생명을 핑계삼아 살아있는 여성을 억압하지 마세요.

저는 16살의 중학생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제 몸도 사랑합니다. 저는 제 사람들에게 진정하고 준비된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하시는 말씀 속에는 임신한 여성의 소중함도 있습니다. 순결하고 정숙한 여성이 아닌 자신의 몸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보호 할 수 있는 여성이 되고 싶습니다.

애는 신부님이 낳습니까?

신에게 몸을 바친다는 신부와 애도 낳지않는 남성 전체가 낙태에 대해 논하는 것이 정녕 우습지 아니한가.

태아의 권리 이전에 가장 중요한건 나 자신입니다.

폐지를 동의합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저를 자식으로 사랑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괴로워하는 길로 가라고 등을 떠밀까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함께해주시시오. 낙태죄는 여성을 출산도구로 보는 시대착오적 법입니다. 낙태를 막고 싶은 게 정녕 맞습니까? 그렇다면 낙태를 죄로 만들어 여성들에게 죄를 부여할 게 아니라 성교육과 같이 모두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몸을 죄로 여기며 여성을 출산도구로 만드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낙태는 오롯이 당사자의 일입니다.

시대 착오적인 종교는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원치 않는 임신까지 주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여성의 마음은 지옥불 고통보다 더한 것에 휩싸일 텐데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해당 여성 개인에게만 주어진 권리입니다. 주님마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주님 아래 하나의 인격체이지, 출생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인간이 될 '가능성'을 여성보다 우선시하지 마세요.

내 몸은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세요. 내 몸은 내가 지켜도 불법이 아닌 사회를 만들고싶어요

낙태죄 폐지와 관한 신부님 강론이 생각납니다. 낙태죄가 자칫 잘못하면 남녀 싸움으로 가는 것과 다른 나라(미국으로 예시를 들으셨어요)는 다시 낙태죄를 법으로 하고 있다고요. 고등학생이 임신했을 경우도 출산하고 다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런 내용들이였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 인식과 시스템이 많이많이 바뀌어야 하죠. 그 전에 죄라는 인식부터 바뀌는 건 어떨까요. 내 몸에 관한 권리를 찾는 것이 이렇게 죄가 되어야 할까요

낙태죄 폐지를 동의합니다. 그 무엇보다 여성의 인권이 존중시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가톨릭교회의 교도권이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생명, 가정, 사랑일까? 가끔은 의심스럽다.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성에 대한 이해 없이 "낙태는 살인"이라고 단언하는 사목자의 모습에 인간은 없고 오직 '생명'이라는 공허한 단어 그 자체만이 남는다.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인간을 잊은 교회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당신들의 교회를 이루는 무수한 여성들이 낙태를 경험했다. 그들 앞에서 감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운운하는 말을 멈추라.

저는 임마누엘라입니다. 임신유지는 여성 스스로가 결정할수 있게해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자면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돼지고기를 단 한조각이라도 먹은 신자와 신부, 수녀를 전부 파문하지 않고 타락한 몸으로 기도를 올리는 더러운 이들도 처벌해달라고 법원앞에서 시위하시죠.

오랜 카톨릭 신자이지만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서 여성 인권을 존중받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성당을 안 다닌지 10년이 넘었고 다른 종교는 없지만, 잔다르크라는 세례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낙태죄 폐지에 대해 지지서명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천주교신자입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결정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태어난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담자에게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포 덩어리보다 인격체를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당연함을 굳이 외면할 이유가 대체 뭘까요...?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 밖에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성의 몸의 주인은 여성 자신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통 남성인, 임신 경험도 가능성도 없는 일개 성당 신부들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몸에 대해 가타부타 하는 것 자체가 코메디 아닙니까? 근엄한 척 하지 마세요. 여성들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온통 남성인, 임신 경험도 가능성도 없는 일개 성당 신부들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몸에 대해 가타부타 하는 것 자체가 코메디 아닙니까? 근엄한 척 하지 마세요. 여성들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여성에게만 죄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많은 나라에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

십시오.

신자인 개인으로서 낙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낙태를 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모나 교회 내 여성 노동자들의 육아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생명 사랑을 이유로 들어 낙태죄에만 집착하는 게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명이 소중하다면, 이미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을 키우는 여성에 대한 처우도 좀 신경을 써 주시지요.

천주교단체가 낙태죄 폐지 서명운동을 했을 때, 저는 더이상 성당을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태어날 때 부터 '한나'라는 이름을 받고 태어났다는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낙태죄 폐지 지지서명을 할 수 있게돼서 기뻐요.

낙태를 무조건 찬성하는게 아닙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반대해요.

신부님,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임신경험자의 42%가 낙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안전하게 몸을 지킬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배아의 절대적인 생명권 보장이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남성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음 교회는 낙태죄에 대한 성명을 내는 것이 아닌 고통받는 여성신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주세요.

여성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이제는 교회가 나서서 여성들의 고통을 없애야 합니다

여성들의 문제에 같은 신앙인으로써 이웃,가족으로써 관심을 가져주고 고민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버지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요. 여성들이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도 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다 하느님의 계획에 있을 겁니다. 종교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 마음을 편히 할 수 있는 곳, 위로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런 건 과거 역사책에 나온 것들에 그쳐야지요. 신의 뜻을 전하고 신을 대신하여 품어주지 못할 망정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일반 신자보다 높은 계급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이 낳고 신부님이 키울 것도 아니잖아요

태아가 생명이기에 존중받아야 한다면, 어째서 여성은 존중받지 못합니까? 듣기 좋은 말만 받

아들이지 말고 세상을 보세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성관계, 혹은 예기치 못한 성관련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심지어 원치않는 아이를 갖고 낳는것이 태어날 아이에게 과연 좋은 일인가를 생각해주시시오. 여성은 아무생각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비정한 인간이 아닙니다. 아무생각없이 자신의 몸을 망쳐서라도 아이를 낙태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당연합니다. 여성은 선택할 수 있어야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광장에서 돌을 맞던 여인도, 창녀도 사랑하셨는데, 왜 종교가 나서서 성경과 하느님 말씀이라며 여성을 탄압하고 차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냉담인이지만 한때 열심히 다녔던 곳을 가지 않게 된 계기입니다. 성당입구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서명운동을 하고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교회가 해야할 일은, 낙태를 '형법의 죄'로 규정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도덕'의 영역에서 (태아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법은 다릅니다. 교회의 역할은 도덕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와 교회의 교리는 절대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읽어보셨나요? 낙태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보복성 고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인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도 하고요.

여성도 생명입니다. 여성도 똑같이 하느님의 자녀죠.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여성들의 생명과 존엄성과 권리를 위해서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모태신앙인 제 어머니도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모성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제 어머니가 범죄인입니까?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모태 신앙인 크리스천이자 2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임신중절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20대가 된 후, 여성의 신체결정권에 대한 논의, 그리고 성생활에서의 "책임"을 한쪽 성별에게만 지우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접하며 신앙인으로서 그동안 받아들여온 윤리와 여성으로서의 인권존중 사이에 인지부조화를 느꼈습니다. 모든 인류에 평등한 사랑이 교리의 핵심이라면, 왜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같은 수준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혼자서 임신을 이룰 수 없는데 임신은 어째서 여성의 몫입니까. 낙태죄 폐지에 지지합니다.

"성당 문 앞에 놓여져 있는 낙태 반대 팸플릿을 보면 참 슬프습니다. 왜 신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을 돌아보지 않나요...."

"여자,남자를 떠나...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 인간으로서... 여자 혼자 아이를 갖고 낳는 것이라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겠습니다. 왜 여자에게, 의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는지... 이 자체가 이미 맞지 않습니다. 오롯이 여자 혼자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묻고 책임져야죠.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므로 남자도 동시에 낙태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래야 낙태도 줄게 되고 그래야 생명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야 공정, 공평,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태어나 살아 숨 쉬는 여성 신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고 동정하라. 평화를 외치는 종교에서 여성과 논바이너리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단죄하길 원하는 것은 교리에 어긋난다.

여성 자신이 자기 몸의 결정권을 가져야합니다.

목사님, 어쩌서 낙태가 죄인가요. 무고한 태아의 생명 역시 소중하고 숭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 자체의 경이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해내야하는 것은 오직 여성이고, 당사자에게는 큰 짐일 수 있습니다. 여성이 원하지 않았을 임신이었을 수 있고, 범죄의 피해자로서 그 태아 자체가 그 여성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을수도 있습니다. 어쩌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저희의 고통을 모른체하시나요. 여성이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시련임에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딸이니 어쩔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고 하실건가요. 기도로 이겨내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그렇다면 더이상 하나님의 딸이 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의 딸은 아닐겁니다. 극단적으로 그 성폭력 피해의 결과로 얻은 아이가, 그 피해자가 목사님의 사모님이셔도, 목사님의 딸이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시련이니 당신이 감내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시련이니 그냥 낳아서 잘 길러라 하실거라 믿습니다.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21세기임에도 교회의 남성우월주의 지긋지긋하다.

여성의 몸을 가지지도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는 신부님들이 권위자의 자리에서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불편합니다. 강론시간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가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상처 받고 지친 여성들에게 잘못을 물으시고, 판단하시고, 인생을 희생하며 책임을 져내라고 하실 것 같지 않아요. 낙태를 만약 하지 않는다면요? 교회가 책임지나요?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자유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지만, 심지어 교회는 경제적으로 여자의 미래를 책임져주지도 않아요. 여성의 몸에 대해 마치 교회의 소유물인양, 낙태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태도가 지겹습니다. 낙태 뿐만 아니라,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수녀님들이 늘 신부님들 아래에서 보조의 역할만 한다는 점, 성체 분배 같은 평신도의 일에서 여성 신도는 배제된다는 점에서 교회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무작정 따르진 않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성의 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생명 중 하나입니다. 저는 소중합니다."

크리스천이자, 여성 시민으로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책임질 이유는 없으며,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없는 것 또한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여성만이 임신이 가능한데...왜 낙태를 죄로 규정하여 여성에게만 죄를 떠앗기나요. 태아에 대한 생명의 존중은 이해하나, 그렇다면 산모도 존중받아야 마땅한거 아닌가요.

"천주교에서 낙태가 죄라면 성관계도 동일한 무게의 죄라고 생각 합니다. 천주교가 낙태죄를 반대하려면 혼전관계 금지 법안이 우선되어야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헛소리구요. 별은 하늘에서 결국 다 받게 되어있는데 천주교가 낙태를 막기 위해 할 일은 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자수를 늘리고 설득할 능력이 있어야겠죠.

가톨릭은 지금 지금은 청년 여성신자가 왜 떠나가는지 이유도 모르는 중입니다. 진짜 생명을 위해 낙태를 막고 싶은 거라면 법을 만들게 아니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래도 지상에서 별을 받게 하려면 최소한 남성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일말의 노력이라도 보이길 바랍니다."

여성 신자로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성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여성들과 어떻게 대화했는지 보시죠

낙태죄 폐지는 이웃사랑의 모순을 지키고 있는 교회에 맞서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였던 약한자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요즘 성당이고 교회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가 중세에서 벗어나질 못한 것 같습니다. 뭐하면 하느님이 벌 준다 혼낸다 지옥 간다 자꾸 이러는데 하느님은 사람을 사랑 하는 분 아니십니까? 낙태는 여성에게도 끔찍한 기억으로 남는데 누군들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살인자도 용서하시는 하느님이 낙태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여인 하나 못 감싸신다면, 그런 신은 믿기 싫습니다. 하느님은 누가 약자고 누가 정말 슬프고 아픈지 아실 겁니다. 하느님을 천상 끈대에 못난이로 만드는 종교인들은 제발 크게 반성하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오를 세 번 좀 하셨으면 하네요.

타인이나 종교와 하느님, 이념 중 그 어떤 것도 우리 여성들의 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며, 성당과 교회도 이 목소리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남녀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악법인 낙태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교단의 말과 행동이 다른건 세계적으로도 악명높지요. 천주교가 주장해오듯 남녀가 평등하고 미혼모를 가엾게 여긴다면 낙태죄 폐지는 마땅하지요.

물리적으로 여성만이 임신이 가능한데...왜 낙태를 죄로 규정하여 여성에게만 죄를 떠앗기나요.

태아에대한 생명의 존중은 이해하나, 그렇다면 산모도 존중받아야 마땅한거 아닌가요.

천주교 신자로서 낙태죄 폐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여성 신자로서 세포보다 못한 취급받고 싶지 않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자신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세포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망치긴 싫어요

낙태죄 폐지는 신도들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생명'과 '사랑'이란 이름을 가져다가 다른 생명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하지 맙시다.

여성의 몸은 종교적인 것에 의해서도 법적인 것에 의해서도 억압될 수 없어요.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자기결정권, 여성의 인권을 위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데 종교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천주교 신자로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모든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발전하는 사회와 함께 진보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신부님,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남자'에게는 왜 책임을 물으시지 않는거죠?

가장 차별받는,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해 서라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여성의 몸과 관련된 이야기를 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낙태죄 폐지 서명을 받는 것을 보며 너무 불편했어요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태아가 있기 전, 여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남성중심적인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은 뱃속의 세포 이전 같은 형제/자매인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인 여성 신도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기도와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모태신앙으로 성당에 다니게 되었지만 왜 낙태죄가 있는지 모르겠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아직 심장도 안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으로 보이냐?"

"가톨릭이 아무리 과학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과학을 믿으세요. 어떻게 세포를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까. 정자 하나하나 없애 버릴때는 생명이 아니다가 수정만 되면 인간으로 보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낙태죄폐지 반대를 외치며 이야기 하셨던, 미혼모 지원은 늘리셨습니까? 지원을 늘리셨다고 해도 왜 미혼모들의 처지는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리고 미혼모들의 생활이 나아졌나요. 미혼모들의 삶은 그들의 것으로 되었습니까? 낙태를 이야기 하면 언제나 여자들이 고해성사를 봐야하고 그에 대한 캠프 또한 이루어 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남자가 빠질까요. 자신의 정자를 싸질러 여자와 아이를 죽인 것이야말로 고해성사를 보고 캠프를 가서 회계를 해야 해야 하지 않나요? 그치만 2016년에 반대를 외치며 이야기 하셨을때는 남자의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여자 혼자 만들 수 없는데 언제나 죄는 여자만 받네요. 그리고 생명이 소중했으면, 지금에 집중하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천주교가 미혼모나 아이를 위해 봉사를 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할 것이 있나요?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톨릭이 엄청난 남초라는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윗분들이 다 남자신데 어떻게 여자의 삶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봉사를 해 나아가나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낙태죄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 본인의 것입니다. 하느님은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남의 신체에 함부로 해를 끼치면 안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웃은 그 사람입니까? 그의 뱃속에 기생하고 있는 세포입니까?

교회는 여성의 신체에 대해 통제할 권리가 없음 특히 임신과 출산과 가장 거리가 먼 남성 사제들이 무슨 자격으로 낙태에 대해 논하는 건지 모르겠음

생명의 잉태와 신성함을 논하기 전에 이미 태어나고 자란 여성을 생각해 주십시오 낙태 시 혹은 낙태하지 않을 시 홀로 감내해야 할 위험 부담 또한 생각해 주십시오

여성의 몸은 여성만이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새 생명이 소중하지만 당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수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연서명을 받는 교회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성 청년들끼리 쉬쉬하며 울분을 토하며 얘기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뭘 알지도,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쉽게 떠들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 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세포 덩어리를 인간이라고 여기고 보호해야 하는 것보다,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 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여성 신도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낙태한 여성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세상에서 보호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낙태는 살인이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세포보다 살아 존재하는 여성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주께서는 여성을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 대하시리라 믿습니다.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현 제도에 대해 교회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의 진실한 자매님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니까요. - 스콜라스티카

아기를 버린 남자가 낙태 허락하러 병원에 오지 않아요. 낙태를 위해 거짓으로 사람을 사야 하는 불합리가 있어요.

카톨릭 신부들은 낙태죄에 관한 발언을 중지하라. 신부들이야 말로 임신, 낙태에서 가장 먼 사람들이다. 임신, 낙태로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라.

평범한 젊은 여성 신자로서, 교회는 약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본인의 감정을 넣어 강요하는 신부님들 의견이 어떻게 교회를 대표합니까. 사회를 모두에게 살기 좋고 정의롭게 만드는데 힘을 보태십시오.

낙태죄 폐지 되어야 합니다.

성당 주일미사 끝나고 나오는 길에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받는거 정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지켜보기 힘들었어요...

"교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성에게 해방인 교회. 성모 마리아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라! 자기결정권을! 이브에게 교육권을. 호기심은 금지로 사라지지 않는다"

낙태죄는 생명을 살리는 법이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임신중단을 하다가 죽을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종교계를 앞세워서 밀고나가는게 천주교인 100만서명이 크게 작용했을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 온라인 오프라인 두번씩 하거나 1층에서 거의 강제로 받아내는걸 봤기 때문에 다른목소리, 특히 교회 내부 가임기 여성의 목소리가 가시화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낙태자체가 신앙에서 말하는 죄라는거랑은 다른 문제로 여성인권을 탄압하는 법을 만드는데 가톨릭이 앞장서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떤 가치관을 실행 할 때 혐오자와 같은 방식이라면 왜 그런지 무엇이 잘못된지 당사자의 말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여성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있지만요. 목소리를 내고 교회 내부에서 변화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부디 들어주세요.

여성의 생명이 태아의 생명보다 하등시되는 풍토를 하느님께서 원하실리 없습니다. 제발 여성의 삶을 존중해주세요.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큰 축복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혼자 잉태하나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사랑하여 잉태되는 것이 아이인데, 왜 낙태를 한 여성들만이 하느님께 죄인이 되고 생명을 없앤 죄인이 되는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와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 생명에 대한 죄는 왜 여성만이 가져야 할까요?

"종교에서 얘기하는 생명 존중으로 낙태를 보았을때 생명을 죽이는 것이므로 죄다,라고만 보지 않고 여성의 인권, 건강과 행복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확대된 해석이 필요합니다. 종교로 묶어 하나의 목소리를 강제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고, 그게 죄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왜 여자만 떠안아야하는가라는 불합리도 문제입니다. 모든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를 따지는 것보다 우선은 우리의 생명존중을 위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나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지만 신앙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목소리내고 외칠 것입니다.

카톨릭 신자인 저는, 낙태죄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천주교내 여성인권에도 대해서도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세상은 발전하는데 종교는 제자리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피임을 더 확실히 하도록 남성의 책임을 강화해야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여성만을 처벌하는 낙태죄 폐지에 천주교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느님의 자녀인 여성을 보호해주십시오.

교회의 태도는 너무 이중적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임신 중지를 살인이라고, 생명 경시라고 몰아가면서 난임 부부의 시술을 위해 하루에도 몇천개씩 버려지는 수정란에 대해서는 왜 살인이라고, 생명 경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임신을 막고 성교의 쾌락만을 위한 도구인 콘돔과 피임약 회사에게는 왜 침묵합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포는 생명이라고 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생명은 생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느님을 믿지만 하느님은 절대 이 땅에 살아있는 여성들이 세포 때문에 고통 받기를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당 1층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받던 몇 주를 기억해요. 이름을 적고 있는 남자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가 막혔어요. 또 과거 국가에 의해 낙태를 장려받았던 여성 어르신들에게 강요하듯 서명을 받아내며 그분들의 마음에 또 한 번 상처내는 일은 어떨까요."

아기 낳는 기계 취급 받는 기분입니다. 취급 아니고 설마 그냥 기계인가요? 아기는 둘이 만드

는데 죄는 여자 혼자 만나요?

4대째 천주교 집안에서 자란 신자입니다. 제가 느낀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실천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도 하나의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가톨릭안에서 여성들이 잘못세워진 여성관을 뒤엎고 신앙 속에서 함께 가는 존재로서 느껴지길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천주교 신자이며 낙태죄 폐지를 원합니다. 천주교가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해온 오랜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길 원합니다.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존중의 대상은 왜 태어나지 않은 태아만이 되는건가요? 살아있는 여성은 존중할 생명이 아닌겁니까. 임신출산에 대해 그 어떠한 고민도 안 할 신부님들이 마냥 낙태죄 폐지 반대를 주장하시는 것, 매우 불편합니다.

여성의 몸은 당신들의 도구가 아니다.

낙태를 죄로 치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의 생명을 위한다는 이유인데, 이는 명목에 불과하다. 여성의 생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이의 생명을 위한다는 이유는 결국 아직 1cm도 되지않는 배아의 생명을 여성의 생명보다 우선한다는 뜻인데, 말도 안된다. 낙태를 죄악시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성의 신체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만약 낙태가 그렇게 죄악이었다면 여아는 죄다 낙태시키고 남아만 낳았던 지난 20년동안은 왜 낙태가 공론화되지도 않았을까.

비의학의 분야인 종교가 의학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피임약 휴약기와 같은 불필요한 규정만 생길 뿐이다. 세상은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것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단체는 도태될 수 밖에..

교회가 생명을 존중한다면, 태어나지 않은 생명보다 태어나있는 생명을, 태어날 생명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줄 수 있도록 탄생의 순간을 여성이 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생명존중을 위한 활동을 이미 태어나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비혼모를 지원하고, 모성이 혐오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뱃 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듯 임신의 주체인 여성의 생명 또한 중요합니다. 여성이 없

으면 아이를 낳지도 못 하죠. 강간이나 피임 실패, 강제 임신 등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시 겪을 여성들의 길고 긴 고통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낙태 수술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없으려면 낙태는 합법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여성의 몸이 정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살고, 집안에 성직자가 있는 깊은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린나이에 원치않는 임신을 한 제게 낙태와 자살이란 두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는데 그 둘 다 교리 안에서는 죄이더군요. 그 괴리를 파고드니, 페미니즘으로 보는 교회는 너무도 구세대적으로 보이더군요. 가장 낮은곳에 임하시어 동성애나 성소수자들까지 품어주는 교회가 된다면, 다시 성당에 가서 긴 고백성사를 받고 싶습니다."

낙태를 죄로 치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의 생명을 위한다는 이유인데, 이는 명목에 불과하다. 여성의 생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이의 생명을 위한다는 이유는 결국 아직 1cm도 되지않는 배아의 생명을 여성의 생명보다 우선한다는 뜻인데, 말도 안된다. 낙태를 죄악시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성의 신체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만약 낙태가 그렇게 죄악이었다면 여아는 죄다 낙태시키고 남아만 낳았던 지난 20년동안은 왜 낙태가 공론화되지도 않았을까.

성당에서 여자를 제외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은 이렇게나 진보하는데, 여전히 교회내 여성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큰 울림을 만듭니다.

청소년기에 태아의 발모양을 본 뜬 낙태 반대 뱃지를 성당으로부터 받은 뒤에 한동안 그것이 절대 선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세상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가혹한지 피부로 느끼면서 낙태죄 역시 얼마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법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인류 전체에게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지 여성 개인에게 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이 땅의 여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낙태죄 폐지 운동에 오히려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로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하느님도 용서해줄 이유 있는 낙태.

하느님 앞에선 평등하단 교리로 내세우면서, 정작 뿌리박힌 남녀차별을 바꾸지 못하는 성당은 바뀌어야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들어 신부는 남성만 가능하단 것입니다.

신부님, 수녀님이랑 여성 신자들 노동력에 기대 사는 것 그만들 하시죠.

저는 신앙인이지만 성당 내에서 남녀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에 남녀 차별이 있는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들은 왜 인공자궁 실험 마루타가 안 됩니까 너무 송고한 일인데.

낙태죄 폐지 지지합니다.

저희는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저희를 죄인으로 만드십니까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여성이 선택하도록 해주세요.

그 때 낙태를 한 저는 약 10년 간을 죄의식에 성당조차 갈 수 없었지만, 이제 그 때와 달리 아이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태아 생명의 존엄 전에,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십시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여성의 생명과 평등에 대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폐지해야죠. 낙태죄 금지는 여성만의 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신체로 행해지는 일이니까요. 낙태죄 자체가 여성이 순결하기를 요구하는 장치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만든 여자 구속 장치요.."

생명이 소중하다면 피임 안 한 죄를 물어야 맞는거 아닐까요? 피임을 안 한 잘못은 결코 여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 논리라면 유전자 검사 해서 정자의 주인까지 묶어 죄를 묻는다면 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거라면 언급돼선 안되는 죄목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천주교 신자이지만 그전에 여자입니다. 교회가 기존의 낙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제 신앙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 삶을 지킬 수 없다면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도에 실망하고 돌아서는 여성 신자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뜻을 인간의 잣대로 모두 이해했다는 오만을 버리시길.

낙태죄 폐지

예수님이 여성을 보듬어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이 발전했으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낙태는 무조건 나쁘다 죄다 라는 일방적인 생각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교회의 규율은 교회의 규율로만 남아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 지지 선언 참여자들이 정부에 전하는 글〉 (전문)

〈주요 의견 내용〉

- 본 선언에 참여한 1,015명의 천주교·개신교 신자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강력 지지함.
- 남성 중심의 종교계에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해당 종교를 믿는 국민 모두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님.
- 낙태죄 폐지의 문제는 교회법의 문제가 아닌 형법이라는 세속법의 문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며, 특히나 국민(여성)의 문제에 교단의 일부 남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국민(여성)에 대한 기만.
- 낙태죄와 성범죄, 양육문제 등은 모두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침해한 문제, 정부와 국회는 남성 중심의 종교나 다른 집단이 아닌 여성의 목소리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함.
-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현재 행보는 전혀 페미니스트적이지 않음. 낙태죄 폐지를 비롯한 여성의 인권 이슈에 ‘여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키길 바람.
- 낙태죄는 ‘낙태’를 전혀 예방하지 못함. ‘원치 않는 임신(중단)’을 줄이고, 출생율을 높이고 싶다면 낙태죄 유지가 아니라, 반여성적인 낙태죄 폐지, 성범죄 해결, 성차별 해소 등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것.
- 우리 여성들은 낙태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아이를 낳게 하고 싶다면, 낙태 금지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국가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착취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벌써 출산율은 0%대. 끊임없이 여성을 멸시하는 성범죄 판결 개혁, 출산과 회복/육아에 따른 여성 경력의 안정성 확보, 전반적인 여성의 직업 불안, 남녀임금의 불균형 해소, 육아 노동의 불균형 등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낙태죄의 완전폐지는 없다는 대통령님과 관계부처의 여러분께

촛불광장에서 제가 탄핵을 외치고, 정권교체를 요구할 때 저는 조금 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만3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무엇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후퇴한 것 같아 창피할 지경입니다.

단순히 낙태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방송인 홍석천님이 커밍아웃을 하고 방송이 금지되고, 2013년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님이 동성결혼을 하였으나 혼인신고가 반려되어 한국사회가 여전히 후진국임을, 차별이 만

연한 나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도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는 반려되고 현역군인이 성별을 전환하는 수술을 하였다고 강제로 전역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낙태를 하지 못 해 병원을 찾아 해마다 뒤늦게서야 수술을 받던이 죽고, 2019년 낙태를 하다가 기소된 의사가 낸 헌법소원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음에도 2020년 현재 정부는 낙태를 죄로 처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을 언제까지 하려는 것입니까?

앵무새처럼 몇년, 몇십년째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20여년 전 저의 지인은 임신 5개월이 되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평소 생리불순으로 3-4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하는 적이 일상이었기에 임신이 되었을 거라는 의심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여성의 개인적 문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하여 생리주기를 체크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한 두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그 지인은 만취하여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어 계획하지도, 준비되지도 않은 임신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인이나 저는 이것이 성폭력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 했기에 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정도로 생각했으나 그 후유증은 임신으로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낙태를 할 병원을 알아보다가 결국 시기를 놓쳐 출산을 하고 입양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엔 다른 지인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임신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렸으나 남자친구는 그걸 왜 나에게 말하냐, 말만 하였습니다. 지인이 낙태를 하게 와서 동의하는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더니 낳기만 하면 본인과 본인이 가족이 키우겠다고 외면했습니다. 그 여성은 결국 출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출산을 하면 자신이 키우겠다고 그 남자친구는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에도 답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지인의 호적에 올려졌습니다. 분명 남자친구, 아빠가 존재하지만 미혼모와 미혼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고작 한달에 3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며 자신도 힘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의 지인은 자신의 커리어도, 미래도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짓밟힌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의 배경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엄, 평등, 행복, 권리요구 등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제도는 상식적이지도, 형평성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며, 성관계에 감흥이 없다며 여성의 피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임신이 되면 그게 내 애가 맞냐,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도 현재의 입양체계로는 여성의 호적에 아이를 올려야 합니다. 여성 자신이 키우더라도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하고, 이겨도 남성이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여성에게 미혼모라며 낙인을 씍읍니다.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이 아니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겐 너무 흔하게 듣는 일이고, 몇 명만 건너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혹여,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일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낙태에 대한 요구만 담겨 있는게 아닙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잘못된 성인식, 불평등한 재생산권, 여성에게 현저하게 부여된 양육권, 그리고 그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기회 박탈 까지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여성의 기본권을 빼앗고 있음이, 여성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구현하고 있음이, 여성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이...

그러면서 어떻게 지난 정권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법 위에 서려는 것처럼 보일거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는 제가 당신의, 현 정권의 국민.시민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분노가 치밀 지경입니다. 이제 제발 우물에서 나오십시오. 시선을 넓히고 인식을 확장해서 세상을 좀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온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뜻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복지는 어떤지 먼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동보호법이 개정되었어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방치당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병원비 앞에 놓여 있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입양시설 앞에 버려집니다. 진정으로 아동 복지를 생각한다면 낙태를 죄로 묻기 전에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낙태시키도록 만든, 책임지지 않는 남성에 대한 죄라도 규정하던지요. 한 쪽으로만 기운 저울은 무너집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바랍니다.”

적절한 주수 내에서 임신 유지 혹은 중지의 결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그 몸의 주체자인 여성 본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가와 종교의 또 다른 폭력입니다.

정책 연구시 항상 해외 선진 사례를 인용하면서, 왜 해당 법안에 관련해서는 구시대적인 유물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혼자 남겨진 여자나, 아이를 책임지겠다 어렵게 사는 부부나,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한다는 남자를 위한 더 나은 사회 복지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모두를 위해 낙태는 깨끗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합법화 되는게 맞습니다.

낙태가 죄가 된다면 임신한 여성 뿐만 아니라 임신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남성 또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여성인데 어째서 그 여성에게 설상가상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까? 태아는 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세포일 뿐, 한 사람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보다 생명의 무게가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여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삶을 존중해주세요.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낙태죄를 어떤 식으로든 유지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대신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해 고민하십시오. 여성의 몸을 죄와 처벌로 관리하려는 일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몸과 관련한 권리들을 쟁취할 것이며 그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란 걸 믿습니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생명 사랑이라는 모호한 구호로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종교계는 낙태죄 폐지를 지연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눈 앞에서 고통받는 수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이 행한 크고 작은 폭력에 노출되어온 수 많은 생명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낙태죄 폐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보다는 이미 이 세상에 나와 살아숨쉬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를 유지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힘들게 아이를 낳더라도 행복하게 키울수 있는 법과 제도,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그저 생긴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발상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무용합니다. 여성은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천주교 여성신자로서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절을 하면 낙태죄로 실형을 받는 자체가 2020년까지 계속 되어서는 안됩니다. 임신중절에 몇 주에 해당되면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조차 여성의 결정을 법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여성의 선택과 삶을 구속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서는 안됩니다. 낙태죄 이제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종교 단체에 눈치 보지 말고, 종교 단체 안 여성의 목소리들을 들으세요. 우리는 천주교의 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여성입니다.

정부는 낙태죄나 차별금지법의 입법/법개정이 어렵다고 말할 때 늘 교계의 반대가 크다는 점을 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니고 교계 안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퇴보를 하겠다는 것이며 우리는 여성인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국민으로서 정부의 결정과 행보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았던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거나 학대를 당해 사망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선택할 여성은, 분명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안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원치 않았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재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성교육으로 인해 제대로 된 피임법을 알지 못해서, 또는 성범죄 가해자에 의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낙태죄를 적용하는 것보다, '성교육 방법의 개선'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리 사회에, 특히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과 충분히 사랑 받지 못할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합치 결정에 맞는 입법을 하십시오.

여성의 몸은 국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여성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여성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결정들을 쏟아내면서 재생산 도구로 기능하게 강제하려는 국가의 입장에 분노와 좌절감이 듭니다.

법무부 안이 현재 모호한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처벌 유무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는 태어날 생명과 이미 태어난 생명인 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배속의 생명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서, 이미 태어난 여성의 삶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처벌하는 건가요? 둘 중 누가 우리의 시민입니까?

낙태죄는 오로지 그 죄를 여성에게만 묻습니다. 모든 여성이 성모마리아처럼 잉태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성행위를 같이 한 건 남녀 모두인데, 낙태를 한다고 해서 '의사와 여성'만 책임을 물게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남성'에게는 책임을 묻는 법이 없습니까? 남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똑같이 여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아 제한에서부터 출산 지도까지, 국가는 '인구 정책'이라는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해 왔을 뿐, 단 한 번도 여성 시민의 몸을 그 자신의 것으로 존중하는 정책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면, 생명을 낳게 하는 여성 그 자신의 선택 또한 소중합니다. 이제 여성 시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임신 중지를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율/출생율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에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드는 것입니다. 출산이 임신의 주체인 여성에게 위협하고 부담되는 경우 자신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낙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라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낙태 또는 출산의 결정 그 어떤 것을 택하든 이후 안전하게 낙태 또는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세분화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종교계의 반발로 정책 입법 추진에 난항이 생기는 것 자체가 년센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교가 없습니다. 인권은 그 어떤 종교적인 이슈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잉태한 생명을 낳을 것을 선택하셨죠. 그러나 이땅의 많은 여성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변화는 어렵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관습이나 다른 이해관계들의 눈치를 보며 바로잡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낙태죄 폐지는 세계 발전에 도태되지 않고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없애가는 데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 시민' 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 라고 생각한다면 진작에 폐지되고도 남았을 법이예요. 2020년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답답합니다.

종교 안에서 여성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 종교에서 선언하는 것들이 낮은 곳에 있

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종교 집단의 눈치를 보나요? 종교는 국민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에 내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주수에 따른 임신중지 가능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임신을 중지하려는 여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의료적인 부분과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카톨릭에서 이혼과 낙태는 둘 다 정말 중대한 악이죠. 저희 아버지는 조현병을 앓고 계신데 주된 망상이 저희 엄마의 외도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일평생을 아빠의 의심과 폭력 속에 사셨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을 알았을 때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엄마는 답했습니다. 아빠의 집착과 의심이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했을 거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미 뱃속에 저를 가지고 있었기에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집안의 생계를 엄마 혼자 책임지셨음에도 엄마는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셨습니다. 아빠의 병은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며, 약을 복용해도 망상의 잔가지가 뺏어나가는 것만 막을 수 있을 뿐 망상의 뿌리는 뽑아낼 수 없는 병임에도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기셨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꿈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면서도 자신을 탓했습니다. 겨우 아빠에게서 벗어난 지금에서야 엄마는 오랫동안 꿈꿔 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며 행복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만약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남자의 집착과 의심이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죄일 뿐이라는 걸 미디어에서 바로잡아줬다면, 홀로 아이를 키우거나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 여성 당사자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제도와 인식이 잡혀 있었다면 엄마의 삶은 더 일찍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모든 여성들이 신나서 낙태를 하지 않습니다. 낙태를 하는데 어떻게 즐겁고 신이나요? 낙태의 상처와 아픔은 온전히 그 여성의 것입니다. 평생 갈 아픔이지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따금씩 내 내면의 수면위로 올라오곤 합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수차례 비난하고 수차례 힐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는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왜 나만 비난하나요? 이 세상이 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두려웠어요. 이 아이를 낳게 된다면 내가 마주쳐야 할 사회의 모습이요. 나 혼자서도 살아가기가 이렇게 버겁고 이렇게 숨 막히는데 나를 쳐다볼 그 시선들 - 내가 마주해야 할 수많은 좌절들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마주해야 할 아이의 삶의 무게도 생각났어요. 이 세상은 그 아이보다 큰 나도 견디기가 힘든데 그 작은아이가 마주해야 할 무게들을 내가 알면서 어떻게 낳으려고 했겠어요.

생존을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한 선택이에요. 한번도 잊은적이 없고 여전히 너무 아파요. 그런데 사람들은 손가락질 해요. 왜 나만 비난받아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더욱 철저히 숨겼어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오히려 묻

고 싶어요. 내가 아이를 낳길 바랐다면 최소한 내가 혼자 낳고 살아도 괜찮은 사회가 보장되었어야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왜 나한테만 모두 나뻐데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줘요? 안그래도 여성이라 취업하기 힘든데 내가 애까지 낳으면 내 취업을 국가가 책임져줘요? 만약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안주면 국가가 이를 받아주나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왜 무조건 나보고 나뻐데요? 왜 나만 나쁜 사람이죠? 여성의 사회적 생명권은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왜 뱃속 태아의 생명권을 물어요?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 바깥에 있는 여성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치 않았어요. 제가 낳고 싶지 않았어요. 낳으면 내 사회적 생명권이 끝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5주라서 세포 분열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건 생명 아니고 그냥 종양제거 하는 거라고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사진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털고 싶어서요. 그 의사선생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가지 못했을 꺼예요.

지금도 이렇게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모든 낙태한 여성을 비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굳이 우위를 정하고 싶진 않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보다 오늘을 살고 있는 한 여성으로서의 내 생명이, 내 삶이 덜 중요한가 봐요. 뱃속에 있는 아이나 나나 모두 살고 싶어서 그런건데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난 아이만 낳아서 국가의 출산율만 올리면 되는 자궁이란 것을 오늘도 국가가 이렇게 말해주네요. 여성인권 신장은 무슨, 자궁주체에 말이 많았어요.

신앙과 마찬가지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는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의 자유, 임신중단의 자유를 행복추구권에 넣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를 어떻게 믿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육비 지급조차 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국가와 주변에 알리는 것이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성폭력임을 입증하지 못해 합법적으로 낙태하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한 명의 시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낙태가 자유롭고 흔한 일이었던 과거를 까맣게 잊기라도 한 듯한 현재 정부가 의아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한 건지 의아합니다.

"임산부입니다 그 축복이라는 임신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 임신은 병이 아니라서, 입덧약도 비보험인 이 세상 속에서- 남성이 임신한다 하더라도 안일하게 '축복'으로 여기라고만 할 지 궁금해졌습니다 임신도 낙태도 그것이 가능한 자(여성)의 선택입니다. 무자격자의 목소리들 들을 필요 있습니까. 그 축복이 삶의 질을, 직장을, 목숨을 잃게도 합니다. 목숨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무자격자들은 좀 빠져! 낙태죄폐지 찬성합니다"

'저출산' 요즘 문제이고 고민이기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낙태죄' 라는 것을 받아들이심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물가도 치솟고, 집 가격이 올라 내집 가지기도 힘든, 이제 개천에서 용나오기 힘든 사회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납득이 될 만한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당연히 인권이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되고, 반발이 일어나며 '성관계'라는 문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싸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아니 애초에 위에 나열한 문제들로 이미 저출산의 이유가 나왔네요? 혼자 살기도 힘든 사회에서 부부가 되어도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입니다. 이 문제는 여성이 낙태를 해서 저출산이다! 가 원인이 아닌 거죠. 또 사회적인 제도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켜질까요? 아직 사회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없는 회사가 많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미 군대 다녀온 남성들은 알지 않습니다. 하던 일을 1년, 2년간 설 경우,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경우 얼마나 타격이 큰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다 해도 경력단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여성들은 더더욱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막는 것 또한 반발을 일으켜 싸움을 조장하다못해 여성들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구요. 이것 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론은 '낙태'는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는 그저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고자하는 법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동의합니다

천주교인 모두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성직자가 될 수 없는 보수적인 천주교회에서 발언의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여성 신체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아닌 개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개인권에 대한 이해도 없으며 위정자로 나선 겁니까? 국민의 수준이 정치인의 수준이라는 명제가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과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이나 잘 하세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현안으로 나와야 하는 수준의 의제입니까? 낙태가 죄라는 생각 자체가 인권 탄압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도구가 아니므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낙태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낙태를 합법화하여 어떠한 이유로 낙태가 이루어지는지 조사하여 낙태율이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청소년들에게 낙태 동영상만 트는 것이 아닌 성관계,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한 자세하고 현실성 있는 성교육을 강화하여 원치 않는 임신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시대에 따라서 언제나 다른 출산율 조정 정책을 써왔습니다. 지금이야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뭐든 하고 싶겠지만 불과 삼사십년 전만 해도 국가는 아이를 한명만 낳으라고 권고하다 못해 직접 낙태버스까지 운영하곤 했습니다. 여성의 몸이 이렇듯 국가에 의하여 멋대로 조정될 수 있는 물체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필요하면 낙태를 권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겠어요? 미혼모, 사회적 취약 계층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며 겪게 될 고통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놓지 않고서 오롯이 여성에게만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지게하는 국가가 답답합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과 여성 지원 정책,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같은 부담을 지게하는 법률이 우선적으로 생기지 않는 한 낙태죄는 무조건적

으로 여성차별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죄가 낙태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건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존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남용'할 거라고요? 낙태가 무슨 사마귀 떼어내는 수준도 아니고, 자기 몸 해쳐가며 낙태를 반복할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을 구속하기보다,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비혼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 임신 14주 이내, 불가피할 경우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이라는 아주 기만적인 내용으로 낙태죄를 유지하여,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낙태죄라니요? 낙태를 한 여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니요? 여자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만든 남성들에 대한 처벌, 원치 않는 임신중단을 하게 만든 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여자들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요? 낙태죄가 폐지되면 출산아보다 낙태아들이 많아져서 인구수가 줄어들게 될까봐 걱정되신다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낳고 나면 엄마가 다 돌보라고 하고, 국가는 얼마 되지도 않는 수당이나 퍼주면서 나몰라라 하시죠? 이 정부는 그런 정부예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생명 소중하네 어찌네 이러시지 마시고, 제발 태어난 아이들부터, 살아있는 여자들의 생명부터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먼저 챙기십시오.

낳기만 하면 알아서 잘 자랄 것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고 임신중단은 금지하라고요???" 차우세스쿠 통치 시절 태어난 차우세스쿠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낙태를 하는 여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진 않을 겁니다. 살사 낙태를 하는 여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도 그것은 강간이든 강제 임신이든 피임 실패든 원치 않는 임신이 는 것일테죠. 낙태를 하는 여성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원인들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구요. 결국 낙태는 여성의 몸에 행하는 수술이니 그 고통과 부담은 오로지 여성만 떠안습니다. 낙태죄가 없어졌으니 신난다고 낙태할 여성은 없을 거란 소리입니다.

낙태죄는 낙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낙태죄가 있어도 낙태가 계속 되어왔다는 수많은 숫자가 그를 반증합니다. 낙태죄는 낙태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을 벌하기 위한 악법입니다. 그 어떤 법도 인간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혼자 만듭니까? 임신은 남녀 결합으로 하는 것인데 어찌서 여성만이 벌을 받습니까? 함께 아이를 만들고 낙태하게 방조한 남자는 왜 함께 벌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낳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님에도 낳는 사람만 처벌받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어린이는 보호하지조차 않으면서 태어나지조차 않은 태아는 보호하고 싶어하는(이게 정말 보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우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세요. 단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에 대해서요.

'여성 시민' 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 라고 생각한다면 진작에 폐지되고도 남았을 법이예요. 2020년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답답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 우리(여성, 페미니스트)의 목소리가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뀌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낙태죄 폐지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지우는 것을 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태아를 임신한 여성들은 왜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을 지킬 권리가 있고 살 권리가 있으며 아이를 키울지 말지 또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를 같이 만든 남성들에게도 낙태죄가 성립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바뀔 때이며 낙태는 살해가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성들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법을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 사법부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호주제 폐지 당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망했었나요? 평등한 길은 많은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옳은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낙태가 죄라면 한 여성이 낙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게 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신은 여성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낙태금지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 역시 꾸준히 제기되었고 그 실효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낙태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단죄할 수도 없습니다. 폐지하세요.

임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낙태죄는 왜 한쪽 성별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정부는 여성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고 싶다면 성범죄와 성차별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드러내놓고 말하 는게 우리사회에서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폐지의 이유를 소리 높여 외쳤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낙태죄 폐지의 길이 열려서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이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을 설마 정부가 꺾진 않으시겠죠. 낙태죄 폐지는 여성들이 너도 나도 낙태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낙태를 하는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019년 4월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의 날, 2020년 12월 31일은 낙태죄 완전 폐지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12~14주 안의 임신중단 허용은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생리주기가 일정한 여성은 생각보다 드물고, 일정했던 여성도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한 두 달 건너뛰는 것도 예삿일은 아닙니다. 결국 12주 내지 14주는 입덧이 시작될 무렵이며, 이 시기에는 이미 임신중단이 불가능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16~20주까지 낙태허용을 하는 것은 그 기간 안이 산모가 충분히 임신사실을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체에 큰 데미지 없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작 3개월가량

의 기간만을 허용하는 것은 되려 국가가 개인에게 아량을 베푸는 척 하며 삶의 질을 저하할 수 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이란 게 뱃속이 아니라 팔뚝에 보이는 거라면 어떨까요. 한쪽 팔뚝이 기존보다 네 배 가까이 부풀어 오르니 당연히 일상생활도 힘들겠죠. 거기에서 태동도 느껴지고 무게도 3kg 가까이 되어서 척추도 휘고, 호르몬 변화도 생기고... . 아이를 낳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일이 아니고, 신비로운 일도 아닙니다. 여성의 몸에 생길 무리를 조금은 실질적으로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결국은 여성입니다. 그들의 결심을, 그렇게 낳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나길 응원하기 위해서는 하지않을 권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종교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대한민국의 정책과 법률이 국민의 생명과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종교의 권위를 위해서 종교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법치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부정하고 중세로 회귀하고자 함에 다름아니다. 여성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며, 인간의 권리이다. 정부는 귀를 열고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낙태가 죄라는 이유로 막기만 한다면, 불법 수술의 후유증으로 피해를 입는 여성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몸의 자유를 더 이상 침해하지 마십시오. 내 몸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

낙태죄가 체제 유지에 정확히 무슨 이바지를 합니까?

낙태죄, 폐지가 정답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카톨릭 신자로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이미 위헌이 난 법을가지고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고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하십시오

하느님이랑 dm 끝냈습니다 낙태죄 폐지하신다고 하네요...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합니다.

낙태죄 폐지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길

시민이 그 몸을 갖고 태어난 이상 그 몸을 어떻게 할 지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의 주체적인

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게 국가가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사태에 대한 미진한 대응, 낙태죄 폐지 거부를 통해 여성에게 너희는 2등시민이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게 아니라면, 사람에 대해 고민하고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한 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낙태죄는 전면 폐지로 결정해야 하우것입니다.

여성을 여성으로 존중하라.

낙태는 권리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어떻게 살인하겠습니까? 태아의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될 수 없습니다.

여성이 언제까지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받아야 합니까?

낙태죄를 폐지하라

내 몸의 주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성도 국민입니다

임신중지는 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원치 않는 출산을 정부가 방기하면 결국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를 양성하는 꼴이 되고,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주세요.

낙태죄 폐지는 인권입니다

낙태죄 만들어낼 생각하지 말고 성범죄 처벌이나 제대로 해라!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왜 성 감별 낙태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만히 있고 1970년대 이전에는 인구 조절한다고 사람 잡아다 강제로 낙태했으면서 이제 와서 인구가 원하는 대로 조절 안 되니까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합니까?

여성 국민을 생각한다면 낙태죄 폐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셨음 합니다.

임신중단은 권리입니다.

헌재 결정 났음 빨리 일 합시다 진짜.. 질질 끌지 말고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라고 판결을 했는데 무슨 주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 내어서 퇴행을 하려고 합니까. 국민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데 왜 발목을 잡겠다는 건가요! 낙태죄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정부가 종교의 눈치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 구성원 개개인이 하나의 교회이고 절이니까요. 종교 핑계를 대며 낙태죄 완전 폐지를 비롯한 여러 여성 법안에 주저하는 것은 그저 부끄러운 핑계일 뿐입니다. 여성은 종교인이 될 수 없습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정부가 눈치를 보는 '그' 종교들은 여성 없이 결코 운영될 수 없고 여성 역시 하나의 시민이자 신앙인으로서 정부가 종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좋은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성은 본인의 몸에 대한 선택권을 온전히 가져야 합니다. 낙태죄 유지시킬거면 아이를 함께 만든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으세요.

여성(소수자) 혐오, 여성(소수자)을 대상으로한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합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낙태에 대한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 낙태는 죄가 아니다.

생명에 대한 논의는 삶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낙태죄 존치론자들은 생명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자들이 생명을 논하다니, 그것처럼 모순적인 일도 없습니다. 여성의 삶을 무시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가 아닙니다.

여성에게 낙태죄를 물으려 하지 말고 양육비 미지급 친권자 처벌을 강화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제도를 더 꼼꼼하게 마련하세요.

내 몸과 행동을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내 몸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도록 해주세요.

정부가 여성 또한 국민으로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길 바랍니다.

폼수쓰지 말고 전면 폐지하라

14주고 뒹고 출산 직전까지 태아에 대한 권리는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놈의 숫자놀음때문에 태아를 이유로 제 권리를 제한하지 마세요.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혼모 지원도, 아동 성범죄자 처벌도, 남성의 양육비 지원도 그 어느것도 반쳐지지 않은상태에서 여성의 선택권만을 묵살하는 법을 폐지하십시오. 양육이 가능하지않은 상황에서 자란 아이는 불행합니다. 또, 그 책임을 오롯이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불합리한 법 대신 함께한 남성에게 역시 책임을지도록 할 수 있는 법을 만드십시오.

전면폐지가 어려움은 알지만 14주는 너무 짧습니다.

여자와 의사가 처벌받아야 하는 죄인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죠? 낙태는 여자가 의사가 돌이 하는거라??? 이상하죠... 임신은 여자 혼자하는게 아닌데 말이에요

낙태죄 폐지하세요. 이상한 조건 붙이지말고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임신의 책임을 무는 여성차별적 정책을 그만두십시오.

그냥 폐지시키세요. 호주제도 폐지되었고 사회는 잘 돌아가요. 시대가 낙태죄 폐지를 원합니다.

여성에게는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낙태죄의 위헌 결정은 낙태죄 그 자체를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12주라는 기간은 낙태죄 존치와 다름 없는 결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낙태죄 없애는 척, 성범죄가 불법인 척, 모성보호를 하는 척만 합니다. 국제 사회에 부끄러운 줄은 알지만 여성 인권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무엇이 인권 신장인지 인권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모르거나 그것이 싫기 때문이겠죠. 싫어도 세상은 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인의 호오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나요?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출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자도 사람입니다

낙태죄는 폐지하고 대신 낙태가 필요없는 사회만들기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몸내맘ㅎ

낙태죄폐지를 향한 행보들 지지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낙태죄를 반대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낙태죄는 폐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요.

이미 태어난 수많은 여성 생명들이나 잘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에 창성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여성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성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낳지 않을 권리는 여성이 원하는 상황에서 낳을 권리와도 맞닿아있습니다. 안정된 경제력과 사회적인 기반을 갖춘 후에 낳을 수 있었던 아이를 어리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낳은 후 빈곤과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서 두려움만 갖고 살아가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낙태를 유죄로 단정짓는 것은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여성의 신체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180석으로 하는게 없네.

출산에 대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낙태죄 폐지 해주세요! 낙태죄 존속은 이미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낳아놓는다고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자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살아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하는 방법이나 찾으세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합니다.

여성의 권리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내 몸의 자유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낙태죄, 무조건 폐지되어야합니다!

천주교 신자의 낙태죄 폐지 선언이라니, 저만 이 생각을 하나 했는데 이런 행동이 시작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동참합니다.

낙태죄 폐지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슬픔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 여성도 시민의 권리를 똑같이 가져야 합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안전한 임신중단 방법이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강력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고 천주교 신자입니다 / 출산율에 얽매어 여성의 삶을 한 방향으로 내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어쩌서 그 생명을 포기하는 모체에게만 벌을 주려 하시나요. 부체와의 결합이 없다면 모체가 어찌 생명을 가진단 말입니까. 그러니 그 법은 평등성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지금도 고조선 제정일치 사회도 아닌데 정교 분리가 된 국가에서 한낱 종교 교리에 휘둘러서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논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정치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 입장 아래에 깔린 근거는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고싶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더 신경쓰세요

제 몸의 결정은 제가 하게 해주세요

형법으로 판단하지마라! 여자도 이성을 가진 인간이다

내 몸에 대한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성의 행복과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아기도 행복하게 태어날수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인격체인 사람으로 태어났고 행복한 삶을 선택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낙태를 국가의 법으로 단죄하는것은 낙태율을 낮추는데 영원히 기여하지 못할것입니다. 낙태죄보다는 낙태를 사전에 막기위한 여러 교육과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죄로 법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낙태를 방지하기위한 교육(남성/여성의 성교육 책임감 강화..등 성을 사고팔고 성관계를 쉽게생각하는 것을 바꿔야함)아기를 낳을수 있는 정책(책임지지않는 한쪽 부/모의 양육비 지급, 등)과 환경이 뒷받침되었어야 할것같습니다.

모든 여성에게 안전하고 자율적인 재생산권이 주어져야 한다

정부는 들으시오.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정부의 책무를 '종교'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방기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의 평등과 자유를 주창하신 하느님의 가르침에 부디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라

위헌결정까지 나왔는데 허용기간 이후의 낙태는 처벌받는다는데 말이안되요. 완전하게 폐지하고 선택권은 온전히 여성에게 주어져야합니다

반드시 폐지되었음 좋겠습니다.

우리모두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종교에 따라, 신념에 따라 여성몸에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임신을 중단할지 유지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배속생명의 가치를 더 크게 둔다면 임신유지를 선택할 수 도 있고, 모체의 결정과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가치를 크게 둔다면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도 있어야합니다. 종교인이라고 모두 낙태를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임신을 유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주세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도 국민입니다.

내 몸의 결정권은 내게 있다.

낙태죄로 인해 고통받아온 교회 안의 수많은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 고통을 끊어낼 때입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포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신자의 신체와 선택권이 더욱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에 따라주십시오. 동료 시민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온전한 결정권을 주십시오.

내 몸은 내 것 입니다. 나라에서 결정 할 수 없습니다. 낙태는 최악이고, 임신부를 해하여 태아를 해치는 것은 살인이 아니고. 이중잣대 아닙니까.

모태신앙으로 온가족이 성당을 다니고 있는 페미니스트 신자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후퇴는 없어야 합니다. 교회를 방패삼아 여성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은 여성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The government and religion should be kept separate in all situations. The abolition of

the adoption system, particularly the intercountry adoption industry facilitated by Holt Children's Services 홀트아동복지회, Eastern Welfare Society 동방사회복지회, and Social Welfare Services 대한사회복지회, would be a step to ending the adoption industry which is entangled with Christian evangelical beliefs and has outsized influence over the child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in South Korea. That system is misogynist and against poor families, especially those headed by unwed mothers. It also has kept the welfare system underdeveloped and stifled innovations in social welfare in South Korea.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며 나는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온전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라

"낙태죄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법 상 태아의 권리관계는 태어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태아의 인권에 대한 헌법적인 근거를 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남용의 우려와 인권의 문제라면 응당 현재 당사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선 아닌지요. 매우 어린 나이에 범죄 혹은 실수로 아이가 생길수도, 성인의 몸이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범죄의 상흔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받습니다. 물질적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흔마저 지우고 있는 낙태죄가 어떻게 인권을 위한 길일까요?

낙태죄의 영역과 책임, 남용에 대한 강경한 형사처벌이 우선해야 할 것이지 낙태죄 처벌을 통한 것이 수순인지 의문이 듭니다. 모쪼록 긍정적인 현황 유지하며 발전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여성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아니었나요? 14주라니 말갈지도 않은 소리하지 마세요.

정부는 대한민국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무턱대고 낳는다면 사랑으로 성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남성신자와 신부님과 교황님은 전부 모르시겠죠

2020년입니다... 2020년이예요. 낙태는 죄가 될수 없어요.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감히 법의 이름을 대고 죄를 묻는것을 중단해주세요

여성을 아기를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원한다면 내 몸의 세포는 제거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우선시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아기를 함께 만든 남성도 벌을 받아야하고, 나라가 키워주지도 않을 아이를 강제로 출산하도록 하는 구시대적 악법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일부에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듯 양 과대 대표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의 판결 취지를 살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행정을 꼭 보여주세요.

자유롭고 안전한 낙태를 하여

여성의 자궁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것이다. 정부는 낙태죄 폐지를 속히 이행하라.

여성 몸의 권리를 보장하라

낙태죄를 여성에게만 묻지 말고, 쌍방의 책임으로 돌릴 것. 정 안되면 미혼부 책임법이라도 만들어달라.

꼭 폐지하여 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입법, 개혁에 더 초점을 맞춰주세요

낙태죄 폐지를 선고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무를 다해주세요.

"그렇게 수정된 배아가 중요하고 소중하시면 살아 있는 사람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살아 있는 사람은 퐁처럼 대우하면서 여자 몸 속의 배아는, 태아는 소중하다고 외치는 것이 꼭 앞으로 쓸만한 노예가 태어나길 바라는 노예상인 같아요. 내 몸의 결정권은 내게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언제까지나 버티고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며, 이는 당연히 지켜져야하는 인권입니다. 태아를 독립된 생명으로 인정할수 있을지 여부는 과학자들도 이견이 있는 상태이고요. 태아를 유산시킨 범죄는 살인죄로 안치면서 왜 낙태는 죄여야 합니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누구를 위한 평등한 사회입니까. 더이상 여성들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 대단하신 정치를 여성들이라고 못할 것 같습니까? 정신 좀 차리길.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사회입니다. 왜 가톨릭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페미니스트 여성신자로서뿐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써 여성의 몸에 과도한 참견과 간섭은 부당합니다. 임신중절이 허용되면 문란한 성생활을 해서 계속 중절을 할거라는 어불성설을 믿고 있는 어른들과 사회에 의문을 표합니다.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생명체로 봐야하는지도 논쟁거리인 태아를 왜 우리 여성들보다 더 각별히 걱정하고 지키는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부디 여성의 권리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낙태죄를 완전폐지해라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제발 낙태죄 폐지. 여자가 애낳는 도구냐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남자는 왜 책임이 없냐고요

임신중단의 비범죄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여 개별 여성들에게만 쏠리고 있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구체적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 미비와, 여전히 여성을 삶이 있는 인격체가 아닌 국가의 출산율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인식, 임신중인 여성 및 산모와 아기에 전적으로 그들의 건강은 물론 윤리적,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사회적 책임전가, 그리고 산모와 아이를 여전히 사회적 비용으로만 보게 만드는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사회 분위기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왜 여자들을 살인자라 칭하고 싶은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여아 낙태시키던 그 손으로 꼭 낙태죄 폐지 해 주세요. 후회한다면 더욱 해 주세요.

내 안에 생겨난 일을 당신들보다 당연히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가볍게 생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차를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시하는 기간은 임신을 인지하고 낙태를 결정하기에 너무 짧습니다.

내 몸과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나의 몸, 나의 선택! 이제 그만 후지게 굽시다!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낳을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지금 있는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낳

으라고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제 포궁 운영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합헌의 결정은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갑작스러운 주차를 논하는 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특정 시기에는 존재하고 어떤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인가요?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의 결정이 아닌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특히 비혼여성들-이 출산이후에도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보호자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신체를 태아를 담는 그릇이나 수단으로 보지 않는 대신, "정상가족" 프레임을 벗어난 여성들에게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보장한다면 출생률은 지금보다 증가할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했다면 그 선언을 지키십시오.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라고 믿으며, 이 명제가 사회적으로 보장되길 원합니다.

종교계의 반발' 운운 하는 걸 보고 있자면 지금 내가 사는 나라가 제정일치 국가인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부족장이었나 싶습니다

페미니스트 크리스천으로서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낙태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부처도 천주교인이시죠? 여성 생존권 지켜주세요.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여성의 생명, 권리 없이 새 생명도 없습니다.

정부가 보호하는 인간은 여성입니까 세포입니까.

종교단체의 장애에도 의견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게 신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아닙니다. 가톨릭 내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신도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헛된 걱정하기 전에 여성의 건강권을 먼저 생각하라.

임신중절권은 시민의 권리이다

바뀌는 시대에 발맞춰주세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낙태에 대해 정부는 이 나라는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권리를 억지로 행사하는걸 그만두세요.

인권은 모두 평등하다. 내몸은 내마음대로.

제대로 폐지하십시오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몸에 대한 결정권은 그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8,90년대생 여성들에게 미안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요. 남아 선호 광풍에도 간신히 태어난 이들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 주세요. 그때 뒷짐지고 모른 척 했듯, 앞으로도 참견하지 마세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현실을 보고 법은 바뀌야 한다

낙태죄 제대로 폐지하십시오.

수많은 여아들이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되길 강요받을 때는 침묵하던 정부는 왜 여성이 건강과 자신의 삶을 위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자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드는가

이미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낙태죄는 엄연한 불평등이고 이로인해 후퇴되는 여성의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신생아 출생률이 떨어진다면서도 근본적인 이유는 찾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주체인 여성을 억압하는 시점에서 낙태죄는 말하기 쉬운 법안 중 하나겠지요. 여성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본인의 몸을 함부로 하는 존재가 아니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삶을 살아가는 인격입니다.

여자만 처벌하지 말고 원흉인 남자를 처벌해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흔히 낙태죄가 폐지되면 너도나도 낙태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태수술, 낙태약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를 압니다. 팔을 붙이는 수술이 합법이라고 일부

러 팔을 부러뜨리는 사람이 없듯이 낙태를 하기 위해 일부러 임신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미래를 조절하기 위한 피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 부족입니다. 낙태죄는 단순히 억압의 요소로만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주수 제한 등 위헌 취지에 맞지 않는 조건을 덧붙이려는 생각 말고 이번에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

여자의 삶과 몸에 대한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규정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만큼 이미 태어난 여성 시민을 존중해 주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어려울것이없고 이해하지못할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지만 우리나라의 국교는 천주교도 개신교도 아닙니다. 사사로이 휘두르는 것이 하느님입니까 돈입니까?

임신중지에 대해 죄냐 아니냐를 법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겪어내는 것은 여성이고 그 결정권은 여성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부족이라는 변명으로 여성을 죽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임신과 출산을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돌렸다면, 그에 대한 선택도 온전히 들려주세요.

왜 임신을 해야 하고, 왜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여성도 인간입니다.

현실 반영 하세요.

저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종교가 현실의 법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종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요.

꼼수 없이 낙태죄를 폐지하라.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닙니다 제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인이라고 낙태에 대하여 반대만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비겁하게 굴지 말고 하루빨리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천주교 신자가 모두 낙태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협상의 매개물이 아닙니

다.

천주교 신자의 표를 위해 낙태죄로 협상하지 마세요.

저도 크리스천이지만 여성 시민이기도 하며, 스스로의 몸에 일어나는 일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지금 여성들은 더 이상 눈감지 않습니다.

내 몸 내 선택

낙태죄 전면폐지

해은 게 옳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옳은 거지.

크리스천이기 전에 이 나라의 여성 시민으로서, 아직 온전한 인간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배아 및 태아보다 여성 시민의 목숨과 인생이 더 등한시 되는 듯한 느낌이 분명합니다...

옛날 그때 그 시절의 젠더의식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원하나요?

생명존중! 완전한 낙태죄폐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원치않는 임신을 한 당사자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생명이 중요하면 모든 전쟁을 반대하세요. 모든 무기를 없애라 외치세요. 누군가의 희생 따위 안에서 없으면서 생명을 외치지마세요.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성시민으로서 여성을 2등시민으로 간주하는 세상에 더이상 살고싶지 않습니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낙태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여성도 인격이 있는 사람임을 잊지마시길

제 몸은 제가 지킵니다.

여성은 아이낳는 기계가 아니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는 단순한 여성문제가 아니다. 생산성만을 위해 여성을 죽음의 굴레로 몰지 말라.

여성국민의 삶을, 행복할 권리를, 선택을 지켜주세요.

낙태는 법으로 단죄할 수 없습니다.

종교 눈치 본다는 헛소리 그만하고 국민 인권과 건강을 챙겨라.

내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자도 국민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합니다

여성은 자궁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하기 이전에, 개인의 신체에 대해 본인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시민임을 인지하고 인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도 실수라고 해주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선택하려는 여성에게는 죄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건가요

14주든 24주든, 여성 자기결정권을 개무시하네요. 우리가 임신하면 룰루랄라 낙태하러 갈 거 같나요?

제 몸은 제 것입니다. 제 몸에 하는 행동을 어찌 누가 죄로 규정하나요? 여성은 도대체 언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나요?

신앙인들이야 그렇다쳐도 무교인이 많은 국가에서 그들이 종교의 입김 때문에 낙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신앙인인 저조차 난감할 뿐입니다.

임신의 시작, 유지, 중단은 오롯이 여성의 자유입니다.

종교는 인권을 대신할 수 없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여성입니다. 신체적 제약을 얻게 되고, 여러 후유증을 동반하며, 출산 후에는경력 단절 등의 사회적 문제로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이 멈추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이상 우리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폐지하자 이제 좀.

My Body My Choice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낙태' 또한 여성이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한다면 언제 하시나요? 여성의 일이라 여전히 뒷전인가요?

여성은 여성의 몸을 여성의 의지대로.

사회에서 책임져 주지 않을 행위를 개인에게 떠밀지 마세요.

현재 여성들은 수많은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범 조차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N번방이라는 사이버 범죄 또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척 진행되더니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문제의 원인들은 전혀 개선 되지 않아 아직도 위협에 노출 된 여성들과 미성년자들이 넘쳐납니다. 그 이외에도 여성혐오 범죄들의 여러 사유나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의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허다한데 어느 누가 범죄의 심각성을 알까요? 반대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엔 비슷한 상황임에도 엄중이 내려지는 과연 이 형벌을 내리는 사람들은 성별에 묶이지 않고서 올바른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맞나요? 성별에 묶여 '남자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에 속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요? 권력에 무릎꿇어 가해자들을 숨겨주지 말고 모두 색출해내어 여성 인권에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사이버 성범죄 또는 여성 혐오 범죄, 성범죄 등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감싸져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인권 또한 남성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태아도 생명이니 같은 헛소리는 집어치우세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세요. 니 일 아니라고 생명권이 어찌고 같은 말 쉽게 하지마세요. 낳으면 국가가 책임질 건가요? 최소한만 생각하더라도 N번방 범죄자도 다 처벌받지 않았고 성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라고요? 내가 살기도 무서워 죽겠는데.

2020년도 다 갔는데 여전히 무슨 허용 기간을 정하네 어찌네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 별 논리도 없이 몇십 년 질질 끌었으면 이제 깔끔히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요?

무조건적인 낙태죄는 옳지 않습니다.

제발 제에발 성범죄 처벌 형량이나 좀 높여주세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의 생명권(생존권)을 단디 지켜주세요

내 몸에 대한 선택을 할 권리, 안전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보장해 주십시오.

당신의 몸이 아니라고 당신의 인생이 아니라며 마녀사냥하며 낙태한 사람을 매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 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이런 선택까지 하게 됐는지 다 아시는가요? 알고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더 큰 후회와 책임지지 못할 불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없이 내린 차악의 선택입니다.

임신할 일 없는 사람들이 여성의 생식에 대해 결정지며 단죄하는 모습은 이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한이니 숙려기간이니 하는 핏수 그만 부리십시오. 애는 혼자 만들지 않지만 임신의 부담은 여성의 몸에 지워지는데, 낙태되는 그 부담을 감당하지 않는 남성은 내버려두고 부담을 불균등하게 짊어진 여성만을 처벌하겠다는 반인권·반성평등 악법입니다. 조건없는 무조건 철폐 외의 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평등하게.

언젠가 엄마가 저와 언니 사이에 두 명이 있었다고 그 둘을 위해 늘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길 듣고서야 지금과는 다른 그 시대를 피부로 와닿게 겪은 것 같아요. 친한 동생이 혼자 힘들게 의사를 찾아 낙태를 해야했던 경험도 제게 진하게 남아있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선택으로 지탱하고 있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21세기이니 제도를 개선해 의식의 진일보를 이뤄나가야 마땅합니다.

인간이 되지도 않은 유아 이전에 이미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왔고 살아갈 제가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낙태죄 완전히 폐지하라!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부에는 별다른 기대가 없다. 바뀌어야하지만 외면해온지 오래다.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 인간의 권리를 챙긴다며 정작 하는 일은 남성의 권리만을 옹립하고있다.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부터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과거에 묶여 해방을 유예하지 말라.

모든 생명이 그렇게나 소중하다면, 어찌하여 생명을 빼앗겨버린 안타까운 성범죄 피해자 자매

님들은 지지해주시지 않으셨나요...? 세상을 떠난 자매님들은 당신들에게 생명이 아니었나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조차 주어지는 생명의 존엄성이 왜 여성에게만은 유독 얽은 것처럼 느껴지는지요. 여기 어디에 평등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들어질 예정인 그 무언가보다, 이미 존재하는 생명을 더 위하세요. 죽어나가고 고통받는 여자들을 생각하세요.

교계의 반발이 두려워 정작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굉장히 유감스럽다.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더이상 다수결에 부치지 않길 바란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은 개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잖은가.

대신 낳아주고 대신 키워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임신 중지를 선택하여 고군분투하는 여성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여성도 인간이다

낙태죄 폐지와 함께 양육 의무자가 양육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 규정을 신설 해 주세요. 이미 태어난 애들이나 잘 돌보세요

낙태가 활발히 시행되던 때에는 가만히들 계시다가 왜 이제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내 몸은 나의 것이고,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진정한 축복일 수 있게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세요.
출산과 양육이 진정한 축복일 수 있게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세요.
출산과 양육이 진정한 축복일 수 있게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세요.
출산과 양육이 진정한 축복일 수 있게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세요.

성범죄 정치 행정가들부터 처벌해라.

선택의 권리! 함부로가 아니다!
낙태죄 폐지에 동의합니다.
남의 신체에까지 정부가 간섭하지 마세요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결 났을 때와 지금의 온도차에 다시 실망합니다.. 시대와 여론을 따라갈 수 있는 법 개정을 바랍니다.

낙태죄를 여성과 의료진에게만 적용한다는 것부터 모순이지 않습니까? 생명 잉태의 실질적 기여를 한 남성은 비겁하게도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서도 낙태죄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들의 하느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분이었나요? 책임 전가를 위해 종교와 신을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하여 여성의 인권과 건강 보장하라.

여성인권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고 후퇴가 아니라 진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낙태죄 폐지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한 인간으로써 내 몸을 지킬 의무 중 하나이다.

평등이 뭔지 다시 생각해주세요.

현재 판결을 무효화하지 말라!

본인의 몸에 대한 권리는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낙태는 자기 신체에 대한 여성의 권리 행사이며 그것을 굳이 죄로 물겠다면 남녀 모두에게 죄를 무는 것이 합당할것입니다.

조금만 더 여성의 입장에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살았을 수도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변화할 때가 됐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 처벌할 생각 말고 만들어놓고 도망 가는 남자들한테나 벌금 세계 때리시죠 애들 교육 과정이 피임 잘 가르치고요 포르노로 애들이 섹스를 배우지 않게 해주시고요

언제까지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들의 이야기만 들을 생각인가요?

여성의 선택을 인정하고 응원하고 지지합시다.

여자도 좀 살자.

내 몸 내가 알아서 할게. 너들도 너들 할일이나 잘해.

낙태를 죄로 규정하면서 얻으려는 것들은 결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낙태죄 제한 없이 즉각 폐지하라!

한국은 특정종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발취하여 자신들이 맞다 주장하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이용하는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보편의 가치에 기반하여 나라 운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낙태죄'의 근거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생명을 버리기 위해 낙태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뿐입니다. 성이 이 나라의 주체적 국민이라는 것을 입법으로써 증명해주세요.

모든 여성은 자신의 임신 유지에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해 주세요.

범죄나 무지에 노출되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존속을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아 아이보다는 자신의 삶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태어날 아이의 인생도 망가지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는 폐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 시민으로서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남성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은 한인간의 선택이어야 하지 정부나 종교에서 강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이나 산모가 생명의 위협 속에서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을 어려운자들의 몫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교회가 보살핌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보여 줄 수 있고 그 환경은 좀 더 많은 자의 용기를 건강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정부와 교회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좀 더 손쉬워 보이는지 정책으로 모성에 대한 죄책감을 무기로 만든 것입니다. 여성에게 그것을 원했느냐 묻지도 않고요.

특정 종교, 가치관, 신념을 넘어서 헌법의 정신을 살리는 입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인권 후진국.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여성의 신체와 삶에 대한 권리는 여성 자신에게 있다. 정부에게는 그것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아니요.

여성이 더이상 사회적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죄책감으로 소중한 스스로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아가 여성일 때는 서슴없이 낙태하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었으면서, 지금은 또 불법이 되고, 이 관념은 시대에 따라 나중에 또 바뀌게 되겠지요. 이미 태어난 사람부터 존중해주시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헌재에서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기어이 존속시키는 정부 대단하네요. 이제 출생률 더 떨어질 듯~

현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엄중히 수용하고 낙태죄 전면 폐

지를 위한 해야 할 모든 일을 하십시오. 국가가 여성을 남성과 똑같은 국민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태아생명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듯 낙태죄 또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라는 종단적 현상 말고 낙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출생후 산모와 아기에게 미치는 횡단적 현상과 그에 기인하는 사회구조를 보면 가장 취약한 이들과 함께 해야하는 종교계의 역할은 분명해보입니다.

대체 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시나요. 낙태죄로 인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을 봐주세요.

제발 여성인권엔 좀 힘쓰세요 조두순 사회 방출 손정우 한국체류 뭘니까? 부끄럽지도않으세요 당신의 자녀가 피해자가 되어야만 손을 쓰실건가요.

중요한 시기마다 눈치보다가 교회에 묻어가지 마라. 여성시민은 국가와 사회를 살리는 중요한 존재들이다. 그들의 선택권에 태클 걸지마라!

동등한 여성시민을 억압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낙태죄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국가는 오직 국민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할 권리만 있다.

여성엔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낙태죄 완전히 폐지하십시오.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님.

여자도 시민이다.

천주교는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데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낡은 논리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타인이 폭행으로 유산시키면 태아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해죄도 적용시키지 않는데 왜 임신부가 자기로부터 독립된 개체가 아닌 모체의 일부를 인공유산시키는 것에는 죄를 묻는가? 보건법으로 산모의 건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과 의사에 반한 임신중단, 폭행유산을 특수상해로 규정하는 것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신중지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멈춰라.

낙태죄 폐지는 교계 인사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과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4주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책임지지 못할 아이를 출산해서 국가가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계획된 임신으로 낳은 아이들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올바르게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체 왜 계획되지 않은 아이까지 낳아야 합니까? 임신중단수술을 받은 여성을 왜 처벌해야하고 그로 인해 얻는 사회적 이득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왜 임신의 절반의 책임을 진 남성은 처벌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애를 낳는지 차라리 진짱뽕을 끓여먹지.

어쩌다 태어나보니 대한민국이었을 뿐, 이 나라에서만 낙태가 금지되어 범죄자가 될 뿐입니다. 멀쩡하고 결백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지 마세요.

일단 낳게 한 다음에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교단입니까? 교단이 아이를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우며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길러줍니까? 일단 낳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무책임합니다. 여성의 동의없이 강간 당해 생긴 아이는 낙태하도록 허용해 준다는 점에서 천주교는 이미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신체에 관한 권리는 타인 혹은 국가가 아니라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이 그렇듯이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원합니다.

여성도 인간입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를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왜 여성들만 그 고통과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혼자 임신하는 게 아니라고들 하면서 왜 혼자 고통과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여태까지 여성만 처벌했던 것처럼 남성만 처벌해야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리가 먼저 인가요 인권이 먼저인가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낙태가 죄라면 남성에게도 공동 적용돼야지 왜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죠. 낙태는 여성만의 책임과 죄책감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선택하는 것이고 마땅히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낙태는 제 3자가 허용불허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임부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태죄는 낙태를 막는 법이 아닌 위험한 낙태로 몰고가는 법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임부의 안전과 합당한 권리를 위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주세요.

임신중절을 국법으로 금지해 죄로 다스린다는 것은 출산장려 정책의 뒤틀린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8-90년대엔 국가가 권장해온 선택적 임신을 이제와서 금지시킨다는 것도 우스운 일

이지만 출산이 임신중절 금지로 확대될거라는 망상도 이젠 효용이 없다는 것을 정책결정자들도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낙태죄를 지정하고 운영할 행정력으로 미혼모 가정에 대한 정책, 입양아 지원정책에 대해 고민해주세요.

내 몸입니다. 남자가 아닌 제 몸이요.

여성이 자기 신체의 주권을 갖고, 위협을 느끼며 살지 않을 때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세상입니다. 구시대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아이는 여자 혼자 만드는 게 아닌데 왜 책임은 여자에게만 묻나요? 악법 낙태죄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그렇게 여성을 차별하고 싶으면 혼자 임신한 게 아닌 이상 남자도 차별 받아야합니다. 혼자 임신하는 게 아닌데 여성만 죄를 짓게 되는 구조는 이상합니다. 애초에 개인 신체에 대한 선택을 국가에서 좌지우지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여성은 국가의 필요를 위해 애를 만드려고 존재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과거에 충분히 이런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합니다.

낙태죄는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정부에서 낙태죄는 없다고 말하기 그렇게 눈치 보이시나요? 출생을 때문에 세포인 태아는 중요하지만 막상 나오면 책임조차 지지 않는 정부는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언하여 인정하라.

정부가 애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사회인식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않을거면 나대지말자.

부서들끼리 의견 좀 제대로 내세요. 그리고 기간 어찌구 지껄이는 교육부랑 문체부는 니들 일이나 똑바로 해.

더 이상의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성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낮은 곳에 먼저 힘을 실어주시리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성인권과 관련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N번방, 버닝썬, 등등 여성의 삶을 무참히 밟고 있는 또 다른 적폐들을 어찌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여성들의 눈엔 다 보입니다. 결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가 죄라면 낙태하도록 만든 애 아빠도 처벌하라.

평등한 세상을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원합니다.

동료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낙태죄는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이 불필요하며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생각 좀 하고 법을 개정하시죠.

위헌인 낙태죄를 폐지하라.

내 몸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당사자 말 좀 들읍시다 좀.

태어나지 않은 ‘생명’보다 이미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는 세상을 원합니다.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는커녕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법을 대체 언제까지 성문법에 넣어둘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낙태죄 폐지 안할 거면 남자쪽 추적, 처벌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여자한테 죄만 씌우면 다인가요? 근데 그거 하더라도 역시 낙태죄는 별로예요 지금 21세기예요.

질질 끌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여성의 온전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낙태죄 폐지에 동의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한테나 잘하세요. 아직 없는 사람한테 동정가지지 말고.

자꾸 이런 식이면 지지율 다 떨어질 걸?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저는 모든 여성이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데 참견 말고 본인 일이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존엄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종교계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남성 종교인의 목소리만 반영하지 마세요.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될 수 없어요.

코로나 초반에 이미 갈 곳 없는 아이 돌봄을 위해 연가를 소진해 이도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낙태죄 폐지만 하지 말고 낙태죄 합법화와 미프진 등의 약물 판매를 빠른 시일 내에 판매 허가하길 바랍니다.

제발 여성의 자유 좀 보장하라.

이미 헌법불합치가 나온 것에 대하여 다시 법상으로 기준을 두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재 판결대로, 폐지를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이 여성의 몸에 내리는 결정에 별을 주고싶어 하는 그 모든 생각에 반대합니다. 여성의 몸에 결정권을 가지는 자는 오로지 그 여성. 본인뿐입니다.

아직 모체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생명에 붙어있는 세포와 같죠. 그런 한낱 세포때문에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하나의 인격체가 고통받고, 또 그것을 지웠다고 별을 받는다면 그건 과연 올바른 판단이고 법일까요? 그렇다면 암세포도, 또 다른 변이된 세포들도 치료받지 말고 남겨둬야 하는 걸까요? 어떤건 남기고, 또 어떤 건 떼어내고, 치료하고.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차별금지법 통과 시키고 동성혼, 동반자법 발의하라.

14주든 24주든, 여성 자기결정권을 개무시하네요. 우리가 임신하면 물루랄라 낙태하러 갈 거 같나요?

여러모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여성들은 국민으로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도 구세대적 가부장적 가치와 신념을 버릴 때가 왔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칼을 주러 오셨습니다. 저희는 부조리한 세상과 싸워야하는 운명입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으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해 주세요.

힘들게 낳아서 어렵게 키워놓으면 침몰시켜 죽이고 포탄 맞아 죽이고 강간당해 죽이고 굶어 죽이고.....이래저래 죽이기만 능사인 대한민국 정부! 낫짝도 두껍네! 입 아프다! 폐지해라!

여자 몸은 여자 겁니다.

지금은 2020년이고 여성 개개인이 내리는 결정을 막는 구시대적인 법은 없어야 합니다.

제 몸의 세포보다 인격을 가진 제가 우선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건 남성과 여성 둘의 몫인데 어째서 낙태죄는 오롯이 여성 혼자 짊어져야 하나요? 시대는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미혼모 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주세요.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법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바뀌어야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이자 여성 시민으로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 동의합니다.

여성의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 낡고 시대에 맞지 못한 법은 바뀌야 한다.

저는 힘들게 쌍둥이를 낳고 나서 모든 꿈을 포기한 채 오로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느라 자신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 덕분에 이만큼 자랐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런 혼잣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직장과 꿈을 잃는 여성이 더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 여당의 가치와 상징성과 별개로, 대선 때 후보 개인적으로 페미니스트이자 천주교 신자라는 점에 마음이 많이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수없이 갈등되고 후회도 되지만 어느 한쪽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천주교 신자이자 페미니스트인 국민들을 배신하지 말아주세요.

진정 보호되어야 할 약자의 입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법의 재정과 시행을 바랍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법은 여성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을때 계획적으로 아기를 가지고 싶습니다.

페미니스트 정권의 자존심을 지켜 주세요.

낙태죄 폐지 강력히 동의합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다. 하느님의 것도 정부의 것도 아니며 남편이나 남자들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겨주세요.

낙태죄 폐지가 여성의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입법 될 수 있도록 여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진행해 주세요.

낙태죄 폐지

낙태죄 폐지하라.

남성 종교인의 의견을 여성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에 이용하지 마시오.

여성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인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필요할 땐 몰래몰래 다들 했던 거 그게 법이 있어서 무슨 의미였습니까 ㅋㅋㅋㅋ 그리고 지금 사회상황을 보세요. 애 낳고 키울 수 있는 상황인지 애 낳으면 국가가 회사가 나 몰라라 하는데 1인 부모들은 생활고에 내던져지고 아이들은 방치 학대 대상이되고 ... 농경사회는 끝났어요. 이젠 하나도 버거운 시대라구요.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제는 될 때가 되었지요. 막을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경제적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그 외의 어떤 이유로도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내가 내릴 수 있어야합니다. 낳아야한다고, 낙태는 절대 안된다고 압박을 준 그 누구도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여하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임신 중단을 허용하면 그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전전공공하며 불법적인 경로를 찾아 해매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뿐입니다.

여성의 안전할 권리를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태죄는 폐지해야하는 악법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차별 관점이 아닌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을 마련해주세요. 여성들의 삶과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낙태죄 완전 폐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거세나 시켜라

임신 중단은 죄가 아니다.

위헌결정이 난 상태에서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의 몸과 건강, 행복을 위한 선택은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기에 제3자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 강제력으로 작동할 수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낙태는 여성 시민에 의해 오롯이 결정되어야 하며, 그와 관계없는 사상, 종교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my body my choice

여성이 아니라 이 나라에 태어나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에 여성과 노약자는 없습니까?

여성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임신의 위험과 책임을 지지 않는 남자들이 낙태에 죄를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이 결정합니다. 만일 낙태죄가 성립하려면 임신에 일조한 남자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은근슬쩍 낙태죄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전엔 정부에서 낙태하라고 했던 것도 없던 일인것 처럼 모르는 척 하지 마시구요. 추해요.

낙태죄에 대한 위헌에도 불구하고 굳이굳이 14주라는 제한을 걸어서 처벌을 하고자 하는 심리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적어도 그럴 거라면 낙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같은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요. 아직 한참 멀었구나 싶습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길 바랍니다. 낙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끼리 왈가왈부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일 것 같네요.

낙태죄 폐지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요한 복음서 13장 3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시대착오적인 낙태죄를 폐지하고 이제라도 갈 곳 없는 여성들을 감싸 안아주세요.

아직도 열악한 여성의 인권을 좀 더 존중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님에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질내에 사정하는 행위를 금지하십시오. 이유 없는 질내 사정으로 낙태의 원인을 만드는 남성을 처벌하고 남성들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콘돔 광고를 내보내십시오. 현재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도록 피임약 광고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피임약은 독해서 여성의 몸을 해치고 불임으로 미래의 출산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낙태는 죄가 아니라 성교육의 실패와 남성의 무지함이 낳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콘돔사용은 남성의 선택입니다. 낙태에 죄가 있다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거나 콘돔에 구멍을 뚫는 남성에게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여성의 삶을 짓밟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사회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법률 제정과 시행을 두고 여기저기 눈치보며 후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여성의 삶을 짓밟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권 존중의 길이 무엇인지 의결권자 내면의 편견과 혐오를 내려놓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국가 졸업 좀 하세요.

낙태죄 제대로 폐지하십시오!

여성 신자이자 페미니스트로서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정부는 시대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부분적으로라도 낙태를 허용해주십시오.

두 명의 수행자가 필요한 성행위에서 여성에게만 책임 물을 겁니까? 여성이 여성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성의 일은 여성이 결정하게 두십시오. 본인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은 본인이지, 타인이 왈가왈부하고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는 구시대적인 법입니다. 폐지해주세요.

온전히 여성들의 목소리만을 들어주세요. 여성의 몸에 대해 논하는데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는 이들의 의견은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접 당면해야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낙태죄를 왜 아버지에게도 묻지 않는 것이지요 ... 너무나 편향된 죄목이라 생각합니다.

자꾸 여성들을 도구로 여기지 마세요.

낙태죄 폐지를 원치 않는다면 여성들은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낙태죄는 여성만의 죄입니까. 성차별적 제도 없애주세요.

내 몸을 어떻게 할지는 제 권리입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가 여성들의 인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릴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털/더 가 아니라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낙태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일부입니다.

여아낙태가 많았던 해에 태어난 여성신자입니다 일케 살아남았는데 신체 자기결정권도 없어서 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산모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저는 신자로서, 또 누군가의 딸이며 후에 엄마가 될 사람입니다. 본적도 없는 태아를 살리기 위해 산모의 인생마저 앗아간다면 그런 법은 없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성의 결정권을 지켜주세요. “12주 전까지 허용/그 이후는 불법.” 이 말은 논의를 축소시킵니다. 여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라.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내 자궁은 내 것입니다.

정부의 페미니스트 정책 및 행보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패악질에 문혀 잘 들리지 않는 약자의 목소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공무원 인력도 충원하고 시스템도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며 그 사람에 여자는 들어가지 않나요?

여성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요?

낙태죄 폐지해야 합니다.

여성의 신체를 여성이 아닌 사람들이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국가는 종교의 눈치를 봐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낙태죄는 죄가 아닙니다. 가임기 여성 지표를 만들어 배포할 시간이 있다면 여성을 사람으로 인정해주시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낙태는 개인의 자유여야합니다. 여성을 애 낳는 가축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주홍 글씨를 여자에게만 찍지 마세요.

예전에는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몇명이고 사라졌는데, 이제와서 그걸 죄라 칭하면 우리가 걸어온 길은 뭐가 되는걸까요.

낙태죄라는 걸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에 말 좀 없지 말았으면. 위헌 이 외에 더 필요한 이유도 없다. 내 몸 좀 내버려둬. 임신하고 싶으면 니들이 해. 낙태죄를 그렇게 물고싶으면 DNA 검사해서 남녀 똑같이 처벌하던가.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걸맞게 진정한 헌법 수호는 결국 여성의 삶 보호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의 선택지로 만들어주세요. 여자가 모든 책임을 안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는데도 왜 아직도 제한적 허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견을 듣지 않을거라면 자문기구는 왜 두는 건가요? 전면적인 낙태죄 폐지를 촉구합니다.

여성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임신, 출산은 당연하게 여성을 주체로 두면서 원치않는 임신에선 여성이 주체가 된 결정을 낼 수 없는 것과 낙태가 여성의 죄로만 단정지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더불어 모든 이에게 올바른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시대에 따라 종교도 진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돌보고 보호할 권리를 타인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임신은 여성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추 달린 애들은 그 입 다물라.

여성의 몸과 건강에 관한 권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간에 차이를 두지 말고 무조건 폐지만이 답입니다.

낙태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죄라는 명목으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트리지 말아주세요.

낙태죄 폐지는 여성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소리나 행동으로 어지럽히지 마세요. 이미 존재가 온전한 생명의 목소리가 우선입니다.

여성의 몸을, 선택권을 법의 이름아래 입맛대로 재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몸의 권리를 누가 정하는가. 누가 내 몸을 범죄로 만드려 하는가.

여성 시민을 화나게 하지 말라 낙태죄 완전폐지 입법하라.

임신을 남성이 할 수 있었으면 낙태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적으로 여성의 선택입니다 낙태죄 폐지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쳐라.

모든 이가 생명을 잉태하는 게 즐거울 수 있는 사회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선 하나도 알지못하는 이들이 함부로 여성의 몸과 역할에 대해 떠들지 않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과 고통받았던 여성들이 뜻을 보았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여 전면폐지하십시오.

아이를 보호할 환경도 되지 않고, 임신시킨 남성에게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인데 그 전과 큰 차이 없이 바꾼다면 다음에도 또 헌법 소원이 있겠지요. 입법력, 행정력, 돈 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 좀 합시다.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출생률 저하의 원인을 발톱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원합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야 하며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을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한다면 여성의 건강권, 의료권을 무시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내 몸의 자유는 나에게 있다.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입니다.

이러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박수쳤나 회의감이 듭니다. 뱃속의 세포를 생명으로 대우한답시고 여성들을 별할 거면 공평하게 유산을 하게 만든 사람에게도 살인죄

를 물으시지요. 여자가 낙태를 하게 만든 남자도 잡아서 똑같이 처벌하십시오. 페미니스트 정부라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며 왜 항상 보여주는 결과는 미적지근하고 결국은 기득권 절대다수의 입맛에 맞는 것들 뿐인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만약 이것이 죄가 된다면, 정자제공자인 남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마땅하다.

"임신 중절은 여성의 권리입니다. 수술 중에 국가가 반대하는 수술이 임신중절뿐이라니요. 국가는 여성과 아이들의 행복은 무시한 채 그저 납세자를 생산하려고만 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고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여성의 편에서 싸울 겁니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책임져야 함이 마땅하다지만 세상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마리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축복받는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원합니다. 부분적인 폐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와 법은 같이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종교가 법을 침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교는 교리대로 하고 법은 법대로 하는 게 현대 사회죠. 법에 관해서 종교의 의견이 과하게 반영되는 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교 핑계로 헌법불합치 된 낙태죄에 대한 법 개정을 어설피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은 온 가족에게 불행할 뿐입니다"

낙태에 대해서 남성들이 말하는 게 웃기다.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핑계삼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이슈를 외면할건가요? 이미 모든 합의와 지지의 분위기는 형성되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내 미래를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여성은 출산기계가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내 몸에 대한 내 선택은 자유로워야합니다

선택적인 법 제정을 멈춰 주세요. 여성도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여성의 자신의 자식을 낳을 재생산권과 원치않는 임신을 중단할 신체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대해 건드릴서는 안됩니다.

여성만 처벌받는 낙태죄, 여성을 재생산 도구로 아는 낙태죄 폐지하라.

혼자서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태아보다 여성의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기는 불행하게 살게 될 뿐,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라는 말로 얼버무리지 마라.

말로만 여성을 위한다 하지 말고 진정 여성을 위하는 길을 고! 민! 하시길.

낙태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도
구화 하지 마십시오.

동일범죄동일처벌! 성범죄자 강력처벌!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소중한 존재라면, 이미 태어난 사람은 더 귀중하면 귀중했지 왜 안 중
하겠습니까?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해내보겠다는, 자신의 몸을 지켜보겠
는 사람들을 막지 말아주세요.

애는 혼자 만드나요... 왜 여자한테만 그럼???

너무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해내야만 한다.

가야할 길이 멀고 깁니다.

남자들의 판단으로 여성에 대한 제도를 만드시는데 대체 무슨 지식을 가지고 고집하시는지 모
르겠지만 정의롭지 않으며 국민에게 해롭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해
야한다고 배웠는데 현정부는 국민이 주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
라 현정부의 고집을 내세워 국민의 행복을 저하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성에 대한 제도는
남자들끼리 수근거리 정하지 마십시오.

제에에발 여성관련사안에는 여자목소리좀 반영하세요.

우리의 삶을 평생 책임질 게 아니라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하 태아는 고통도 못느낍니다. 낙태는 무조건 살인이라는 소리하고 학생들 세뇌시키는 시간에 이미 태어나있는 사람이나 잘 챙기시길..

여성은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거나 아님 남성도 동일하게 찾아내서 족치던가 그것도 못하겠으면 태어난 아기 양육비는 정부가 목숨 걸고 다달이 주던가요. 쓰다보니 백치네.

낙태죄는 위험이라 판결났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고 14주 허용을 논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성을 수단으로만 본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부디 살아있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죄여서는 안 됩니다. 가슴 아프고 괴로울 수는 있으나 혹은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도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입니다.

당장 살아 숨 쉬고 있는 사람이 먼저인가요... 아직 자신의 존재자체도 모르는 세포가 먼저인가요...

낙태죄 조속한 폐지!

"왜 여자 성별에만 처벌을 하고 왜 여자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없는건가요?
헌법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여자는 사람 한명분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낙태라는 프레임에 죄를 씌워 "여성"에게 묻기전에 함께한 남성에게도 책임을 지워주세요.

이미 태어나서 국민으로서 존재하는 여성을 보호합시다.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선택을 죄로 규정하지 마세요.

내 몸이고 내 선택입니다. 내 몸에 대한 선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성 시민으로서 남자라고, 여자라고 다른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대한 선택과 권리를 침해하지 마세요. 임신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 몸이 공공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싶습니다.

정부는 여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세요.

낙태죄 폐지하라. 여성은 인간이지 포궁이 아니다.

원인을 제공한 남성의 잘못은 묻어두고 임신한 여성에게만 유죄를 선고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성 시민은 2등 시민 취급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국민을 공정히 취급하기 바랍니다.

출산은 모든 여성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고통으로 태어난 아이와 엄마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임신을 무서운 것, 두려운 것으로 여기게 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준비된 어머니가 사랑으로 낳고 기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 낙태에 찬성 혹은 방관한 남성들에게 아무말 안하시나요? 기간설정된 낙태죄폐지라면 낙태죄에 남,여 함께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낙태가 성행해 성별을 모른 채로 태어나야했던 제가 있습니다. 더이상 여성의 몸을 당신들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정부가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를 자임한다면 개신교 천주교 등 수많은 종교 정파의 목소리보다 낙태죄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럼 말로만 낙태죄 찬성하지 말고 육아(를 비롯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를 하라!" 라고 하면 실행할 사람이 있겠는가? 설령 있다고 해도 그다지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닐 것이다. 인구유지라는 명목으로 나라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다. 그런데 왜 말로만 힘을 행사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가? 계속 저출산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 해결의 가장근본적인 해결법을 외면하는가? 당장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태아의 생명권이 소중하다면 이미 태어나 생을 살아온 여성의 생명권은 어떨까요?

낙태죄 폐지

종교계의 이야기를 귀 담아듣지말고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종교가 여성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미국에선 “plan b” 피임약이 어느 약국에 가더라도 처방전 없이 바로 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임신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가졌을때 72시간 이내로 복용하면 임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주는, 한 알로 된 간편한 피임약입니다. 이것또한 합법화 되고 구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여성 크리스천으로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앞으로 바로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낙태에 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남성 지도부의 의견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반의 여성 신자는 존재하며 낙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낙태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여성, 그 다음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여성의 의견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미 태어난 애들이나 좀 잘 챙기세요.

낙태죄 폐지하고 임신 기간 제한 없애라.

세금 받으세요.

낙태죄는 위헌이다. 조건을 붙여도 여전히, 낙태죄는 위헌이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동등한 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나요?

빨리 처리해라 지켜보고있다. 느그들 낙태죄 폐지 빨리 처리하라고 뽑아준거다. 여자가 대한민국 50프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틀리다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결국 이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요? 그 한 걸음을 위해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교리 가르칠 때 좀더 현실성 있게 가르치는 방향이 되게 정부에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이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가 될 것이라는 집권 당초의 말은 이미 눈 씻고 찾아봐도 진실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긴 말 않겠고, 그냥 투표해서 결과가 나온 대로 온전히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얇은 수로 24주네 뭐네 이 이상 여성 국민 기만할 생각 그만 좀 하십시오.

태아도 생명이니 뭐니 할 시간에 있는 사람이나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이 결정합니다. 여성의 복부를 고의로 폭행하여 유산시킨 사람조차 낙태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입니까?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여성의 정당한 선택입니다.

일단, 고대도 아닌데 정치와 법에 종교색 들어가는 거 모태신앙도 이해 못하겠는 이상한 짓거리구요, 크리스천이라면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이제 좀 여자도 사람이고 자기 몸에 대한 결정 자기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살고있는, 지금껏 삶을 영위해 온 국민이자 신앙을 가진 여성을 존중해주세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뭘 해주고 하지 말라고 해라.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여성에게 미래를 책임지라고 하지 마세요 손바닥이 두개가 겹쳐야 박수가 쳐집니다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줄 아시나요? 버려진 아이들, 오갈데 없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에 신경 써주세요.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가 몇 명인지 그 아기들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 아기들을 키우며 미래를 생각해보세요

헌법불합치 냈구만, 법대로 하쇼. 평소엔 법 좋아했잖아??

낙태 반대하시는 분들께 특별세를 걷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지원할 게 아니라면, 민주 사회의 원칙대로 여성 개인의 주권에 맡기시면 됩니다. 낙태 반대론자분들이나 나라가 키울 것도 아니면서 출생을 강요함은 무책임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를 걱정하며 여성의 결정권을 침해하지않고, 이미 우리 옆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것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낙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합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습니다. 지금 법 개정을 안하면 또 한걸음 좋은 나라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법 좀 바꿔주세요. 여성들의 숨통 좀 트여주세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태어날수밖에 없는 아이와 여성은 너무 힘들게 산다 는걸 생각해주세요.

낙태죄를 지금 당장 폐지하십시오.

여성을 위한 국가는 아직도 없다.

조금이라도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낙태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해도 지금과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의 숨통 좀 트워주세요.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제발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내 몸의 안전과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살아있는 시민보다 그 안의 세포 덩어리가 중요한가요? 그 전에 이미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여성 시민과 아이들에 대한 복지나 늘리십시오.

사회가 바뀌고 제가 여성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폭도 넓어진 세상이지만, 여성으로서의 몸만큼은 아직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출산과 임신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일 뿐인데, 이를 축복이라 하고 여성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 저출산과 혼인 비율 저하는 걱정하면서 정작 그 아래에서 존엄성을 위협받고 상처를 입고 있는 여성들은 돌아보지 않는 태세는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여성의 유일한 소임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임신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축복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겪은 후 낳은 아이들은 보육원에 맡겨지거나, 극심한 학대 속에서 고통받으며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임신부가 그 생명을 품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모두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을 맞이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세요. 여성은 걸어다니는 자궁이 아닙니다. 여성은 살아있는 아기집이 아닙니다.

남성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삭제하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임신 가능한 몸이 무엇인지 아나요? 여자로 호명 당하는,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진 '임신 가능한 몸'이라는 운명을 아나요? 선택하지 않았으나 '여자인 나'는 임신 가능한 몸이기 때문에 담배도 함부로 피우면 안 되고 찬데 앉아서도 안됐습니다. 나의 의사는 어디에도 없이. 이제는 내 몸이 온전히 나의 것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교회의 교리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여성을 죄인이라고 낙인찍는 법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아이 키울 환경이 안 되면서 임신시킨 남성은 왜 처벌하지 않나요?? 힘든 개인 사에도 불구하고 낳은 아이들을 정부는 왜 돌보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낙태를 막고 싶다면 낙태를 죄로 규정지을게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쏟아 붓는 육아보호시설완비, 아동청소년가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미혼모에 대한 막대한 지원과 끊임없는 인식개선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반 없이 그저 낙태하는 여성들을 범법자로 잡아들이겠다는 건, 여성은 사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을 할 뿐인데 나라가 껄떡하게 여기는 것에 불과하죠. 정말로 낙태를 죄로 단정짓고자 한다면 낙태를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서 충분히 잘 키울만한 여건을 마련해 놓고 나서야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왜 애를 낳지 않느냐고 묻는게 순서가 아닌지요?? 개인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죄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치않은 임신을 한 경우 남성과 달리 여성은 모든 신체적·사회적 부담을 떠맡게 됩니다. 수 많은 손가락질과 사회적 시선은 임신 못지 않게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여성도 자신의 신체를 지키고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낙태죄 폐지를 통해 보장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도 동등합니다. 낙태로 인해 손가락질 받고 원치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여성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어선택입니다. 낙태에 죄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처벌대상이 여성이라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열 달을 고생하고 육아에 지치고 내 커리어 끊겨가며 출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낙태죄라니요. 그것도 남아선호 사상을 중심으로 바스라져간 누이들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난 생명이 소중하다면 이미 태어나 살아온 여성을 출산기계가 아닌 국민 개개인으로 봐야죠. 숲이 아닌 나무를 보며 판단하지 마세요. 정책은 국민 모두를 위해야합니다. 개인의 판단과 인생을 존중하면서요.

낙태죄를 폐지해 주세요

낙태는 여성의 권리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은 분명한 차이입니다. 옳은 것은 누가 원하는 것이며 그른 것은 누가 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감별 후 여아 낙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해놓고 이제 와서 불법임을 강조하면 무슨 소용

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딸 동생이 당한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을 도구로 쓰지 마시죠.

낙태에 동의합니다. 내 몸에 대해 내가 생각 하고 내가 책임질려고 하는 거니 아무 말 마세요. 무분별한 성 생활을 질타 하실려거든 한국의 성교육이나 뜯어고치시고(제발) 성범죄자들 형량이나 높여주세요. 낙태죄 월가알부 하시기 전에 초,중,고, 대학교 의 성교육을 뜯어고치고 강사들도 다 뜯어 고치고 성에 관련된 모든 법규도 뜯어고치고 형량 개 뺄세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연히 낙태 횟수도 줄어들꺼고 더 이상 말도 안 나오겠죠. 낙태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낙태는 잘못된 성 인식에서 비롯된 작은 가지 하나입니다. 가지를 보지 말고 나무를 뿌리를 먼저 보세요.

여자도 국민입니다 더이상 여자를 배제하는 국가라는 느낌을 갖게 하지 마세요

여성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태아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우선입니다

정부는 남성 위주의 법안으로 여성들을 옥죄는 낙태법을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14주 이전의 아이만 낙태 허용이 아닌 낙태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엄마이기 전에 여성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해주세요.

"목숨은 저울질 할 수 없다지만 산부인과에서도 아이보다 산모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성도 하나의 목숨입니다. 아이는 그 몸에 기생하여 성장합니다. 여성이 원하지 않는다면 10개월 가량의 기생하는 생명체와 안전하게 분리해야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를 적극 지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낙태죄 폐지해라.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 낙태죄로 고발하는거 처리하던 힘으로 남자들한테 양육비 똑바로 받아내라 강요해라. 그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하란 말이다.

고통에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은 도덕도 윤리도 숭고함도 될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힘껏 찬성합니다.

기독교는 신앙조직이기 때문에 바뀌기가 어렵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으니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호주제폐지 때 사람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지나고보니 당연한 흐름이었

듯, 낙태죄폐지도 미래에 보면 당연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법에 있어서는 미래를 보고 움직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세요.

올바른 성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범죄화 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낙태죄 폐지와 함께 성교육, 임신을 선택한 여성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십시오.

지금 낙태죄 운운하는 정부 관련인들은 정말로 임신을 해본건가? 남자가 임신하라고... 알겠어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죄 유지한다고 해서 애 낳을 것 같습니까? 낙태죄 폐지+안전한 임신중절 방법 합법화!!

다른 이의 잣대가 아닌 여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여성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요

아직 우리나라는 여성 인권이 남성과 동등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낙태죄의 폐지이며 폐지로서 여성들이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봐야지 뭐가 됐든 긍정적으로 나라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당장 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비틀고 왜곡하며 귀를 막고 눈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

낙태가 죄라면 왜 여성만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남성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여성도 똑같이 처벌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죄가 죄로 성립하려면 남자도 함께 처벌하세요. 여성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한 그 말 지켜주세요

천주교 신자로서 낙태죄 폐지에 동의합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소중하지만,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낙태를 하는 것을 국가에서 죄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선택하기전에 평등한 한 인간으로써의 여성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종교가 인간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이 여성의 선택과 결정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할 일이지 비난과 죄의식을 사회나 종교가 앞서서 줘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려는 낙태죄는 위헌이다. 14주 22주 임신기간을 국가에서 정해 허가해준다는 건 규제를 느슨하게 해주는 척 여전히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낙태죄 완전폐지!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에 더이상 미적거리지 마십시오.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거래하려 들지 마세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낙태는 임신주체인 여자가 결정권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뱃속의 태아는 하나의 세포일 뿐이며 여성이 그를 생명으로 인식하여 낳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심 조장을 그만두시고 헌법에서 명시된 개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낙태죄를 유지하는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 있긴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세속국가 아니었나요?

세금을 푹푹하게 써주세요.

개인의 신체 결정권은 기본권입니다.

힘들게 헌재 통과했는데 수 쓰지 마시죠.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구세대의 사고에 멈춰 있지 않고 개월 수에 따른 태아의 변화등을 자세히 공부해주시고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사고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법을 다루려면 누구보다 많은 것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자(산모)와 그 수술 집도의만 처벌하는건 부당합니다.

내 몸이 네 꺼니? 정신차려.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1명의 시민으로서 낙태죄 전면 폐지 지지합니다.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국가가 통제하려 합니까? 낙태죄가 없다면 낙태를 밥먹듯이 하는 여자들이 많아질까봐 걱정입니까? 국가는 떨어지는 출산율이 두려운 것입니까?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두렵지 않습니까?

죄없는 여자들에게 낙태죄로 처벌하지 말고 남자들이나 처벌하라

출산을 할 권리, 낙태를 할 권리 모두 여성 개인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임신과 낙태에 대해 규제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출산율에 대해 왈가왈부 하기 전에 복지 제도는 제대로 되어있는지 점검하길 바란다. 그리고 출산율과 낙태죄폐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낙태죄를 폐지함으로써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다. 이것은 대표적인 일반화의 오류로, 출산율이 낙태죄폐지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낙태가 죄라면 그로 인해 한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린 누군가의 죄는 어떻게 물을건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선택권은 여성에게 있습니다.

낙태죄는 왜 여성에게만 묻는지?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할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낙태죄가 생기면 다들 낙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낙태를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출산을 어떻게 하면 높일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애도 안 낳아보고 키우지도 않았던 365세대는 출산율에 대해서 논할 자격도 없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막고 육아휴가를 증진 시킨다가 정답이라 생각하나 오만이다. 여성에게는 편견 없는 사회 진출이 더 필요하고 간절하다.

인권 신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귀 기울여 주세요

여성의 권리이고, 여성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여성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세요.

이제는 나아 갑시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입니다. 여성의 신체는 여성 본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하지 법이나 의료의 제약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은 여성일 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성은 무엇이든 할수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태어는 시민이 될 수도 있는 존재이나 여성은 이미 한 사회의 시민이다. 사회의 구성원이자 시민인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라.

12주는 임신중단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에 불충분한 시간이다. 임신중단 합법화와 더불어 그 실효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등 제한요건을 "여성의 신체에 해가 되지 않는 한"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여성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도 아닙니다.

미래의 모든 인간을 위한다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남녀가 합의한다해도 결국 아기를 책임지는 건 온전히 여성의 몫입니다. 여성에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낙태죄 폐지!!!

미신으로 여성들이 낙태 당하던 그 때, 남아를 낳으라고 눈감아 주던 그때는 잊은 듯 행동하네요. 대한민국은 헌법 상 국교가 없습니다. 남성 사제들의 시각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올바른 판단 내리십시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여성의 임신중지의 권리를 낙태죄로 규정한다면, 대한민국은 국민 절반의 성을 나머지 절반의 성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여성 인권이 남성과 동등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낙태죄의 폐지이며 폐지로서 여성들이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의 반대를 핑계로 삼지 말고, 시민들의 삶과 자유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종교인들 또한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신자이자 시민으로서 저는 사회와 교회의 진보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근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사회에서 더 많은 이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종교도 결국 사회의 흐름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이러한 흐름의 일환입니다.

이미 현재를 거친 사항입니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퇴보하는 건 아니죠.

낙태죄 폐지에 동의합니다.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선택권은 여성 자신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폐지해달라 외치는 것조차 웃긴 일이고, 임신은 책임이 아닌 여성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애초에 임신하지도 않는 남성이 임신 중단을 논하다니요.

여성의 몸도 생명임을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여성에게는 원치 않는 임신을, 내 몸의 상태를 나의 의지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치않는 임신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몸과 그에 대한 결정권은 국가에게 있어서 안됩니다. 나의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여성의 몸을 법의 잣대로 마음대로 다루지 않길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여성이 아닌 자, 여성의 몸을 논하지 마십시오.

낙태죄는 임신도 출산도 할 일이 없고 그 책임도 지지 않을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라.

"법과 종교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합니다. 양성평등을 지나 심지어 역차별의 시대가 왔다고 부르짖는 사람들(남성우월주의 및 오랜 세월 세뇌 당해 깨치지 못한 여성)은 세대를 뛰어넘어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진정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낙태죄라는 단어 자체가 모든 죄를 여성에게만 지우는 책임회피용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하와를 원죄의 원흉처럼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어느 경우에서도 한 인간의 몸에 생기는 어떠한 변화에 관하여는 그 본인에게만 치료, 수술, 인내, 중단 무엇이든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합니다. 개인의 몸에 일어나는 작고 소중한 일에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감히 국가가 부정적으로 개입하려 들지 마십시오.

여성 몸의 권리를 억누르려 할수록 국가 자연소멸은 당겨질 뿐입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간 대접하라.

"여성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신을 할수없는 남자들이 만들어낸 우스운 법안으로 여성의 인권과 몸을 무시하시마세요"

천주교 신자이고 여성으로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저희들의 몸은 저희가 정할 것입니다.

절반의 국민도 나머지 절반의 국민과 같은 대접을 해달라.

낙태죄 폐지를 위해 노력하세요.

임신중절 합법기간을 좀더 늘라고 산부인과 전공자에게 수술방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짜주세요.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의 의무가 있다면 남자에게는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OECD국가중에 유일하게 양육비를 강제하지 않으며 법적인 조치도 불가합니다. 위자료는 세계에서 바닥수준이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나몰라라 합니다. 가사노동은 10년 이상을 살아야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습니다. 우리법이 여성의 인권과 아동의 권리를 무시합니다. 남자의 부양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라면 여성의 원치않는 임신과 출산을 막아야 할 이유 또한 무엇인가요? 왜 이것을 죄라고 이름 붙이는데 남자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이 왜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애초에 한 개인의 신체와 자유에 대해 죄라는 명을 붙이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됩니다.

낙태가 왜 여성만의 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을 사회가 오롯이 돌봐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도 좋은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지 낙태만 안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생명을 낳을 것인가는 그 생명을 건강과 목숨을 걸고 낳고 키우는 것을 책임질 주체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성도 당신들과 같은 인간입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웃깁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여성에게 귀 기울이세요.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위는 저라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선택할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법의 취지가 어떻든 오롯이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은 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죄라할 수도 없습니다.

여성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여성들의 건강을 지원해 주세요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에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지 출산율이 왜 떨어지는지 정부는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거고 결국 한국인은 그렇게 지구상에서 없어지겠죠.

임신중단은 여성이 응당 가져야 할 기본권리.

낙태죄는 위헌.

낙태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갖는 자기결정권입니다. 종교인들의 목소리에 몸으로 고통 받고, 마음으로 상처입고 있는 여성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종교인들의 정부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수많은 여성들의 정부입니다. 낙태는 여성이, 여성의 몸으로 선택하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개인의 몸을 갖고 감 나라 배 나라 좀 그만 하세요.

시민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장에 종교적 신념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일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종교계의 목소리라는 비겁한 벽 뒤에 숨지 말고 제 할일을 좀 하십시오!

제발 정책 결정에 종교적 신념 좀 들이대지 마세요. 여기가 정교일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성 쪽에서 제대로된 피임을 하지 않거나 강간을 시도했을 때 생긴 아이에 대해 여성에게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허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나라가 국교있는 나라도 아닌데... 기독교 핑계대면서 법제정 미루지 마세요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모든 여성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국가 행정 차원에서 보여주기식 여성지원정책을 펼치는 것 보다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통해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더 급선무로 보입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다.

낙태죄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낙태죄 폐지를 원합니다.

미혼모는 나물라라 , 상대 남성은 눈감아주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떨쳐내는 불쌍한 여성은 죄인입니까?

그거 아시나요. 세상 누구도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타인이 좌지우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이며, 여성이고, 또 누군가는 페미니스트이며, 다른 누군가는 페미니스트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이들의 공통된 점은, 우린 우리가 스스로 낙태할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각하고,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큰 희망은 없습니다만 .. 그래도 혹시나! 낙태죄 폐지없이 성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아이는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닌데 죄는 여성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조차 없습니다. 남성에 대한 죄는 어디로 갔나요? 폐지할 수 없다면 생물학적 아버지인 남성을 끝까지 찾아내어 무거운 처벌을 적용시켜야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임신의 책임을 여성한테만 지우고 여성만 처벌하는 게 제대로 된 법입니까.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데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영향을 끼쳤다고 배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출산율을 감소시켰다고 배우는 대한민국에서, 21대 국회 남성의 성비가 80%를 넘는 대한민국에서 낙태죄를 논할 때는 여성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여야하지 않을까요? 여성의 몸에 대한 의사를 여성 스스로 하는 대한민국이 오길 바랍니다.

80-90년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했던 낙태는 아무렇지도 않아놓고 이제와 낙태죄를 적용한다? 그것도 애 안낳는 남자들이 정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낙태죄를 폐지하라.

애는 낳으면 끝이 아니요, 억지로 태어난 아이를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 낙태에 대한 권리도 없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폐지를 동의합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라 하느님과 분리된 사고는

지향하는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제가 배워 오고 소통해 온 하느님은 개개인의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믿어주시는 분이며, '올바르다'의 기준과 잣대는 엄격히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선택은 유동적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개인이 잘 겪어내는 것이 인간의 삶의 흐름이라 믿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진정으로 이 세상과 사회를 포용하기 위한 열린 신앙적 태도에서 습득하고 배운 것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하느님이 전하는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태도로 하느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에 그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그러한 노력을 신은 어여삐 여겨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처한 현실과 배경 등에 따라 당사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해당 당사자에게 '올바른' 선택이 나오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여성 인권의 흐름을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낙태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태아의 생명은 세상에 태어난 인간과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고 힘든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그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만' 하는 것은 그 소중한 태아의 삶을 비할 수 없게 힘들고 불행하게 합니다. 여성의 자주적이고 현명한 결정하에 '태아를 올바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낙태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태아의 영혼이 더 따뜻한 곳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결정의 책임에 있어 사각지대에 몰리는 수많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지점에서 낙태는 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태가 죄가 되어 버리면 음지의 반경이 더 넓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보호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며 더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늘어날 것 또한 예상됩니다.

낙태를 행하지 못하여 한 아이를 평생 불행 속에 성장하게 하는 것을 하느님은 기뻐하실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함과 하지 못함, 이 두 케이스 모두의 그늘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여성들을 하느님은 가엽게 여기실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개인의 올바른 선택 아래 그 개인들이 더 행복하고 더 넓은 시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모든 신들이 바라고 응원해주시리라 믿어봅니다. "

낙태의 책임을 물으시려면 유전자 제공한 사람 모두에게 물어야지 왜 한쪽에만 책임을 전가할까요. 아이를 낳아도 지켜주지 못하는 건 n번방과 조두순으로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낙태는 오롯이 당사자의 일이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말만 페미니스트 하지 맙시다.

다른 건 다 선진국이라면서 외국 따라하면서 왜 이런 건 안 따라해요? 낙태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인권 정말 바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을 지킬 선택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성의 낙태죄 폐지는 여성

보다는 다른 성별이 더 많이 반대합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선택으로 정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사회는 여성의 선택 보다 태아. 세포가 더 소중한 사회입니다. 여성을 존중해야 나라가 산다.

"지금의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도 그렇고 성별의 양극화도 그렇고요. 느리겠지만 점점 사람답게 사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정부도 그렇게 힘써주심을 믿습니다. "

낙태를 단지 여성의 죄로 치부하고 여성을 죄인으로 만드는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지금의 그때입니다. 낙태죄 완전폐지 2020.

임신유지는 여성 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당연합니다.

낙태죄를 종교적인 신념 어찌구 하면서 반대할 생각이면 카톨릭을 국교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대로 법을 만들기를 애타게 기원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겠다면 남자도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왜 임신한 여성만 처벌하나요.

종교도 인권에, 시대상황에 뒤쳐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뀌어야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몸과 성생활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몸은 개인의 것입니다.

출생수를 늘리는 좀 더 상식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수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일 때도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생명권만 보이고 여성의 삶은 보이지도 않습니까?

온통 남성인, 임신 경험도 가능성도 없는 일개 성당 신부들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몸에 대해 가타부타 하는 것 자체가 코메디 아닙니까? 근엄한 척 하지 마세요. 여성들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온통 남성인, 임신 경험도 가능성도 없는 일개 성당 신부들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몸에 대해 가타부타 하는 것 자체가 코메디 아닙니까? 근엄한 척 하지 마세요. 여성들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여성에게만 죄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많은 나라에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십시오.

여성의 자기결정에 의한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숙려기간은 없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2020년인데, 아직도 내 몸을 국가가 통제하나요? 나라가, 종교가 어떻게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죠?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를 성립시키려면 양육을 포기하고 도망간 남성에게도 똑같이 성립시켜라.

인권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면 그 안에 여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정부에서 폐지할 수 없다면 영영 낙태죄 폐지는 없습니다.

여성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종교가, 종교인이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신자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신도 아니면서 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신자를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관련 정책에 여성의 의견을 더 들어주세요.

당신들이 틀렸다는 걸 그만 인정하세요.

낙태죄 폐지 꼭 되어야합니다. 여성은 원치않는 아이를 낳지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종교계 의견이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며 차별주둔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정교가 결합된 사회였나요?

저는 신앙인이기 이전에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결정합니다.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강력히 원합니다.

낙태죄 즉각 폐지하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시소처럼 두고 후자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낙태죄는 반인류적인 법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병신들아. 이보세요 '페미니스트' 대통령아, 안 부끄러우세요?

낙태죄 폐지 세부내용 논의의 중심은 다른 정신들이 아니라 여성이어야만 합니다.

여성의 몸을 도구로 쓰지 마세요.

"낙태죄도 여자 똥... 성폭력 당해도 여자가 문제네... 여자 잘못... 피해자 중심으로 기사도 보도도... 왜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자한테 조심 조심 조심하라고 그러나요... 가해자로 인한 인생을 처참하게 밟혀 무너지는 고통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가장 끔찍한 일이고 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해서는 하면 안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 묻고 책임지고, 법으로 강하게 처벌을 해야죠!!! 생명이 축복이 되는 세상이 되도록... 그러면 세상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살만한 세상이 분명히 될텐데... 음주운전으로 사망해도 숨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이렇게 허망하게 한사람 인생이 끝나고 한 가정이 부모, 자식을 잃게 되고 파탄나는 상황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여성을 평등한 인격으로 대하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세상의 고통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비롯된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여성들이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아닌데 정자 제공한 남성은 쪽 빼놓고 여성만 차별을 하나. 그렇다고 태어난 아이들은 잘 지내지도 못한다. 가정폭력으로 죽은 아이들도 구출하지 못하면서 낙태죄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순간에도 이 악법때문에 죽어가는 여성들이 있다! 여성도 사람이다!"

정부는 낙태 경험 여성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라!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다. 낙태죄를 유지하려면 친부까지 찾아내 처벌하라. 친모만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낙태 벌하는 것인가 여성을 벌하는 것인가?

낙태를 죄로 규정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성으로써 가지는 임신의 책임이자 권리이고 여성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면 남성은 어디에?

종교 단체에서 성명을 낸 것은 종교의 대표자라고 하는 주교, 신부님들의 의견이지, 평신도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을 당신들이 결정하려

고 하지 마세요. 생명존중이라는 변명으로 포장하고 있지 마세요. 진짜 이유는 생명존중이 아닌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요.

크리스천이자, 여성 시민으로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책임질 이유는 없으며,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없는 것 또한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이자 대한민국 국민, 성소수자이자 페미니스트로서 낙태와 동성애는 죄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타협안이나 절충안은 없습니다.

신앙자로서, 법을 따르고자 한 정부라면! 법원의 판결을 따라주세요.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지금 왜 출산율이 적은지, 왜 불법낙태를 못해서 임신조차 안하려고 하는지...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단순히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위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한 남성으로 여성의 마음을 다 해야 할 순 없지만..그리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현실적으로 폐지 않으면 생명의 존중은 더더욱 여성에게만 책임지는 사회가 될 겁니다.

출산률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낙태죄같은걸로 여성이 더욱 세상을 팍팍하게 느끼게 만들게 아니라, 가장 먼저 결혼하기 좋은 정책과 환경, 그 후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혼자의 출산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출산률은 여아낙태로 인해 가임기 여성의 수가 적고, 결혼률이 낮기 때문이 가장 크다고 압니다. 낙태가 무분별하게 일어난 건 성별감별에 따른 낙태문제였지 문란한 성관계나 기분에 따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성 시민이자 신앙인으로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원래 의도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고통받는 것은 여성들이며, 예수님께서도 고통받는 여성들을 도와주셨으면 도와주셨지..

여성의 몸은 온전히 여성의 것입니다. 그 몸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여성의 몸에 있다면 여성이 결정할 수 있어야합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아이를 지키려할 때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나요.

태아는 법적으로 보함에 들 수도 없고, 임신부가 위협당했을 때에 두사람이 피해받은 게 아니라 임신부만 피해받은 걸로 나오고, 요리보고 조리봐도 태아는 법적으로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낙태죄는 왜 아직도 있나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부터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지만 그런 식으로 굴러갈 거면 다 동물의 왕국이고요. 사람이 왜 지식이 있고 논리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좀 말이 되는 소릴 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람들 열받아서 으르릉 킁킁 왈왈 안 하게요.

언제까지 '나중에'를 외칠 건가요?

남녀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악법인 낙태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악법인 낙태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폐지하지 않고 또는 낙태의 이해관계자인 남성만 쪽 빼놓고 낙태법을 개정하는걸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자로서, 법을 따르고자 한 정부라면! 법원의 판결을 따라주세요.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지금 왜 출산율이 적은지, 왜 불법낙태를 못해서 임신조차 안하려고 하는지...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단순히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위한거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한 남성으로 여성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그리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현실적으로 폐지 않으면 생명의 존중은 더더욱 여성에게만 책임지는 사회가 될 겁니다.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 이전에 지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한 사람, 고귀한 사람의 행복추구권, 안전한 삶에 대한 선택권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여성 신자도 사람입니다. 여성에게도 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중지 권리를 행사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중지 권리는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밖에 없는 권리입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자신의 몸은 자신이. 왜 죽지 않고 살아가려는 것이 죄인가?

태아 > 여성 인 이유는 태아가 남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가요? 살아가는 나보다 세포가 더 중요한감^^..

여성은 왜 사제가 될 수 없나요? 굿은 일은 왜 다 여성 봉사자들의 몫인가요? 그만 두십시오. 이제는 권위와 관습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동등한 위한 삶을 실천할 때입니다. 천주교의 교회 문화가 앞장 서서 바뀌십시오.

도대체 언제쯤 낙태죄가 폐지될까요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고 됐다 싶었는데 아직이네요. 여성들의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은 축복이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님... 말로만 페미니스트라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을 보여주세요.

선진국이라 주장하고 싶다면 낙태라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없애야 합니다.

낙태죄 불합치 폐지 시위에 참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낙태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성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낙태죄를 완전 폐지해주세요.

낙태죄 완전 폐지에 찬성합니다.

여성의 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성 천주교 신자로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벧속의 태아를 낳아 키울지, 말지는 오롯이 임신한 여성 당사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체 남성들이 어떤 이유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월가알부한단 말입니까? 한명의 여성 시민으로서, 한국의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합니다.

정부는 출생률을 높이고 싶었으면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을 냈어야 한다.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낙태죄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고 여성 몸속에 있는 포궁 또한 여성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세포 역시 여성의 것입니다. 포궁은 국가의 재산이 아닙니다. 원치않은 임신을 한 여성에게 임신중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강간이자, 학대이자, 국가권력의 남용입니다. 여자를 재산화 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임신중단 전면 비범죄화하라.

세포의 권리가 어찌 여성의 인권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까 여성은 사람 이전에 어미로 살아야 합니까 아버의 책임은 지우는 법이 어떻게 존치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의 신체 결정권을 빼앗는 법률은 사라져야 한다

낙태죄 완전 폐지!!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토록 힘겹게 싸워 이뤄낸 성과를 멋대로, 함부로 없애려 하지 마라!

여성의 몸에 대한 선택과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다 죽은 낙태죄를 정부가 살려냈다. 위헌도 아니고 헌법 불합치. 이미 태어난 인간은 보호하지도 않고 보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낙태는 못하게 하겠다?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1년 6개월, 고아원 아이들 수출국, 코피노 아이들 다수. 이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없다면 정치를 할 자격도 없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세포보다 살아 존재하는 여성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현 남성주의 교회의 권위는 곧 무너질 것, 여성을 동등한 위치에서 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그것이 바로 보장되어야 함도 당연합니다.

이렇다면 상대 남성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이런 법안 만들 시간에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법안이나 발의 입법해주세요.

동성애도 허락한 교단이 낙태를 반대하면 모순입니다

생명의 범위조차 논란 중인 태아보다 당장 생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기본권부터 보장하라.

군국주의 시대에 군인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화 시대에 노동자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던 국가의 모습으로부터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낙태죄를 유지하려는 행위 자체가 그로부터 생명과 신체와 경제사회적 자유를 침탈하는 국가폭력입니다.

아이는 책임 질 수 있을 때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임을 한다 해도 실수로 인하여서 실패할 확률도 있고 아이를 낳기에 각자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서 조기치료가 안전한 것처럼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시간지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낙태를 합법화시켜야합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따르십시오.

나의 몸을 결정할 권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낙태죄 완전 완전 폐지하라.

여성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다음 세대를 행복하게 초대하고 행복하게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지 생각 해 볼 것. 출산물은 낙태죄로 못 잡음. 이런 식이면 더 환멸나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여성들의 신체 자유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낙태죄 폐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제발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낙태죄라는 것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 에 한해서 성립된 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임신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여성만이 책임을 지게 하는 이 법은 평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신 중단을 죄라는 전제 안에서의 말바꿈일 뿐인 개정안, 계속 싸울 겁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무엇을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지 보다 무엇을 더 깊게 들여다보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정부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게 벌써 생명권을 부여하면서, 이미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권리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낙태는 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국민입니다. 여성도 사람입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끝까지 싸운다.

아기 낳는 기계 취급 받는 기분입니다. 취급아니고 설마 그냥 기계인가요? 아기는 둘이 만드는데 죄는 여자 혼자 받나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니 참.

페미니스트 대통령님, 이제는 진정으로 페미니스트다운 행동을 보여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새생명을 담보로 시민을 남녀로 나누고 여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낙태죄 폐지를 원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헌법불합치의 취지를 반영한 법 개정을 하라.

자신의 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의 결정을 국가가 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 '사건'이 개인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시길.

임산부를 폭행해서 유산이 되었을 때 살인죄 적용시킬 것도 아니면 출산 이전은 무조건 태아가 아닌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한다.

솔직히 낙태죄가 폐지되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남자들이 분명히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낙태 강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주세요. 낙태 자체가 여성의 신체에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데 그게 남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은 오로지 당신이 남자라 드는 생각이며, 여성으로서는 오로지 남자들이 노곤질싸(!)로 낙태강요하는 일이 늘어날 거라는 걱정이 더 됩니다. 성차에 따른 우려 상황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임신중지는 죄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의 권리는 여성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뭘 승인하네 마네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나의 것입니다. 내 몸은 내 선택입니다."

제발 남자들끼리 결정하지 마세요.

수술명이 낙태가 아닌 임신중절 수술로 불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의 몸이 불법 수술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낙태죄 폐지는 피치 못 할 사정으로 낙태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위험한 불법 시술로 고통받을 여성들을 위한 법이지 낙태를 조장하는 법이 아닙니다. 낙태죄가 존치한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불법시술과 위험한 상황만 야기할 뿐입니다.

임신 중단은 여성의 권리 입니다.

낙태죄 폐지 지지합니다.

야~~~ 여기가 아직도 유교사회인줄 아냐!!!!

여성시민으로써 필요한 걸 생각해주세요.

생명 존중은 나부터 아닌가요? 너부터 해라, 너만 해라 하는 게 낙태죄.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 나의 선택을 존중하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시요.

간보기 식의 개선은 사양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합시다!!!

아동관련 범죄를 엄벌로 해결 하기 전에는, 위헌인 법률마저 힘껏 싸워 없애야 하는 사회에서
는, 엄마가 행복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차라리 낙태가 낫습니다.

낙태죄 폐지

종교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주세요. 종교인이라고 모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

(끝)